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4. 4. 17. (수요일), 14:00 ~ 19:1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이승용, 김길식, 김영심, 김재홍, 김충식, 박종익, 성정용, 유병권, 유재춘, 윤용혁, 윤주, 이순희, 홍보식(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공 개)
2	익산 미륵사지 내 미륵산성 평탄지 2차 정밀발굴조사	(공 개)
3	청주 상당산성 내외 야간경관 조성	(공 개)
4	청주 정북동 토성 보호구역 내외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조성	(공 개)
5	공주 공산성 내 웅진성 수문병 근무 교대식 개최	(공 개)
6	경주 동궁과 월지 주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공 개)
7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보호구역 내외 도로 확장	(공 개)
8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	(공 개)
9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주변 생활형숙박시설 등 신축	(공 개)
10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내 기념비 이설	(공 개)
11	부산 연산동 고분군 주변 황토체험장 조성 및 숲길정비	(공 개)
12	부산 복천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3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가설시설물 설치	(공 개)
14	산청 조식 유적 내 공적비(3기) 건립	(공 개)
15	남해 충렬사 내 내삼문 계단 안전난간 설치	(공 개)
16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농막(컨테이너) 설치	(공 개)
17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소매점 신축	(공 개)
18	남한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9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 개)
20	익산 토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1	서산 보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2	사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검토사항】		
23	합천 성산 토성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24	부여 정림사지 등 내 부여 유물수장고 확충 사업 부지 검토	(공 개)
25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검토	(공 개)

【보고사항】		
26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2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 개)
2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4-04-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내 풍납동 485-1번지(145.0㎡)와 222-22번지(119.0㎡)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임.

- 추가 지정 예고기간동안 별도 접수 의견 없음.[문화재청 공고 제2024-101호(2024.02.22.)/문화재청 공고 제2024-113호(2024.03.06.)]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신청내용

○ 기존 지정 면적 : 1,520필지, 410,961.2㎡

○ 추가지정 : 2필지, 264㎡(풍납동 485-1번지, 222-22번지)

○ 추가지정 후 면적 : 1,522필지, 411,225.2㎡

(4)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4.02.05.)

○ (풍납동 485-1) 해당 지역은 서울 풍납토성 보존구역 내 Ⅱ권역(지정·매입 필요권역)으로 추가 사적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4.02.16.)

○ (풍납동 222-22) 해당 지역은 서울 풍납토성 보존구역 내 Ⅱ권역(지정·매입 필요권역)으로 추가 사적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85-1	대	145.0	145.0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22	대	119.0	119.0		
계		2필지			264.0		

안건번호 사적 2024-04-002

2. 익산 미륵사지 내 미륵산성 평탄지 2차 정밀발굴조사

가. 제안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익산 미륵사지」 내 미륵산성 발굴조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미륵산성(지방기념물)의 보존관리시행계획에 따라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사업부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학술조사(유적의 정체성 연구) 추진방향 및 유적 보존 정비 방안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 1966.06.22. 지정)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일원

(3) 신청내용**<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실시>**

○ 조사지역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산124-1

○ 조사면적 : 250㎡(평탄지 Ⅱ구역 내)

○ 조사기관 : (재) 전북문화유산연구원

○ 조사내용 : 기존 정밀발굴조사에서 확인하였던 석축저수조와 토루의 성격 파악을 위한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라. 참고사항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로 학술자료 및 보존정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발굴조사 계획은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이 마련한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조사구역을 선정, 수립하였음

○ 발굴조사 추진현황

연도	조사명칭	추진기관	조사기간	조사유형	조사결과	사유
1	익산 미륵산성 동문지 일원 발굴조사	익산군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0~1991	발굴	동문지 및 옹성, 적대, 수구지 확인	정비사업
2	익산 미륵산성 남문지 및 성내건물지 발굴조사	익산시 원광대학교 박물관	2004~2006	발굴	남문지, 성내 건물지, 저수시설 등 확인	정비사업
3	익산 미륵산성 정상부 및 서남치 발굴조사	익산시 (재) 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발굴	정상부 굴립주건물 및 서남치성부 확인	정비사업
4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문화재청 익산시	2019~2020	학술	보존관리시행계획 수립	정비계획
5	익산 미륵산성 평탄지 내 (Ⅰ~Ⅳ구역)발굴(시굴)조사	익산시	2022	학술	건물지 관련 초석 및 적심석, 석축유구와 성토층, 석축우물 확인	학술조사
6	익산 미륵산성 평탄지 내(Ⅱ구역) 발굴조사	익산시	2023	학술	석축저수조, 토루, 건물지 등 확인	정비사업

○ 2024년 익산 미륵산성 평탄지 2차 정밀발굴조사 계획 및 사전자문회의 개최

- 자문위원 : 김○○(○○대학교), 홍○○(○○대학교)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03

3. 청주 상당산성 내외 야간경관 조성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청주 상당산성」 내외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내외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여가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산성의 성내 저수지 및 산성마을 인근 이용객의 야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 1970.10.01. 지정)

○ 소 재 지 : 충북 청주 상당산성 성내로 124번길 14일원

(3) 신청내용<**야간 경관 조성**>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28-2번지 외 15필지(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역, 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L=840m

설치구간	설치내역		배치간격
주차장	보안등(PL-1) 수목투광조명(TR-1)	55W LED × 8EA 27W LED × 35EA	15m 간격 배치
진입로	문화재안내판(1) 문화재안내판(2) 관광안내도 관광안내도 간접조명(LW-1)	가로 710 × 높이 2,150 가로 1,200 × 높이 2,150 가로 2,359 × 높이 1,880 10W LED × 4EA	
산책로	볼라드조명(BD-1) 수목투광조명(TR-1)	5W LED × 87EA 27W LED × 179EA	5m 편측 배치
성벽	투광조명(FD-1)	18W LED × 107EA	3m 배치 석재외함 이용 설치

설치구간	설치내역		배치간격
남문	처마 정면 투광조명(SP-1) 처마 측면 투광조명(SP-2) 입구 라인투광조명(FD-2)	72W LED × 6EA 72W LED × 4EA 18W LED × 4EA	2m POLE 이용설치/3등용 석재외함 이용 설치 석재외함 이용 설치

설치구간	토목공사		기타 설치내역
주차장	보안등(PL-1) 수목투광조명(TR-1)	300×300×150 기초타설	칼블럭, 배관 설치
산책로	볼라드조명(BD-1) 수목투광조명(TR-1)	300×300×150 조명기구 기초 300×300×150 기초타설	ELP전선관, 접지용 전선 설치 칼블럭, 배관 설치
성벽	투광조명(FD-1)	300×400×400 조명기구 기초	석재외함 300×350×365
남문	처마 정면 투광조명(SP-1) 처마 측면 투광조명(SP-2) 입구 라인투광조명(FD-2)	400×500×600 기초타설 콘크리트 기초작업	접지용 전선 설치 석재외함 850×460×480 돌본드 고정

※ 분전반 : 진입로 관광안내도 옆 설치

- 조명유지시간

설치구간	설치내역	
주차장	보안등(PL-1)	하절기 19시~일출시 동절기 17시~일출시
	수목투광조명(TR-1)	하절기 19시~22시 동절기 17시~22시
진입로	수목투광조명(TR-1) 관광안내도 간접조명(LW-1)	하절기 19시~22시 동절기 17시~22시
산책로	볼라드조명(BD-1)	하절기 19시~22시 동절기 17시~22시
	수목투광조명(TR-1)	하절기 19시~22시 동절기 17시~22시
성벽	투광조명(FD-1)	하절기 19시~22시 동절기 17시~22시
남문	처마 정면 투광조명(SP-1) 처마 측면 투광조명(SP-2) 입구 라인투광조명(FD-2)	하절기 19시~22시 동절기 17시~22시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4.0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조명 설치는 남문, 남문옆 체성부 탐방로 볼라드 등 수목 조명 등 폴대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야간 탐방,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단, 남문 앞 노지설치의 경우 조명기구가 노출 되지 않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지자체 의견

○ 현재 남문 및 잔디광장 일대에는 조명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성이 높음

○ 설계과정 중 청주시 경관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 자문 각 2차례, 별도의 전문위원(조명, 문화재분야) 사전자문을 2차례 받아 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30 청주시 기본경관계획>을 참고하여 조명 설치로 인한 문화재 훼손 최소화, 주변 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색온도 설정 등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04

4. 청주 정북동 토성 보호구역 내외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조성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청주 정북동 토성」 보호구역 내외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정북동 토성 보호구역 내외에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환경 조성 및 현지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정북동 토성(사적 / 1999.10.28. 지정)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351-1

(3) 신청내용<**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조성**>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502번지 외 7필지(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 사업내용

도로 공사 (제방도로 확장)	콘크리트 포장		A=964.8㎡	
	옹벽 설치(비탈면)		H=1.0~1.5m, L=199m	
다목적 공간 조성	토목공사	성토(흙쌓기) 절토(흙깎기)	H=0.06~0.08m H=0.15~0.4m	
	옹벽 설치(비탈면)		H=1.0m, L=217.5m	
	경계석 설치		직선 L=586m, 곡선 L=18m	
	수로관 설치		L=213.0m	
	잔디블럭 포장		A=2,395.8㎡	
	목교 설치(다목적공간~정북동토성 연결)		B=3.0m, L=20m 1개소(합성목재)	
	식재 조성 ※ 기존 수목	잔디 포장	A=1,639.2㎡	
		패랭이	8㎝	1,000주

	2그루 유지	꽃잔디 아스타국화	8㎝ 8㎝	700주 800주
	잔디등(볼라드등 LED25W)	20개소(BU-G-L002) 25m 이내 간격 설치	12개소(SOL-G-L100) (220v, 60HZ, 100W급) 5개소(BU-G-L002) (220v, 60HZ, 25W급)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4.0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정북동 토성 미호천 평지성으로 운영되던 성곽으로서 미호천과 토성사이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나 차량이 배후에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05

5. 공주 공산성 내 웅진성 수문병 근무 교대식 개최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공주 공산성」 내 웅진성 수문병 근무 교대식 개최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공산성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한 상설프로그램 운영으로 백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로 70회를 맞는 백제문화제의 콘텐츠를 다양화 하고자 추진하는 행사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금성동 65-2번지 일원

(3) 신청내용<2024 웅진성 수문병 근무 교대식 개최>

○ 위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65-2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행사내용

- 행 사 명 : 2024 웅진성 수문병 근무 교대식(세계유산 상설프로그램)
- 사용면적 : 약 2,500㎡
- 기 간 : 2024.4.20.~11.10.(매주 토, 일 및 공휴일) 11:00~16:00/총5회

※ 백제문화재 기간 중 매일 운영, 혹서기(6~8월) 미운영

- 행사내용 : 수문병 근무 교대식(30분 내외), 부대행사(포토존, 퀴즈대회 등)
- 가설시설물 : 몽골텐트(5×5m) 2개, 판매대(1×2m, 높이2m)

※ 판매상품 : 공주시 캐릭터 상품(인형, 마그넷, 알밤 및 곰 키링, 파우치 등)

- 행사목적 : 관람객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상설 공연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라. 참고사항(문화재 안전대책)

(1) 시작 전

○ 행사시작 전 안전점검

-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중 무대설치, 전기설비 등 설치 시 작업 반경 확보와 주변 가림막 등의 보호책 설치(설치 작업자는 안전장구, 복장 등 착용 필수)
- 프로그램 장소 내 적정 위치에 소화기 비치 및 소방 시설 위치 파악·야외 문화재의 경우 소화기 위치 등의 사전 파악은 필수 · 일반 건물인 경우 비상구, 소화전, 소화기 등의 위치 파악
- 관객이 밟거나 앉을 위험이 있는 문화재는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관람객 및 안전요원에게 주의사항 전달
- 프로그램 관계자 및 운영자, 담당자 등과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
- 프로그램 운영 시 관람객의 부주의, 돌발행동 등에 대한 통제

○ 시설물 점검

-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도구, 기구, 물품 등에 대한 상태를 파악
- 문화재 건축물의 훼손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상태 파악·전시, 관람의 경우 전시 관람선의 여부, 문화재 보호 장치 상태, 안전선,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및 상태파악 · 체험 및 교육은 체험기구, 도구의 상태 파악, 교육 등의 경우에는 의자, 책상뿐만 아니라 문화재 내 앉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구조 등을 파악
- 소방 및 방재 관련 시설물의 상태 점검
- 감염병 관련 방역물품과 악천후 관련 대비물품 등의 점검

○ 관람객 이동 동선 및 활동 범위 등 파악

- 프로그램 운영 장소의 수용인원 파악, 수용 인원 간 거리 예상, 밀집도 파악
- 관람객의 돌발행동 예상 파악 · 전시, 관람의 경우 갑작스러운 퇴장, 대열에서 이탈 등 행동과 범위 예상 · 체험 및 교육의 경우 갑작스러운 장소 이탈, 체험 기구 및 도구의 부적절한 사용 등
- 전시 및 관람의 경우 이동 시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부분의 사전 파악·문화재 건축물이면 석조계단, 마루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람객 이동 시 턱의 높음, 천장의 낮음 등 다양한 구조물의 형태 파악

○ 그 외 주변 환경파악

- 문화재 건축물 내 마당 등에서의 프로그램 진행 시 주변 자연환경 및 기상환경 파악

- 목조건축물 내 마루나 대청의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 마루나 대청의 상태, 높낮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점검
- 석조 건축물 내 강의실, 회의실, 교실 등에서 진행할 시 계단, 복도 등의 환경과 실내의 주변 환경 파악
- 일반 건축물(박물관 등) 내 프로그램 진행 시 일반 시민과의 동선, 활동범위 등의 파악 실시

(2) 운영 중

○ 운영 및 안전점검

- 프로그램 운영 중에 운영자 및 담당자는 안전관리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전시 및 관람은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관개그이 이동 동선 등을 관리·교육 및 체험은 강의자, 운영자가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주의, 돌발행동과 체험기구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통제
- 중·대규모 관람객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운영 중 안전관리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을 검토해 안전요원을 배치해 관리 · 여러 장소 또는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의 경우 종합상황실 및 안내소 등을 운영 · 종합상황실은 안전요원의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 활용프로그램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활용현장 간 상호연락 및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실시간 확인

○ 프로그램 운영 중 특이사항

- 소규모의 교육 및 체험, 전시, 관람의 프로그램은 안전관리와 관련해운영자와 참여자 간 즉각적인 피드백 실시 ·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재난 발생(화재, 지진 등) 시 운영자와 참여자 간 신속한 대피 · 경상 정도의 안전사고 발생 시 구급약 및 구급통을 통한 신속한 대응 · 중상인 경우 응급처치 후 소방서 신고와 병원 후송 실시 · 운영자 및 담당자는 프로그램 운영 중 위험이 발생할 만한 장소와 참여자행동 등에 대해 즉각적인 통제
- 중·대규모의 프로그램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특이사항 통제 및 관리 · 해당 행사의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담당 조직을 주축으로 종합상황실 운영· 프로그램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세부 프로그램 시작-운영-종료의 상황을 접수 · 종합상황실은 응급실을 따로 운영해 관람객 이동 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 응급처치 및 병원 후송 · 경찰서 및 소방서 등의 협조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분실센터, 미아보호소 등의 추가적인 안전사고 대응 체계 운영·안전요원은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음주자, 돌발행동자 등) 및 제한 구역 등을 통제하고 실시간으로 보고

○ 안전요원의 배치 및 역할

- 소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안전요원이 없으면 운영자 및 담당자가 적절하게 수행·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상황실 혹은 활용단체에 보고·관람객 및 참여자의 입·퇴장 안내·동선 및 주차장 등의 차량 정리·입장 제한 구역의 출입제한 및 통제 · 돌발행동, 부적절한 기구 사용, 비협조적 태도 등 관리 및 통제·문화재 내 프로그램 시 화기 사용 통제(금연 포함)·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자 이동통로 및 관람객 안전거리 확보·공연 종료의 경우 관객의 퇴장 관리(2개 이상의 문으로 이동 동선 확보), 주차장의 차량 및 교통 통제

○ 무대 주위 안전 및 동선 관리

- 무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무대와 객석 사이 충분한 공간 확보, 관객의 돌발행동 대비
- 무대가 높으면 공연자의 추락방지 안전매트 설치
- 공연자 및 스태프와 관람객의 이동경로를 구분하며 관람 공간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안전선, 펜스 등을 설치

○ 전시, 관람 등의 관객 이동 동선 관리

- 전시는 한 부분에 정체 및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및 관리·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동 동선, 참여자 수를 파악해 유동적으로 설명 시간을 가짐
- 관람은 조명이 어두운 동선은 통제하고 계단이나 문의 턱 등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통제 및 관리 · 공연 시작 후에는 더 어두워지므로 관람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제한

○ 위험요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유동성

- 기상악화(폭설, 폭염, 폭우 등)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유동성 확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람객, 참여자 간의 거리두기 실시
- 프로그램 연기 및 취소에 대한 계획 수립

(3) 종료 후

○ 종료 후 운영 및 안전점검

- 소규모 프로그램은 종료 후 참가자가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운영자 및 담당자가 주도해 퇴장까지 인솔
- 중·대규모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안전요원을 재배치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한 퇴장과 귀가를 지원·야외인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산발적으로

퇴장할 가능성이 커 사전에 안전요원을 통해 동선 통제·건축물 내인 경우 혼잡 구간이나 계단 구간에 경호 및 안내인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안전사고 방지·2개 이상의 출입구를 활용해 관객의 퇴장 분산 유도

○ 프로그램을 위해 설치한 가설(임시) 구조물의 해체

- 중·대규모의 프로그램은 무대 등의 공연 장비뿐만 아니라 스태프의 배역을 위해 다양한 기구, 도구를 임시로 설치·프로그램 종료 후 구조물 해체 및 수거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장비착용, 안전사고에 주의하도록 운영자 및 담당자가 해체 완료까지 통제

○ 안전관리 분야 자체평가

-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 안전관리 분야 체크리스트 평가
- 운영자, 지자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 관계자는 운영 전·중·후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4) 청소

○ 책임자・관리요원 배치

-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처리 : 3개반/ 6명 편성 운영
- 행사장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음식물폐기물 배출용기 배치

○ 행사기간 : 4. 20.(토) ~ 11. 10.(일) / 매주 주말 및 공휴일

- 행사장별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부 고정배치
- 기동 처리반 운영 :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매일 즉시 쓰레기 처리

○ 행사기간 후 : 2024. 11. 10.~11. 15. (5일간) / 행사장 전역 대청소 실시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의복 등 행사계획 보완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06

6. 경주 동궁과 월지 주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경주 동궁과 월지」 주변 그린스마트 스쿨을 조성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동궁과 월지 주변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스쿨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4년 2차 위원회('24.02.21.)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번지 외

(3) 신청내용<**선덕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71-1(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증축 건축면적/증축 연면적 : 227.62㎡/86.15㎡(본관동 74.37㎡, 창고 11.78㎡)
- 증축 건물 높이 : 본관동 연결통로 11.9m, 창고 3.65m, 풍경마루 9.4m
- 토목공사 : 터파기 265㎡, 되메우기 116㎡

구분	'24년 2차-부결	금회	증감
증축 건축면적	241.99㎡	227.62㎡	△14.37
증축 연면적	86.15㎡(본관동 74.37㎡, 창고 11.78㎡)	좌 동	
증축 건물높이	본관 연결통로 11.9m, 창고 3.65m, 풍경마루 9.4m	좌 동	
터파기/되메우기	315㎡/138㎡	265㎡/116㎡	△50 / △22
풍경마루 폭	6.6m	4.2m	△2.4

(4) 신청인 의견

○ 본관동은 학교 설립 이후 약 49여년이 경과하여 기능적으로 노후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2.06./문화재위원 ○○○)

○ 기존 건물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여 연결 통로를 설치하는 것과 1층 도서관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건으로 신라방 측 벽면에 돌출된 연결 통로의 제시된 계획안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됨. 단, 2층에서의 연결과 통로 폭을 계획안 절반으로 줄일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1층 도서관 증축은 긍정적이나 그 이상의 증축은 경관 및 건축공간 측면에서도 부정적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07

7.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보호구역 내외 도로 확장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사적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보호구역 내외 도로 확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보호구역 내외 도로 확장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사적 / 1998.09.17. 지정)

○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68-1번지 외, 춘양면 대신리 외

(3) 신청내용**<도로 확장>**

○ 위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 사업내용

- 기존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확장

· 당초 8m → 확장 11~13m

- 총 연장 1.3㎞ 중 보호구역 218m, 1구역 351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자료보완 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08

8.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공동주택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공동주택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 1985.11.07.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일원(신대리 5호, 7호)

(3) 신청내용<**공동주택 기반시설 조성**>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91-3번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검토),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4구역(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경관녹지 : 2,765.4㎡(교목 124주, 관목 10,220주 등)
- 소 공 원 : 1,444.0㎡(교목 108주, 관목 1,910주, 파고라, 체력단련시설 등)
- 도 로 : 14,978.0㎡(소로(4개로) B=8～10m, L=731m, 중로(3개로) B=12～18.5m, L=539m)
- 주 차 장 : 1,860㎡(아스팔트포장, 투수콘 포장, 보차도 경계석)

라. 참고사항

○ '23년 2차 소위원회('23.04.26.)에서 공동주택 신축 허가

- 대지면적 : 33,393.00㎡
- 건축면적 : 6,487.53㎡
- 연면적 : 114,242.84㎡

· 지상 : 72,876.85㎡
· 지하 : 41,365.99㎡
- 규모 : 10개동, 지하 3층 ~ 지상 22층
- 최고높이 : 69m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마.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자료보완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명, 보류 12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09

9.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주변 생활형숙박시설 등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사적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주변 생활형숙박시설 등 신축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주변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사적 / 1972.10.14. 지정)

○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40-1

(3) 신청내용<**생활형숙박시설 등 신축**>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237-9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0m 이격/4구역(예산시 도시계획조례)}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9,217.30㎡ / 연면적 : 11,309.08㎡ / 건축면적 : 2,093.58㎡
- 토목공사

· 최대성토(9m), 최대절토(8m)

· 옹벽공 : 보강토 옹벽(H=0.5~4.8/160m), 역L형옹벽(H=0.2~4.5/290m), 식생블럭식 옹벽(H=0.5~4.5/115m)

· 포장공 : 콘트리트포장(T=20/1,163㎡), 아스콘포장(T=40/3,105㎡), 잔디식재(293㎡), 보도블럭(22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4.15./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의 사당 뒤쪽 구름을 절토·성토 하여 높이 24.2m, 지상 4층, 건축면적 2,093.58㎡, 연면적 11,903.08㎡의 생활형 숙박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지형을 볼 때, 윤봉길 의사 사당에서 30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여 경사지에 절·성토를 통해 조성하나, 규모가 크고 단위 건물의 크기 또한 커, 절·성토의 최소화, 건축물의 분절, 지붕의 경사 지붕 조성 등을 통해 경관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10

10.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내 기념비 이설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사적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내 기념비 이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내 기념비를 이설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사적 / 1972.10.14. 지정)

○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40-1

(3) 신청내용<기념비 이설>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91 외 1필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우진회기공비 : A=1.80㎡(B=1.5m, W=1.2m, H=1.6m)
- 윤규상공적비 : A=0.84㎡(B=1.2m, W=0.7m, H=1.7m)

(4) 신청인의견

○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보부상유물」 지정에 공헌한 윤규상의 공적과 윤봉길 의사 기념관 확충사업 부지제공 등 윤규상 후손의 고마운 마음을 기리고자 유적내 미관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수리에 간섭되지 않는 위치로 기념비를 이설 및 존치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4.15./문화재위원 ○○○)

○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내 기념비를 기념관(교육관) 신축에 따라 이설이 필요함. 다만 기념비 내용의 사적인 의미가 있어 기념관 인근에 위치하는 것은 적절하기 않음. 기념비 내용을 고려하여 입지를 재검토 및 선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진회기공비 및 윤규상공적비

○ 우진회기공비 : 윤봉길 의사가 최초로 조직한 월진회의 후신(後身)이며, 윤봉길 의사 사상을 계승·선양하는 現 월진회(月進會)의 전신(前身)인 우진회(禹進會) 공적을 기리기 위해 우진회 초대회장 후손 6인이 2011년에 건립한 기념비

○ 윤규상공적비 : 초대 우진회장 및 두 차례 월진회장을 역임(39년)하면서 충의사창건, 윤봉길문화축제개최, 윤봉길의사기념관 건립, 인간 윤봉길 연구 발간, 보부상 유품(2) 발굴·정리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에 기여한 윤규상 회장을 기념하기 위한 공적비. 윤봉길 의사 선양과 내포보부상 문화 보존 및 가야사지 발굴·조사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윤규상의 공적을 기리고자 윤규상 후손이 2016년에 건립한 기념비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11

11. 부산 연산동 고분군 주변 황토체험장 조성 및 숲길정비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 주변 황토체험장 조성 및 숲길정비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연산동 고분군 주변에 황토체험장 조성 및 숲길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사적 / 2017.06.30. 지정)

○ 소 재 지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

(3) 신청내용<**황토체험장 조성 및 숲길정비**>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952-48번지 외 5필지{문화재구역과 연접 /1구역(개별검토)}

○ 사업내용

1) 황토체험장(A=219.5㎡)

- 토공 : 터파기42㎥, 되메우기 7.3㎥, 흙깍기 51.3㎥, 흙쌓기 10.2㎥ 체험장 숲길 확폭 24.7m
- 철거이설공 : 잡목제거 150.9㎡, 무근구조물깨기 7.5㎥, 콘크리트포장 절단 115.0m, 평벤치 이설 5EA, 규사포장 21.1㎡,
- 포장공 : 황토포장A 126.9㎡. 황토포장B 11.6㎡, 원형경계목A 79.3m, 원형경계목B 12.6m, 침목계단 49단, 흙콘크리트포장 34.5㎡, 미끄럼방지포장 5.0㎡
- 시설물공 : 앉음벽(등받이) 7.8m, 앉음벽 8.0m, 산석쌓기, 안내판 5EA, 목재편책 17.6m, 로프휀스 14경간, 세족대 1EA, 신발장1EA, 스틸그레이팅 4EA, 집수정2EA, 기존배수연결 1개소 등

2) 숲길정비

- 숲길정비A 108.0m, 숲길정비B 20.0m, 야자매트철거 108m

3) 치유숲길(2단계)(A=99.7㎡, 길이105m)

- 터파기 9.2㎥, 되메우기 8.4㎥, 야자매트 105m, 데크쉼터 1식, 돌쌓기26m, 원주목편책 20.9m, 평상2EA, 썬배드2EA, 입구게이트 1EA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12

12. 부산 복천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사적 「부산 복천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등 정비를 위하여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복천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등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20년 7차 소위원회('20.09.23.) 조건부가결

① 200m 초과되는 부분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

②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발굴조사 실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복천동 고분군(사적 / 1981.06.09. 지정)

○ 소 재 지 : 부산시 동래구 복천로 66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칠산동 246번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2~5구역)

○ 사업내용

구분		'20년 소위7차-조건부가결	금회 신청안	비고
대지면적	구역면적	399,960㎡	400,066㎡	증 106㎡
	공제면적	136,973㎡	144,937㎡	증 7,964㎡
	실사용면적	262,987㎡	255,129㎡	감 7,858㎡
규모		지하5층/지상45층 (문화재구역 내 지하5층/지상26층) 5,122세대	지하5층/지상32층 (문화재구역 내 지하5층/지상25층) 4,300세대	감 지상12층 - 감 822세대
최고높이		11.85~151.11m	14.35~108.0m	-
건축면적		53,331.7463㎡	55,290.1250㎡	증 1,958.3787㎡
건폐율		20.28%	21.67%	증 1.39%

구분		'20년 소위7차-조건부가결	금회 신청안	비고
연면적	지상	596,838.9696㎡	553,309.0743㎡	감 43,529.8953㎡
	지하	297,587.2316㎡	396,265.0503㎡	증 98,677.8187㎡
	합계	894,426,2012㎡	949,574.1246㎡	증 55,147.9234㎡
	용적률 산정용	596,838.9696㎡	553,309.0743㎡	감 43,529.8953㎡
용적률		226.95%	216.87%	감 10.08%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제출의견('24.03.20.)

가) 이번에 변경허가 신청 내용은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첩되는 곳은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이라는 2016.8.16. 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2018.1.25.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심의를 거쳐 2018.2.1. 허가된 부산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조건 중 “동래읍성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3구역은 9층 이하, 4구역은 11층 이하, 5구역은 13층 이하, 6구역은 표고 50m 이하 또는 15층 이하로 할 것”과 관련하여

1) 복천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구역(동래읍성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6구역과 중복)의 417동은 복천동 고분군과는 135m 정도 이격되어 있지만, 동래읍성지(부산시 기념물) 인생문 일원 문화재지정구역과는 40m 정도 이격되어 있어 2018.1.25.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허가조건을 반영하여 9~15층으로 조정하였다가 변경허가 신청에서는 22층으로 대폭 높이를 올려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2) 417동 건물의 최고 높이를 포함한 해발고도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인 해발 50m 이하(복천동 고분군 야외전시관 높이)를 크게 초과하는 122.5m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2항(국가 문화재와 지방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따라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변의 낮은 동에 분산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함.

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622호)」 별표2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 기준”

중 '3. 문화재 유형별 경관 검토 기준 (5) 성' 조망성에 의하면, '성은 적의 동태 및 성 안팎을 살피기 위해 망루 및 장대 등을 설치하는 조망성을 중시하는 시설(생략)'이라고 하였고, 마루선에 의하면, '성의 내·외부 주요 조망점(남문, 망루, 객사 등)에서 문화재의 배경이 되는 후면지역 조망 시 해당문화재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곽 위로 여타 건축물이 배경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지붕 형태 등을 검토하여 성의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 해야 하는데, 동래읍성지 동장대에서 서장대 방향은 고층의 513동 등이 가리고 있어 조망이 어렵고,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심한 점도 재검토되어야 함.

다) 이번 변경 신청에서 신설되는 507동, 건물 높이를 포함한 해발고도가 5m 이상 높아진 504동(증1층, 5.6m 상승)과 505동(증1층, 8.85m 상승), 건물 위치가 크게 변동된 401동, 404동, 504~506동, 515동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허가조건('18.01.25.)

- 동래읍성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3구역은 9층 이하, 4구역은 11층 이하, 5구역은 13층 이하, 6구역은 표고 50m 이하 또는 15층 이하로 할 것
- 사업내용 6, 7블럭(도면 A-603쪽) 중 충렬사와 근접한 5개동은 5층 이하를 유지하고, 동래고등학교 동측에 위치한 6개동은 탑상형 4개동으로 하고 층수는 32층 이하로 할 것
- 위 조건에 따른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정량부, 이호열 위원의 확인을 받고, 해당 위원들이 확인·서명한 건축계획, 설계도면(원본, 사본 각 1부) 제출 후 사업 시행(허가사항 변경허가 병행)
- 동래읍성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7구역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관에 어울리도록 동수와 층수를 조정하며, 건물 형태는 탑상형으로 하도록 건축, 도시계획, 경관 등 해당 위원회에 권고할 것
- 2007.7.12.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등에 제출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내용 중 복천동의 유래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복천동 169번지 및 칠산동 140-3번지의 마을 공동우물은 발굴조사 때까지 현재와 같이 원형 보존할 것(주변 건축물 철거공사 시 보호 조치 등으로 각별히 유의할 것)
- 허가내용 중 문화재 관계법상 높이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제외된 건축

면적, 연면적, 용적률, 최고높이는 추후 허가조건 이행 등을 통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때는 전체 사업내용으로 할 것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2명, 조건부가결 1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13

13.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가설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가설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데크, 그네 및 입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 1970.10.01. 지정)

○ 소 재 지 : 충북 청주 상당산성 성내로 124번길 14일원

(3) 신청내용 **<가설 시설물 설치>**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1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목재데크 5ea, 목재그네 4ea, 입간판 1ea 설치

- 대지면적: 2,826㎡
- 설치면적: 약 92㎡ (데크 90㎡, 입간판 2㎡)
- 설치규모

· 목재데크(5ea) : 가로 6.0m × 세로 3.0m

· 목재그네(4ea) : 가로 2.0m × 세로 2.0m × 높이 2.0m(데크 위 설치)

· 입 간 판(1ea) : 가로 1.5m × 높이 1.5m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14

14. 산청 조식 유적 내 공적비(3기)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 사적 「산청 조식 유적」 내 공적비(3기)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산청 조식유적 내 공적비(3기)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산청 조식 유적(사적 / 1984.01.26. 지정)

○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384번지 일원

(3) 신청내용<**공적비(3기) 건립**>

○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384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약 48㎡
- 비신규모 : 가로 70㎝ × 세로 40㎝ × 높이 200㎝
- 사유 : 남명 조식의 위대한 선비정신의 계승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들 중 3인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공적비 건립

※ 인물개요 : 김충열(1931년생, 남명학연구원 초대원장),
권순찬(1924년생, 전 남명학연구원 이사장),
조옥환(1932년생, 현 남명학진흥원 이사장)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15

15. 남해 충렬사 내 내삼문 계단 안전난간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사적 「남해 충렬사」 내 내삼문 계단 안전난간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해 충렬사 내 내삼문 계단 안전난간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해 충렬사(사적 / 1973.06.11. 지정)

○ 소 재 지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번지

(3) 신청내용**<내삼문 계단 안전난간 설치>**

○ 위치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철재 안전난간 설치(L=4.7m, H=1.2m, 2열)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16

16.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농막(컨테이너)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농막(컨테이너)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농막(컨테이너)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 2011.07.28. 지정)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등

(3) 신청내용<**농막(컨테이너) 설치**>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9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농막(컨테이너) 설치(3m×6m×높이 2.75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3년마다 재심의 받을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17

17.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 2011.07.28. 지정)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등

(3) 신청내용<**소매점 신축**>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7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사용면적) : 2,194㎡(330㎡)
- 건축면적 : 40㎡
- 층수/구조 : 지상 1층(최고높이 3.77m) / 경량철골구조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18

18. 남한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남한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한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23년 6차 위원회('23.06.14.)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관계법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할 것
- '24년 2차 위원회('24.02.21.)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 일원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변 산성리 886, 887{문화재구역으로부터 56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23년 6차-조건부가결	'24년 2차-부결	금회 신청안	증△감
건축주	ㅁㅁㅁ	○ ○ ○	○ ○ ○	
용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건축면적/ 연면적	48.6㎡/48.6㎡	117.44㎡/185.78㎡	84.0㎡/134.4㎡	△33.44㎡/ △51.38㎡
층수/높이	지상1층/6.38m	지상2층/8.2m	지상2층/8.5m	2.12m
부지조성	콘크리트 옹벽 (H=0.5m~2m) 38m, 자연석쌓기 (H=0.5m~3m) 43m	콘크리트 옹벽 (H=0.5m~2.5m) 68m	콘크리트 옹벽 (H=0.5m~2.5m) 68m	변경없음

라. 참고사항

(1) 시굴조사결과('23.09.05.)

○ 시굴조사 결과 유구 및 유물 등 매장문화재는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2)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23.07.03./문화재위원 ○○○)

○ 건축 대상지인 886외 1필지는 주변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보다 높은 1층~2층 한식기와 건물들이 연접하고 있어 설계도면과 같이 건축할 경우 문화재와 신청부지 사이의 건물 및 숲에 의해 차단되어 거의 조망되지 않아 문화재에 미치는 경관적 영향은 거의 없음

○ 다만 신축 건물의 지붕재료가 함석 철판지붕으로 설계되어 주변 건물들과 부조화되므로 주변의 한옥 건축의 지붕과 같이 흑색의 전통기와로 변경하여 시공해야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19

19.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주변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4년 3차 위원회('24.03.13.)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72-1번지 외

(3) 신청내용**<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19번지(풍납토성 관리구역(Ⅳ권역))
(문화재구역과 연접/허용기준 미수립)

○ 사업내용 : 공동주택 8동, 상가건물 등 부대시설 3동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17,379.00㎡	사업구역 19,505.00㎡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3,472㎡	지하는 주차시설로 연결
건폐율	19.98%	법정 건폐율 60%
연면적	66,822.93㎡(지상 42,322.38㎡)	
용적률	243.5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0%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법정 250%
규 모	○ 공동주택 : (지상) 6층~29층, (지하) 3층~2층 ○ 부대시설 : 지상 1층	최고높이 92m 이하, 지하 13m 이내
총 세대수	400세대	275세대→400세대

○ 참고자료

- 풍납미성아파트 현황 대비 계획

구 분	현 황	재건축계획	비 고
준공년도	1985.06.17.	-	
대지면적	19,505.0㎡	17,379.00㎡	사업구역 19,505.00㎡
세대수	275세대(4개동)	400세대(8개동)	
용적률	167%	243.53%	
층 수	지하 1층/지상 11층	지하 2~3층/지상 6~29층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타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공동주택 7층이상 서울시 건축위원회 경관심의 대상

-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추진경과

· 1985. 06. : 풍납미성아파트 준공

· 2019. 06. :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발족

· 2021. 03.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

· 2023. 02. :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

· 2023. 06.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송파구 접수

· 2024. 02. : 풍납미성아파트 정비계획 송파구 영향검토(결과 : 영향있음)

※ 앙각 적용 및 지하 매장문화재 유존조사 필요 등

· 2024. 0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신청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4.04.02./문화재위원 ○○○, ○○○, ○○○, ○○○, ○○○, ○○○)

○ 주변과의 일체성 및 조화를 고려한 규모로 조정 필요

- 제시된 계획 규모(최대 29층)은 풍납토성 내 현황(최대 23층 규모)을 고려했을 때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규모(건축높이,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등)를 조정한 대안 제시 필요

○ 사업계획에 매장문화유산에 대한 조치 또는 대응계획 마련 필요

- 풍납미성아파트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 제시 필요
- 아파트 주변 매장문화유산 시·발굴조사 및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사업대상지 내 유존층 추정 높이 자료 제시 필요
- 풍납미성아파트 지하구조물 현황과 주변 매장문화유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장문화유산 잔존 상황을 추정, 매장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 및 대응 방안을 사업계획안에 보완하여 제시 필요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향검토 의견('24.02.08./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풍납토성 사적 지정구역에 근접한 곳으로 최고높이 95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매장문화재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큼

ㅇ 사업지역에 인접한 문화재구역(Ⅰ권역 백제문화공원, Ⅱ권역 서성벽 추정구간) 앙각 적용 및 지하 매장문화재 조사가 필요함

ㅇ 지하구조물이 없는 구간은 매장문화재 유존 가능성이 높음.
서성벽 추정구간(풍납나들목 구역에서 서성벽 확인) 및 백제문화공원(1권역) 앙각 적용 필요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자료보완 후 재심의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20

20. 익산 토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확장에 따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고시 제2024-54호/'24.3.11.)

○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 기간 : 2024. 3. 13.~ 2024. 4. 2.(20일간)
- 결과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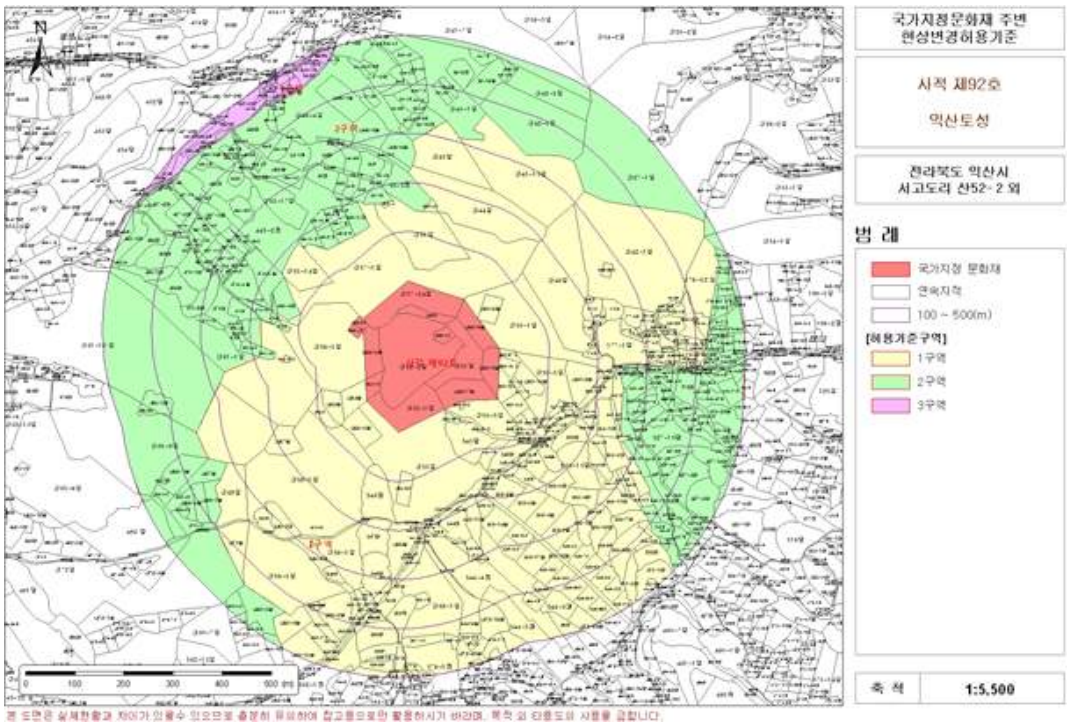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조정내용

-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의 지역을 3개 구역으로 조정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으로 사적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첩되어 통합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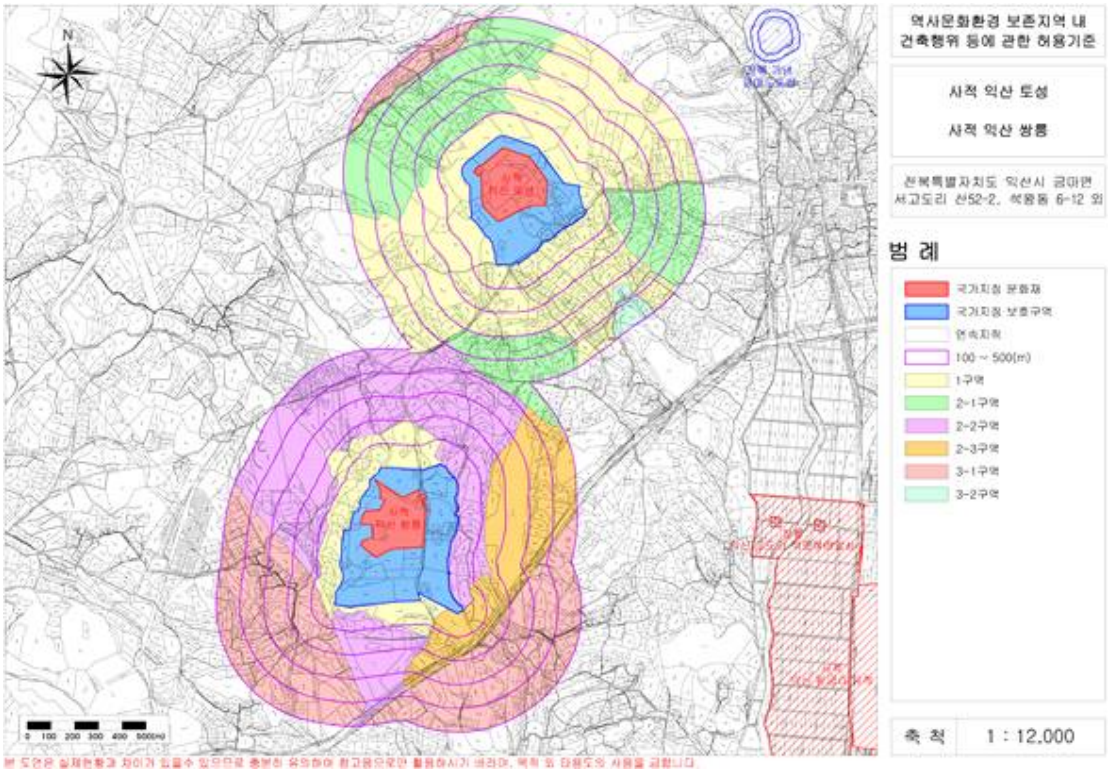
(4)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 임야(지목상 임)는 개별심의 ○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개별심의	○ 임야(지목상 임)는 개별심의 ○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가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과 확장은 개별심의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 허용 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 익산시 제출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개별검토	○ 최고높이 12m 이하
	2-2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3-1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2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3.11.03./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진입 동선의 확보, 오금사지, 마룡지와 이어지는 역사축의 확보, 고도 보존육성지구 지정을 통한 역사경관 조성 차원에서 제안한 보호구역 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단, 허용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기존 허용기준 범위를 준용하고 높이 기준을 제안한 대로 1구역(개별검토), 2구역(평지붕 5m / 경사지붕 7.5m), 3구역(고도육성법), 4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2) 서면검토 의견('24.04.09./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익산 토성의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허용기준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연접한 문화재 허용기준을 통합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허용 기준을 검토한 바, 기존 허용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익산 토성 주변은 개별 검토구역이 강화된 곳이 있어 전반적인 허용기준의 통합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사료됨

○ 또한, 현장과 문화재의 조화를 고려할 때 적절한 허용기준이 작성되었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21

21. 서산 보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사적 「서산 보원사지」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산 보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주민공람('24. 3. 11.~'24. 4. 1.):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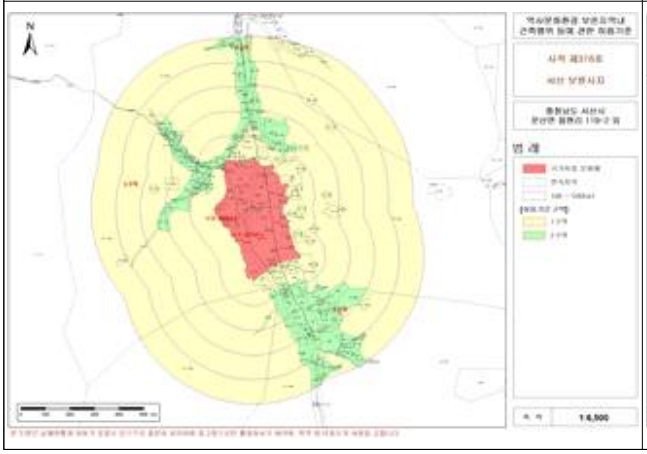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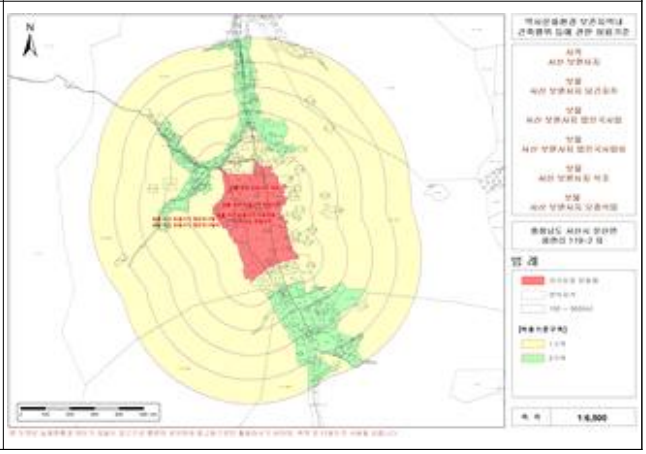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산 보원사지(사적 / 1987.07.18. 지정)

○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번지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허용기준 도면(문화재구역 축소로 도면 일부 변동)

현행	허용기준 신청안
	

○ 허용기준 비교표

구분	현행		구분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좌동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삭제(법령중복)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좌동	

라. 참고사항

(1) 관련부서 검토의견('24.02.26./유형문화재과)

○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조정안은 사적분과 심의결과에 따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22

22. 사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고양 벽제관지」 등 9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양 벽제관지 등 9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및 허용기준 조정 및 보존지역 범위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명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소재지	비고
1	고양 벽제관지 (사적 / 1965.02.02. 지정)	고양시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4-16 일원	
2	시흥 오이도 유적 (사적 / 2022.04.01. 지정)	시흥시장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13-27 일원	
3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 2016.10.24.. 지정)	안성시장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66 일원	
4	고양 행주산성 (사적 / 1963.01.21. 지정)	고양시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번지 일원	
5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사적 / 1999.6.11. 지정)	시흥시장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370-1번지 일원	
6	수원 화성 (사적 / 1963.1.21. 지정)	수원시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7	부산 복천동 고분군 (사적 / 1981.06.09. 지정)	부산시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일원	
8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 2017.06.30. 지정)	부산시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 90-4	
9	부산 동삼동 패총 (사적 / 1979.07.26. 지정) 부산 영도 태종대 (명승 / 2005.11.01. 지정)	부산시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50-4	통합 고시

라. 참고사항

○ 시·도별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구분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서울	100	100	50	50
부산·대구·광주·울산	200	500	200	500
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200	500	200	300
제주	500	500	300	300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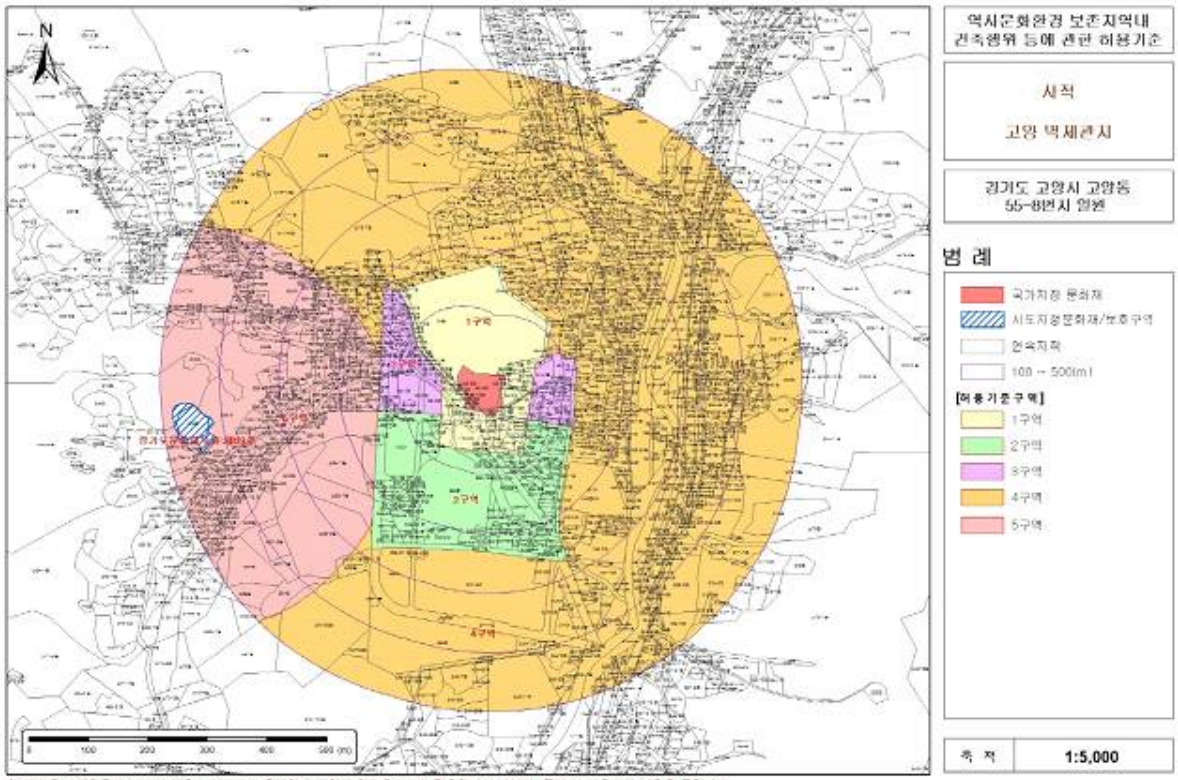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9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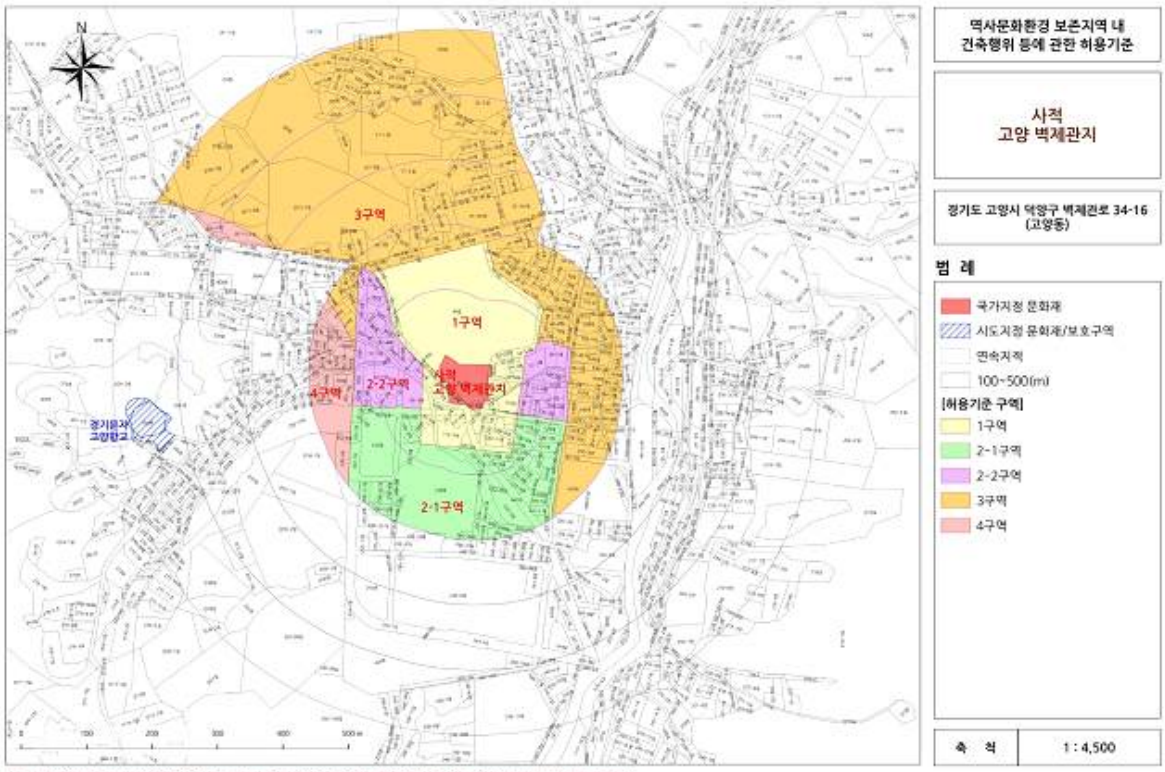
붙임 1) 사적 「고양 벽제관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변경 전)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허용기준 도면(변경 후)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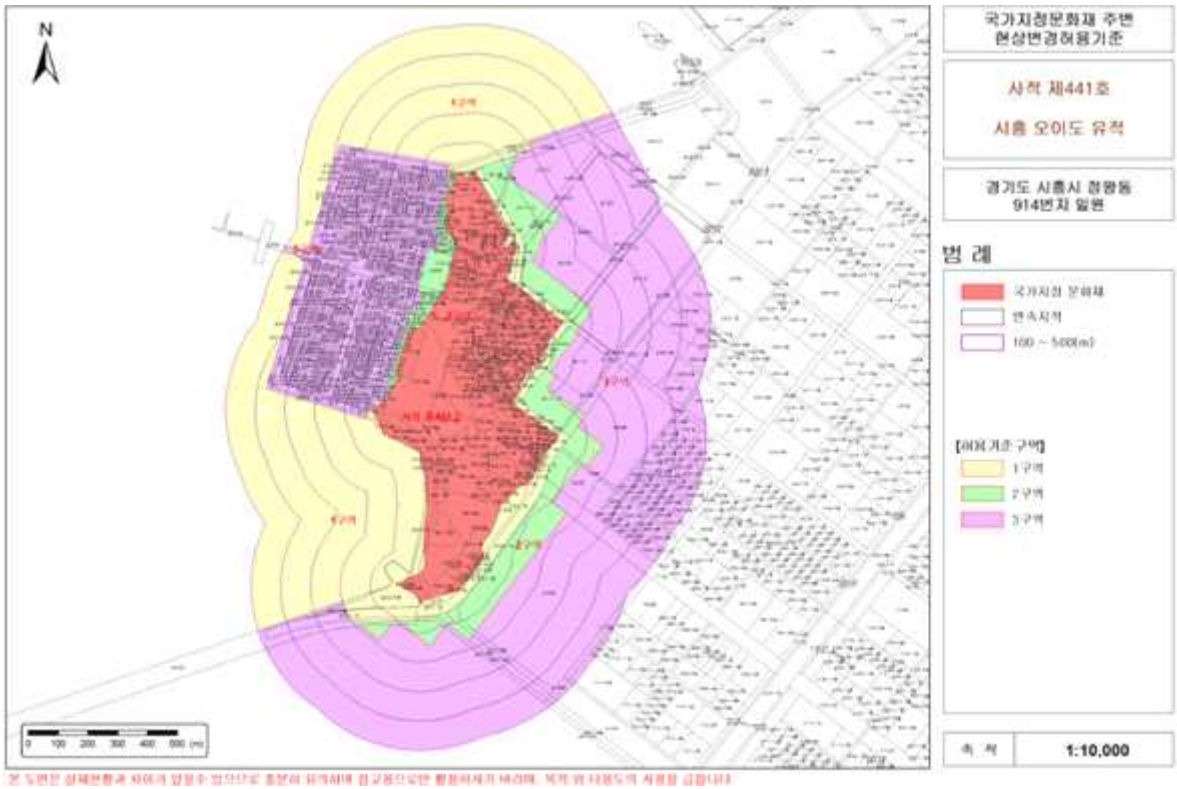
○ 허용기준

구분	기존(2022.2.22.)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1 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이하	
2-2 구역	○ 최고높이 53m 이하		○ 최고높이 53m 이하		
3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문화재(보호)구역 외각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문화재(보호)구역 외각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개별검토 용어수정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심의함.(단 4구역 및 5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4구역에 한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개별검토 용어수정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2) 사적 「시흥 오이도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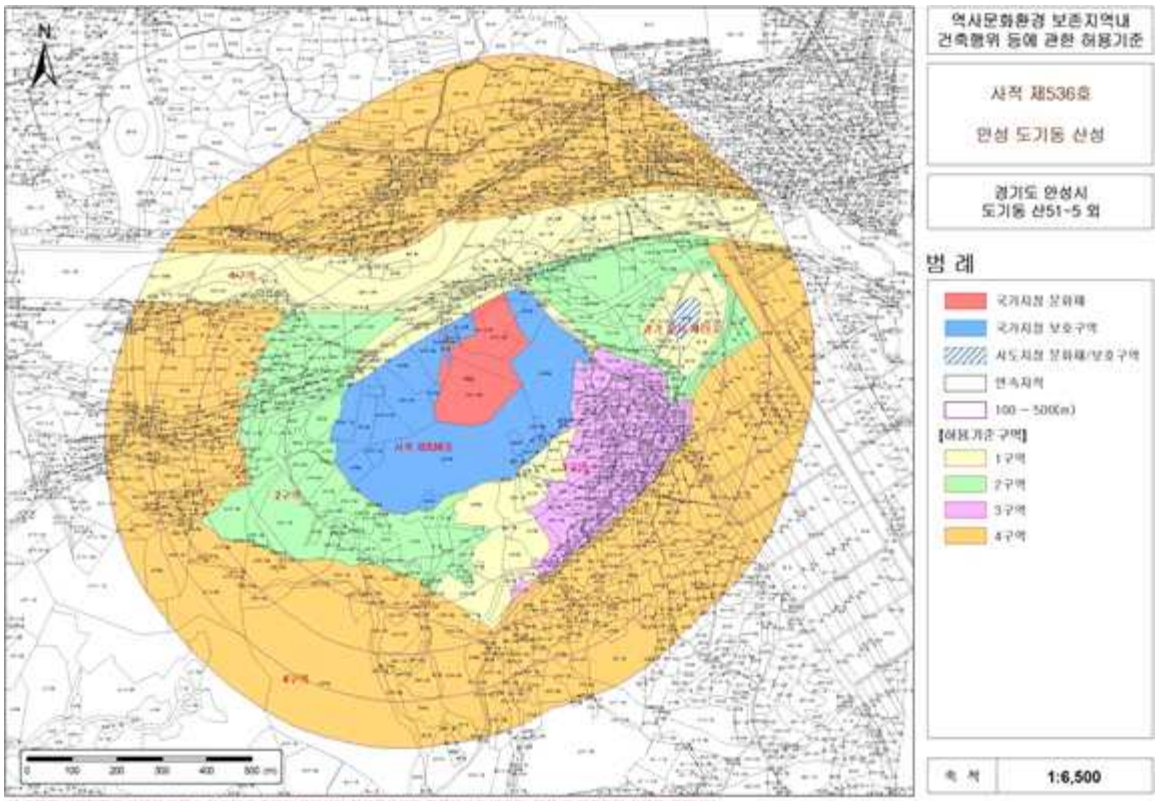
○ 허용기준 도면(변경)

○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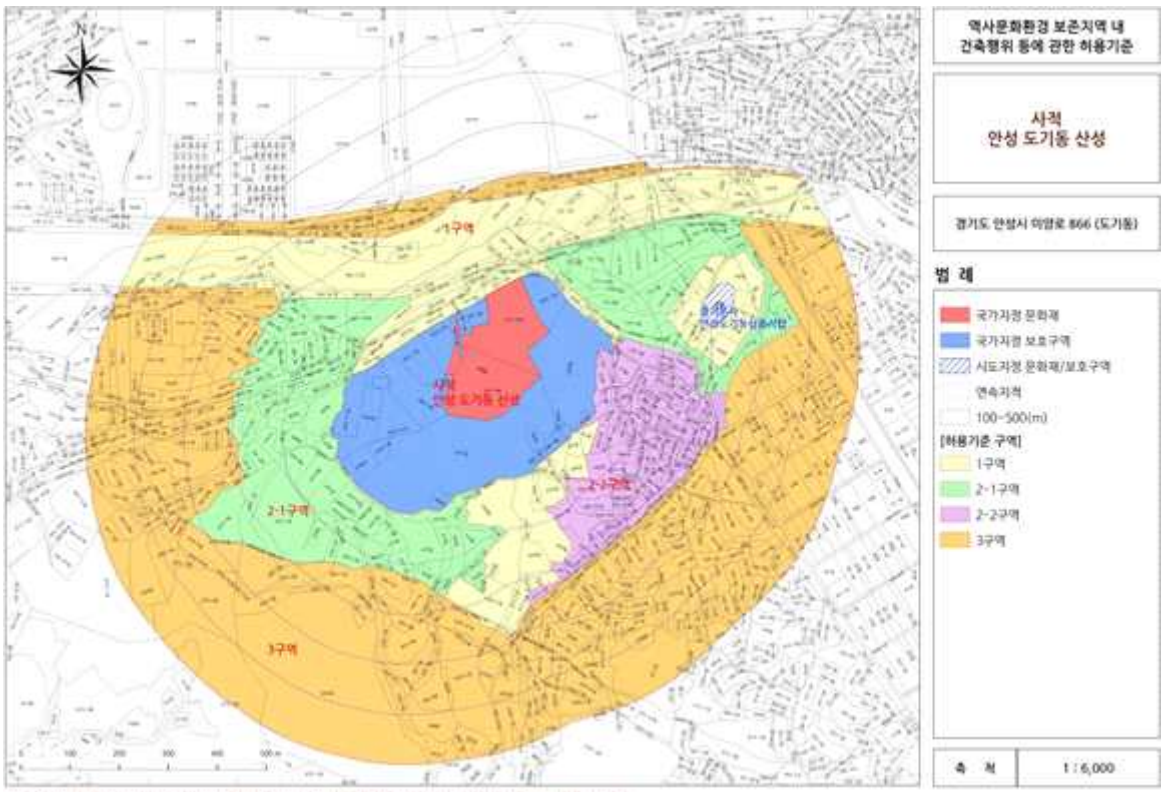
구분	기존(2022.2.22.)		변경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개별검토		개별검토 용어수정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0m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조정
3구역	○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단,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검토)		과도한 높이 영향검토 근거마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지침의 경사지붕 기준 명시
			○ 다음 각 행위의 경우,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필요사항 선택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200m초과 500m이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최고높이 32m이상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3) 사적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현황)



○ 허용기준 도면(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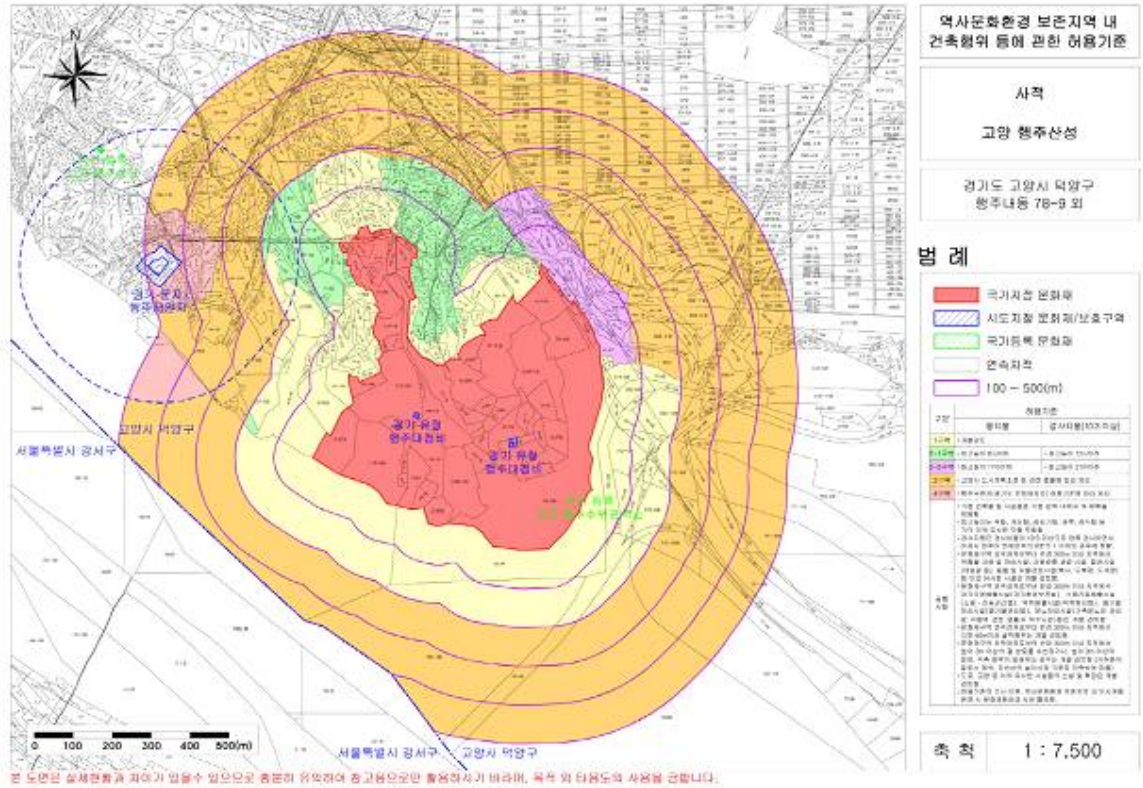


○ 허용기준(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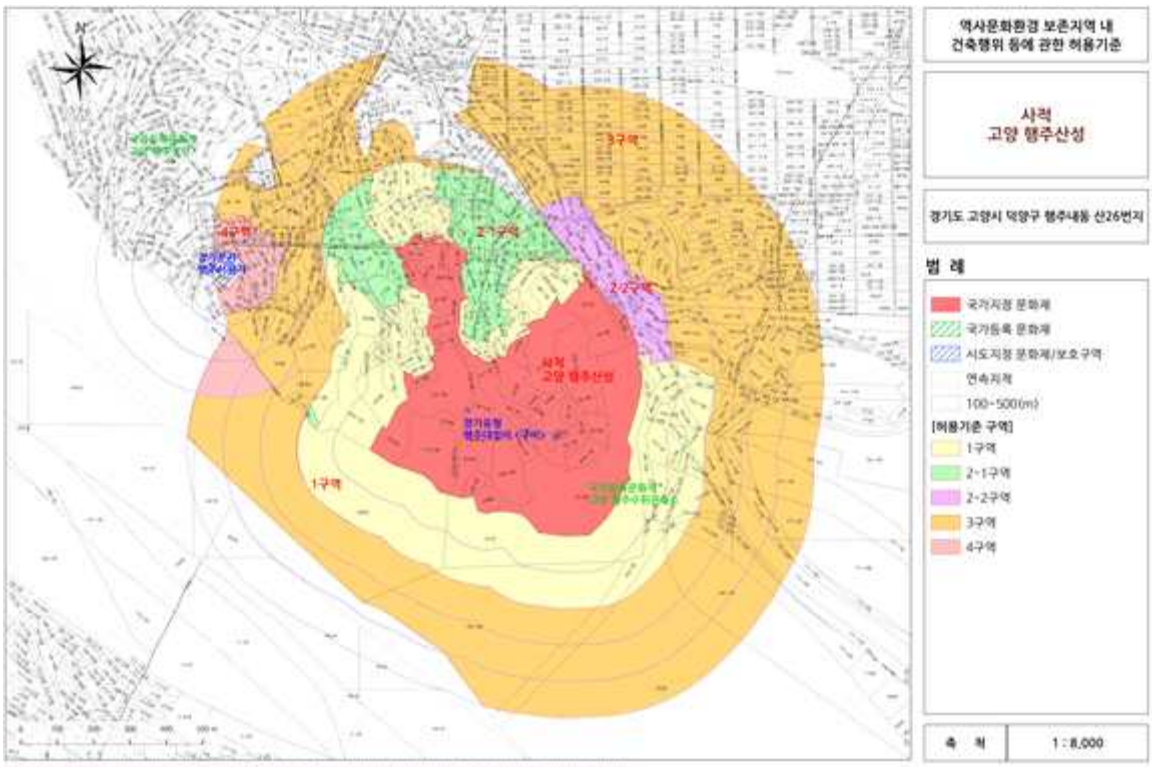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붙임 4) 사적 「고양 행주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현황)



○ 허용기준 도면(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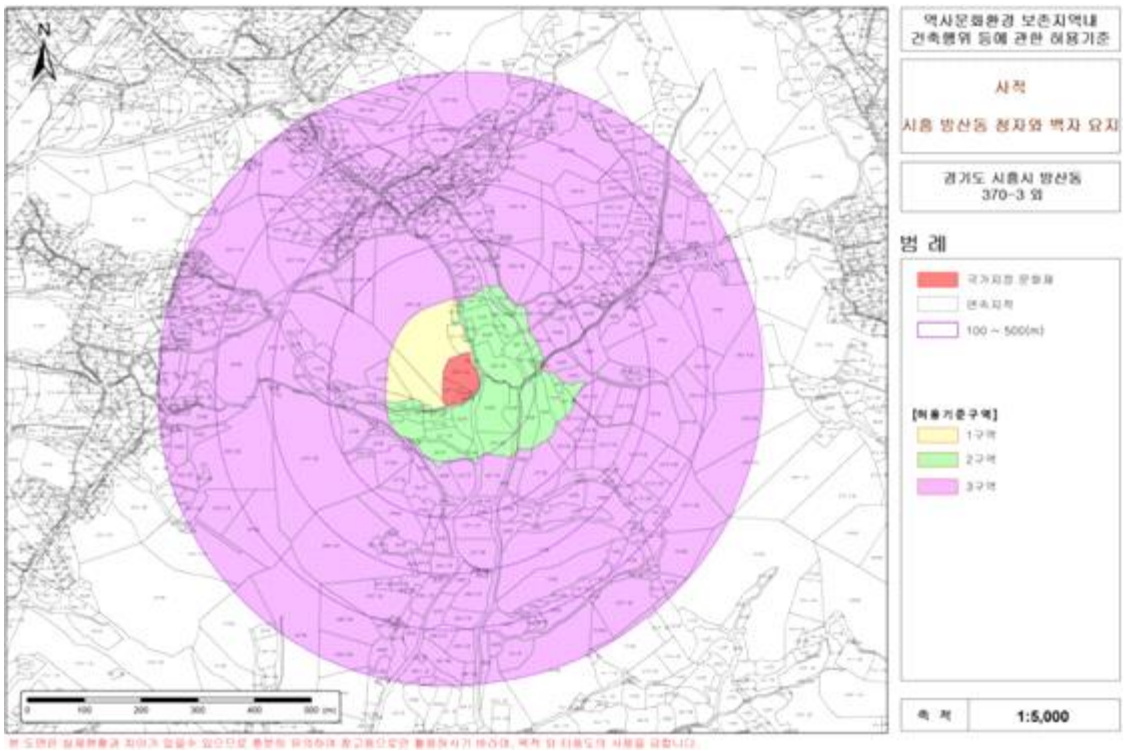


○ 허용기준(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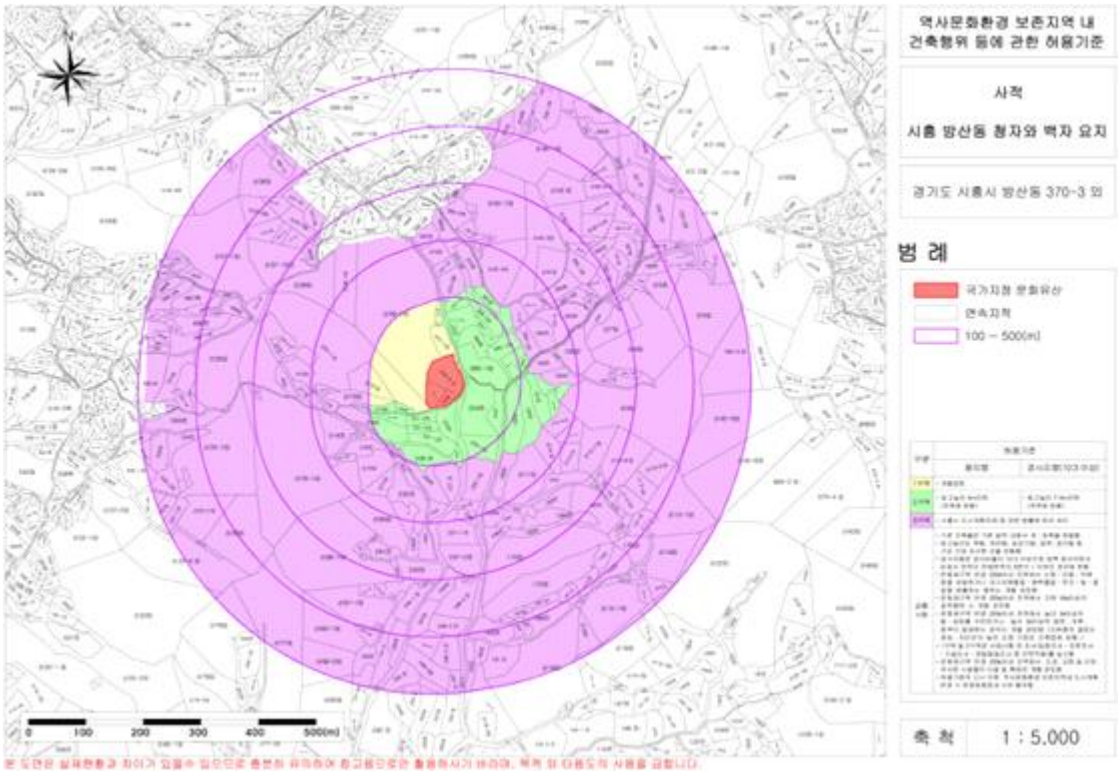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행주서원지(경기도 문화재자료)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재구역 외각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구역 외각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구역 외각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각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5) 사적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현황)



○ 허용기준 도면(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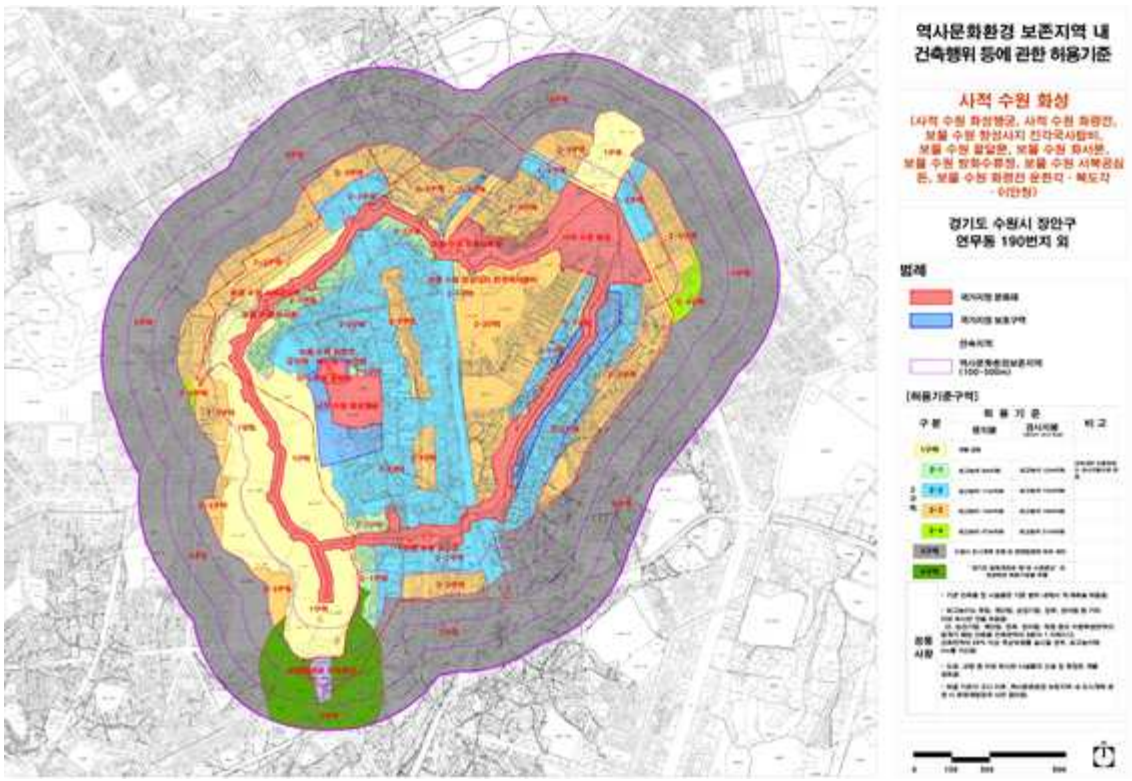


○ 허용기준(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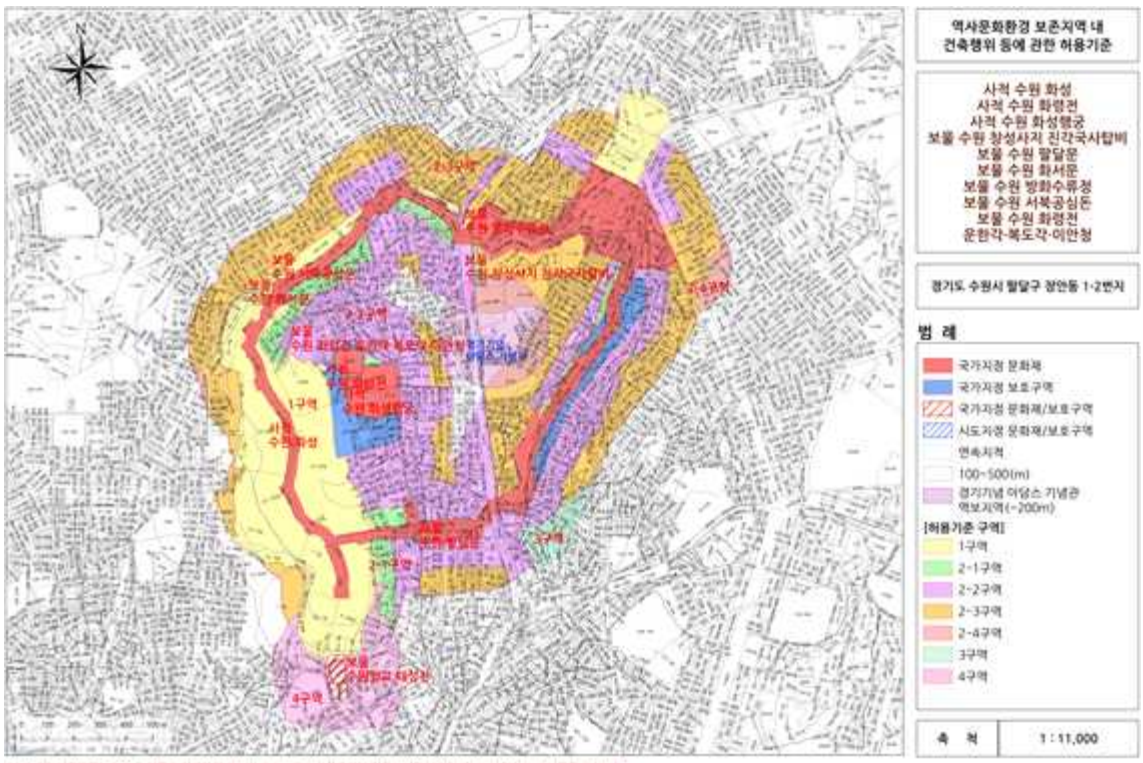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주택에 한함)	○ 최고높이 7.5m 이하 (주택에 한함)	
3구역	○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 ○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검토함. ○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1구역 및 2구역은 사업 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료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문화재구역 반격 200m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6) 사적 「수원 화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현황)



○ 허용기준 도면(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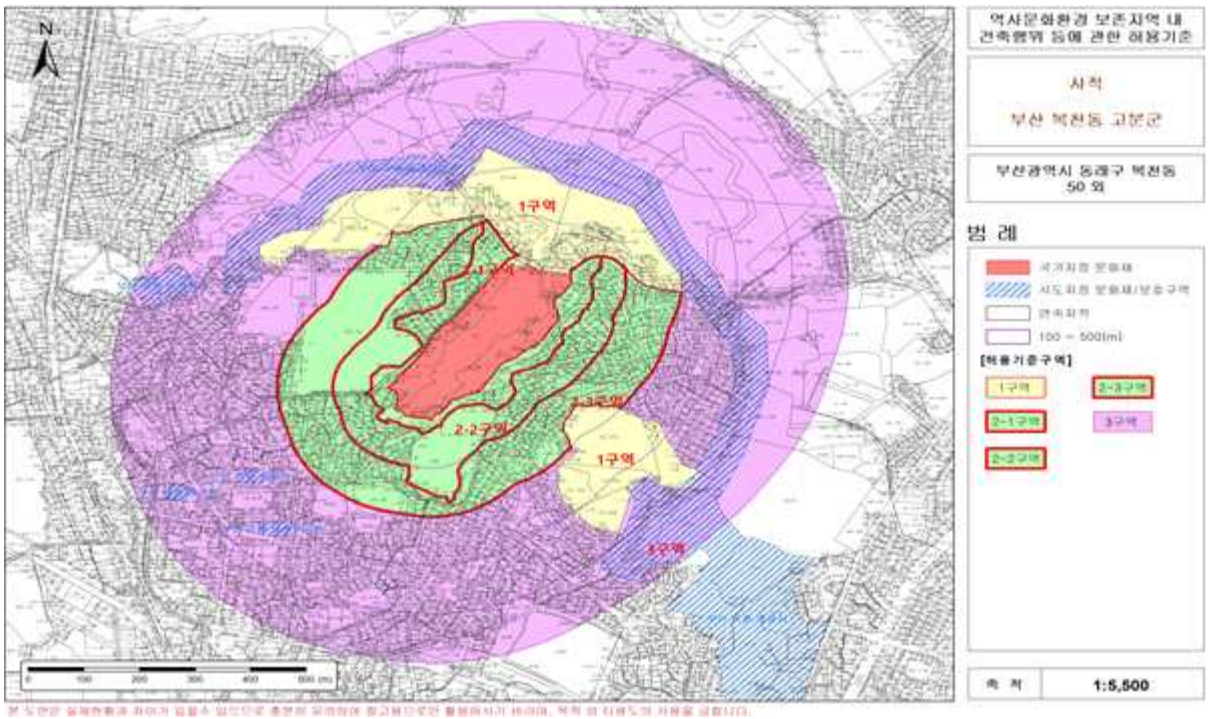


○ 허용기준(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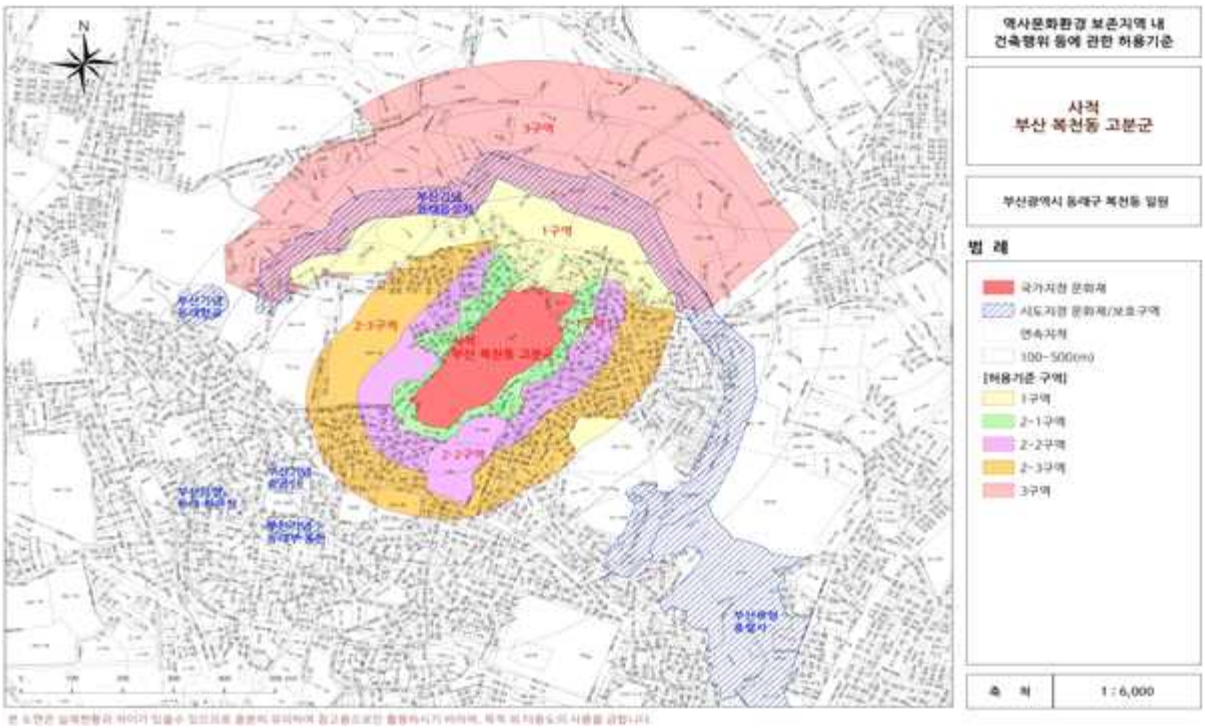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성곽내부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2-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4구역	○ 최고높이 47m	○ 최고높이 51m 이하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경기도 문화재자료 수원향교”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단, 승가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 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7) 사적 「복천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현황)



○ 허용기준 도면(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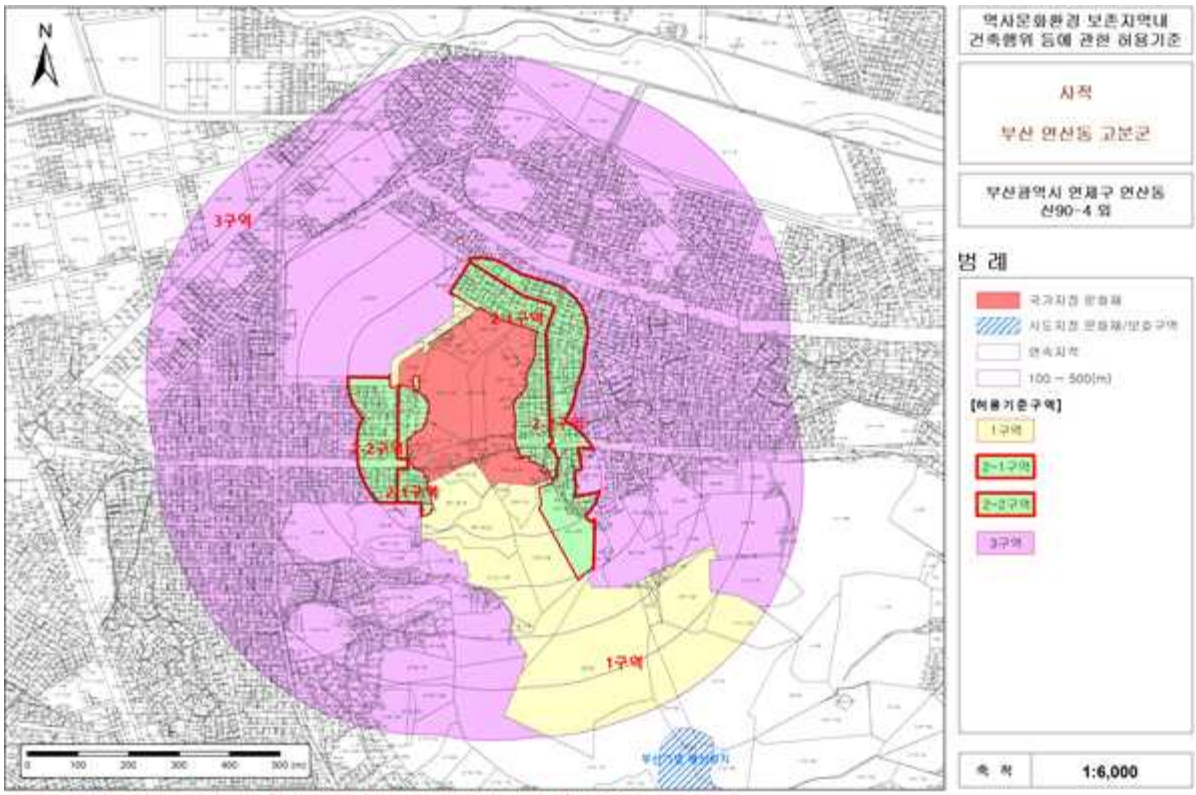


○ 허용기준(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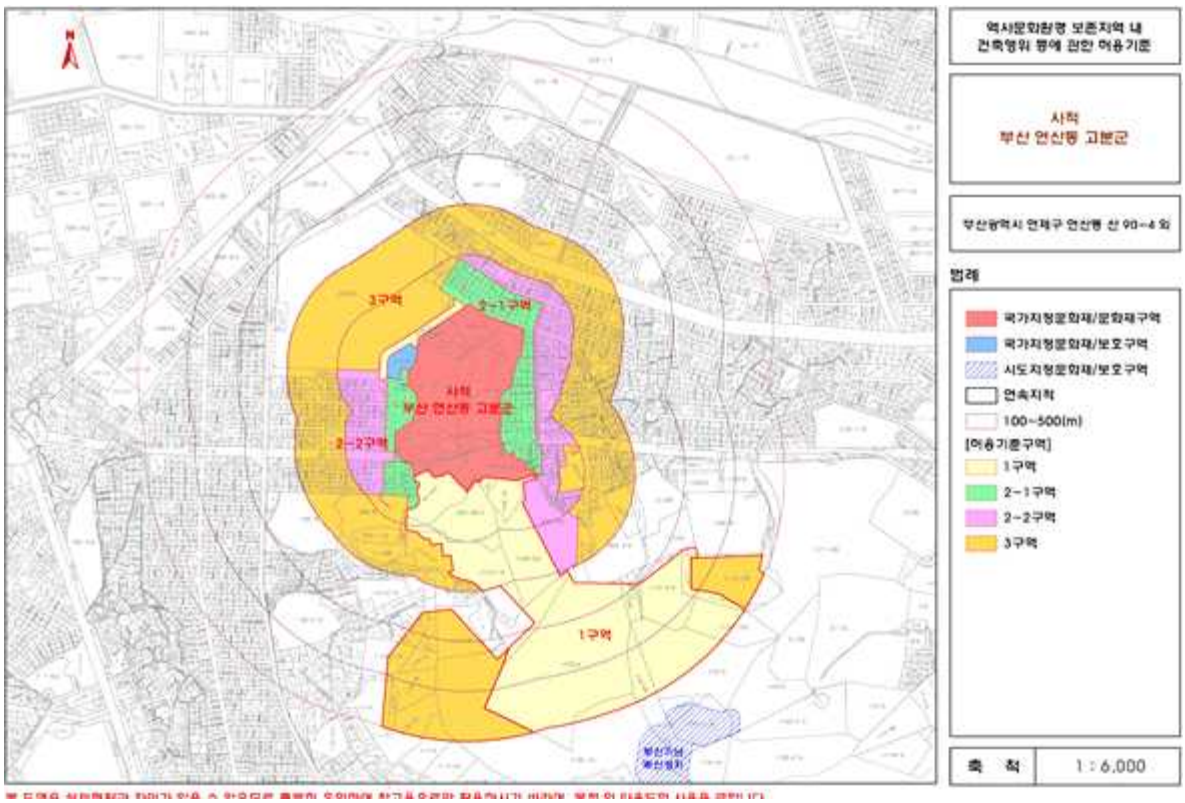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구분</td><td colspan="2">허용기준</td><td rowspan="2">비고</td></tr>
<tr><td>평지붕</td><td>경사지붕(10:3 이상)</td></tr>
<tr><td colspan="2">1구역</td><td colspan="2">○ 개별검토</td><td></td></tr>
<tr><td rowspan="3">2
구
역</td><td>2-1</td><td>○ 최고높이 11m 이하</td><td>○ 최고높이 15m 이하</td><td rowspan="3"></td></tr>
<tr><td>2-2</td><td>○ 최고높이 14m 이하</td><td>○ 최고높이 18m 이하</td></tr>
<tr><td>2-3</td><td colspan="2">○ 건축물 및 시설물의 최고높이가 부산 복천동 고분군 내에 위치한 야외전시관(표고 50m) 높이 이하 유지</td></tr>
<tr><td colspan="2">3구역</td><td colspan="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td><td></td></tr>
<tr><td colspan="2">공통사항</td><td colspan="3">○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td></tr>
</table>

붙임 8) 사적 「연산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현황)



○ 허용기준 도면(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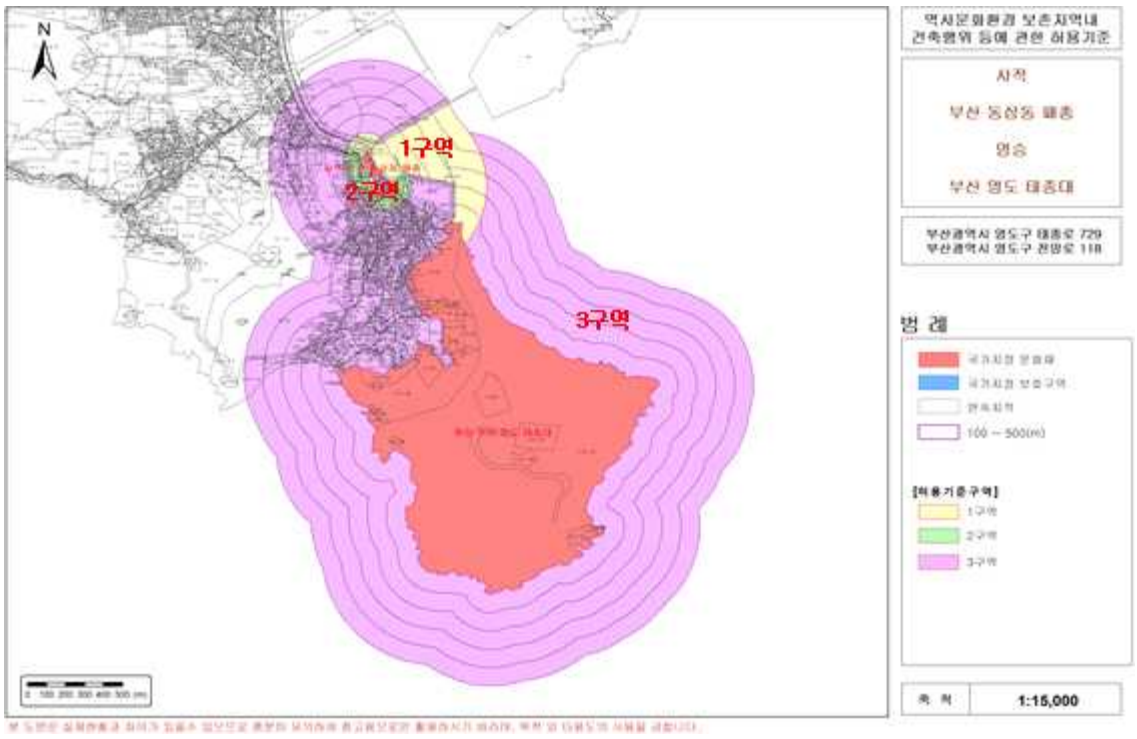


○ 허용기준(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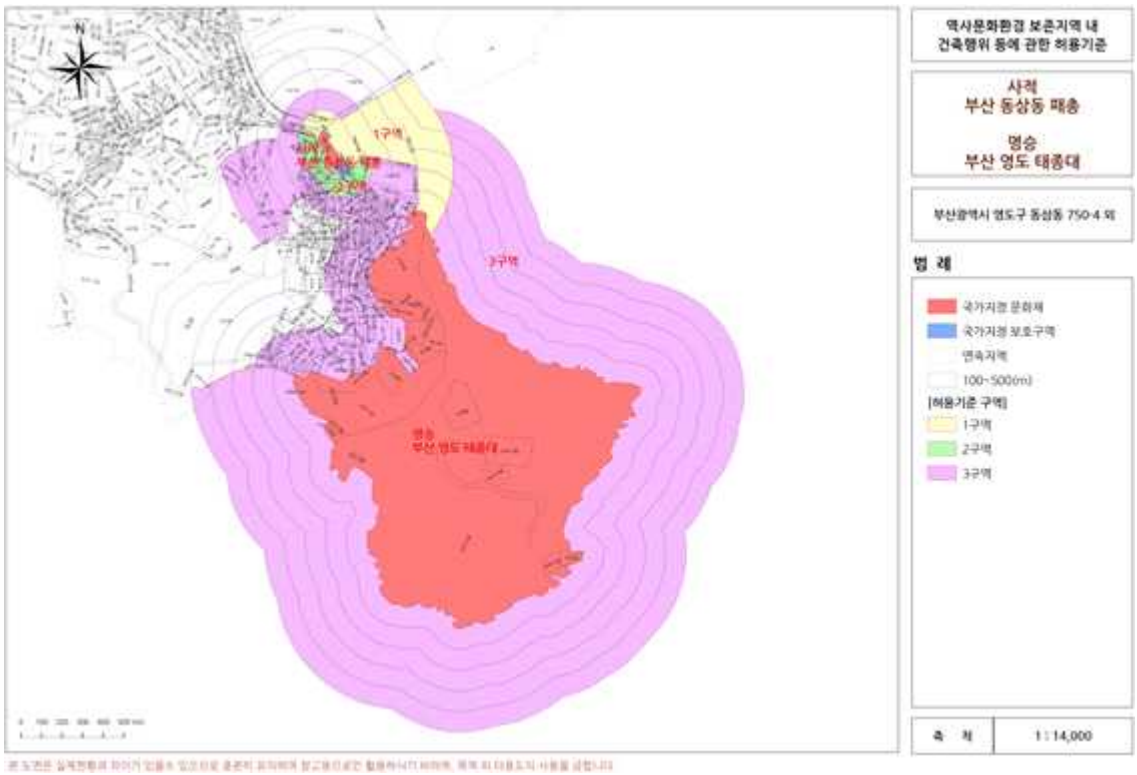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구분</td><td colspan="2">허용기준</td><td rowspan="2">비고</td></tr>
<tr><td>평지붕</td><td>경사지붕(10:3 이상)</td></tr>
<tr><td colspan="2">1구역</td><td colspan="2">○ 개별검토</td><td></td></tr>
<tr><td rowspan="2">2
구
역</td><td>2-1</td><td>○ 최고높이 11m 이하</td><td>○ 최고높이 15m 이하</td><td rowspan="2"></td></tr>
<tr><td>2-2</td><td>○ 최고높이 17m 이하</td><td>○ 최고높이 21m 이하</td></tr>
<tr><td colspan="2">3구역</td><td colspan="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td><td></td></tr>
<tr><td colspan="2">공통사항</td><td colspan="3">○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td></tr>
</table>

붙임 9)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및 명승「부산 영도 태종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현황)



○ 허용기준 도면(변경)



○ 허용기준(변경없음)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에 한하여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4-04-023

1. 합천 성산 토성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합천 성산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기념물 합천 성산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합천 성산 토성(陜川 城山 土城, 경남기념물)

○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175-1번지 일원

(3) 지정범위 : 문화재구역 235필지 118,281㎡(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4) 관리단체(안) : 합천군수

(5) 신청사유

○ 합천 성산 토성은 5~6세기에 축조된 가야시대 성곽으로 토성과 석성으로 이루어진 토석양축성으로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함. 가야 최고지배자의 중심공간으로서 독특한 축성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신라·백제 성곽과의 비교연구 및 주변 여러 가야지역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특별한 사례임

라. 참고사항

(1) 사적 지정 추진경과

○ (2018.10.04.)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118,281㎡)

○ (2019.08.16.) 사적지정 신청서 제출(경상남도→문화재청)

○ (2019.11.28.)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019.12.19.) 보완 요청 / (2022.06.21.) 보완자료 제출

○ (2022.09.16.)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2.14.) 자문회의
○ (2022.12.16.) 보완 요청 / (2023.12.05.) 보완자료 제출

(2) 현지조사의견('19.11.2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성산 토성은 발굴조사 결과 토석양축성으로 토성구간의 축조수법이 신라 성곽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더욱이 인근에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이 위치하고 있어, 고분축조 세력과의 관련성이 주목됨.

○ 주변 환경도 비교적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나, 사적 지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보완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1. 토성구간의 경우, 내·외벽쪽에서 확인된 주혈의 용도나 성격 규명이 부족하고 토층을 통한 수축의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석성구간의 경우도 기단부에 일부 토축의 존재 등이 확인되고 있어, 토축과 석축의 동시 축조 가능성과 토축을 후대에 석성으로 부분 수·개축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토성구간과 석성구간의 경계부 조사를 통해 이를 규명·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성산 토성과 옥전고분군이 다라국 지배층의 핵심공간과 고분군임을 입증하는데 있어 고고학적 성과뿐만 아니라, 문헌사학인 역사학적 연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함.

(3) 현지조사의견('22.12.16./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합천 성산 토성의 역사적 가치

합천 성산 토성은 크게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에 합류하는 황강변의 북안에 형성된 나지막한 독립 구릉(해발고도 약 17~53m)에 축성하였다. 성산 토성이 강안에 바로 붙어 위치하므로 황강을 따라 넓게 펼쳐진 충적지가 한눈에 조망된다. 또한 토성이 위치한 곳은 황강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는 서쪽으로 약 6㎞ 떨어져 낙동강 본류에서 황강을 따라 합천 방면으로 진입하는 초입부로 볼 수 있다. 북쪽으로는 육로를 통 해 고령지역으로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강을 건너 초계 및 적중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여건으로 합천 성산 토성은 현재의 쌍책면 성산리를 중심으로 황강변을 따라 넓게 형성된 충적지 일대를 관할하면서 동시에 낙동강으로 나아가는 - 역으로는 낙동강에서 황강으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합천 성산 토성이 강안에 형성된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하므로 주변 지역과의

해발고도 차이가 크지 않아 방어 측면에서의 입지적 여건은 다소 불리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러한 위치에 축성한 점은 성의 축성 목적에서 자체의 방어적 기능보다는 다른 부분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여지가 크다. 즉 순수 방어적(군사적) 목적보다는 성을 중심으로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행정・경제・문화 등)을 관할하는 이른바 치소(治所)로서의 기능이 우선시된 입지 선택으로 이해된다.

합천 성산 토성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엽에 축성된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핵심공간으로서 토성과 석성의 축성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매장유적인 합천 옥전고분군(사적, 2023년 9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북쪽 약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양 유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합천 성산 토성은 황강변의 독립구릉에 위치하는 둘레 1.1㎞의 가야시기 성곽유적으로서, 남쪽과 동쪽, 북쪽 중앙부까지는 가야시기 석성, 급경사면에 해당하는 북쪽 중앙부~북서쪽은 토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은 자연절벽과 황강을 천연의 성벽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성곽을 축조하였다.

합천 성산 토성은 다라국 지배계층의 묘역인 옥전 고분군과 주변에 분포하는 가야고분들과의 조합, 황강변의 자연경관을 이루는 탁월한 역사문화적 경관을 잘 유지하고 있다.

○ 합천 성산 토성의 학술적 가치

합천 성산 토성은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서쪽은 수직으로 솟은 절벽과 황강이 자연성벽과 해자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과 동쪽·북동쪽으로는 석성, 북쪽 중앙부 및 북서쪽은 토성으로 이루어진 토석양축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서쪽의 토성과 서쪽의 천연단애가 연결되는 지점은 단순성토부로 보고되어 있으며, 남서쪽의 석성과 천연단애 연결지점은 민가 건물로 인해 조사되지 못한 상태이다. 성산 토성의 전체 둘레는 약 1.1㎞로 파악되나 서쪽은 수직으로 솟은 절벽이 자연성벽을 구성하므로 실제적인 축성 공정이 이루어진 범위는 남쪽과 동쪽·북동쪽까지의 석성구간이 약 490m, 북쪽 중앙부와 북서쪽의 토성구간이 약 350m로, 확인되는 성곽 둘레는 약 840m이다.

합천 성산 토성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엽에 축성된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핵심공간으로서 토성과 석성의 축성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토석양축성으로서 토성은 토성 나름대로의 구조와 변화과정, 석성은 석성 나름대로의 구조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학술자료를 보여준다.

왜 토성과 석성으로 구분되어 축성되었는지, 가야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토석양축성이라면 토성과 석성의 연결지점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지 밝혀야 할 것임, 석성 외면 하단에서 확인되는 기조와 지대석의 관계, 석성의 축조 위치가 특별한 이유를 가지는지, 아직 가야성곽에서 정확한 출입시설(문지)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타 가야의 왕성에서처럼 주변에 대피성(산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 토성의 수차례 수축과정을 거치는 동안 석성의 변화상은 무엇인지, 토성에서 석성으로의 개축 여부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합천 성산 토성에 대해 사적 지정은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가 발굴조사 등으로 의문점을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합천 성산 토성은 지리적으로 낙동강과 황강이 연결되고, 내륙으로 경북 고령(대가야)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물자유통관리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고대 다라국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합천 성산 토성은 다라국의 수장층의 무덤유적인 합천 옥전고분군과 인접하고 있어 양 유적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아울러 현재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합천 성산 토성은 가야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토석 양축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에 의한 현재의 조사내용은 다소 억측이 있다고 본다. 현재 사적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보다는 사적 지정 범위 확대(혹은 보호구역 지정)와 더불어 추가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다소 미비한 점들을 해소한 후 국가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4) 보완요청 의견('22.12.16.)

○ 지정가치를 서술함에 있어, 다라국의 중심 세력 고분군이라 할 수 있는 옥전 고분군과 성산 토성 세력과의 연관성, 시대적 연관성, 출토유물의 연관성 등 이미 검증된 유적과의 연관성을 검토 할 것.

○ 성산 토성의 명확한 축조방법과 특성 등을 정리하고 비교 할 것.

○ 추정 토성 또는 석성의 축조시기와 옥전 고분군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편년 분석을 할 것(시료, 유물 등)

(5)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

(문화재위원 ○○○)

합천 성산 토성은 2023년 9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 중 하나인 합천 옥전고분군과 바로 연접하여 위치하는 황강변의 독립구릉에 위치하는 둘레 1.1㎞의 가야시기 성곽유적으로서, 남쪽과 동쪽, 북쪽 중앙부까지는

가야시기 석성, 급경사면에 해당하는 북쪽 중앙부~북서쪽은 토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은 자연절벽과 황강을 천연의 성벽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곽을 축조하였다.

합천 성산 토성은 『양직공도』 및 『일본서기』에 기록된 다라국(多羅國) 최고 지배층의 중심공간을 보여주는 실체적 유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성산 토성은 그간의 학술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 대벽건물지, 제사유구, 출토유물 등을 통해, 북쪽에 인접하여 조성된 합천옥전고분군 (사적 제326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합천 성산 토성에 대한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토성에서 출토된 유물, 석성의 축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석성 기저부 및 내탁부 뒤채움 층에서 5세기 후엽 ~ 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유물이 공통적으로 확인,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보이는 다라국 정치체의 존속시기와 유사하며, 다라국의 최전성기에 성(城)이 출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가야지역에서 확인된 유일의 토석양축성, 토성과 석성의 각종 축조기법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합천 성산 토성의 사적 지정 가치를 설명하면서 독특한 토석양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토성과 석성의 연결지점에 대한 구체적 축조방식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왜 그러한 축조방식이 달리 조성되었는지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입지 등). 아울러 연결지점은 토성과 석성이 일정한 공간(문지)을 두고 분리 축조된 것인지, 직접 연결된 것인지를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가야의 독특한 석축성곽의 특징으로 기조[1]와 지대석[2]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조사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합천 성산 토성을 사적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지대석을 가야의 것(가야 출현)으로 인정하게 되어 축성사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기조 역시 토성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석성부분에서만 확인되어 기존 연구와는 불합리성을 보여주게 된다.

토성에서는 많은 수축을 보이는 반면, 석성에서는 수축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토성에서 석성으로의 개축이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본다. 동 시기 축성이라면 토성에서의 잦은 수축이 부담스러워 석성으

---

1) 기조(基槽)란 토성을 쌓을 때 성벽이 밀려나지 않토록 하기 위하여 성의 길이방향을 따라가며 바닥에 파놓은 구유 모양의 도랑[溝]이다. 중국에서는 앙소문화기(仰韶文化期)에 속하는 서산유적(西山遺蹟)에서부터 등장하여 한대(漢代)의 성에도 계속 사용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풍납토성과 부소산성, 화성 소근산성 등 백제토성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편)』

2) 지대석(地臺石)이란 성벽이나 건물지 기저부에 지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성벽의 제일 하단부에 놓은 석재로, 지대석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대석 받침을 깔아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편)』 현재까지 성곽에서의 지대석은 통일신라시대에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의 개축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한다.
합천 성산 토성을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입시설인 문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몇 개소로 구성되었는가, 그 문지를 확인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야성곽의 문지 구조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라국의 왕성이라면 타 가야처럼 주변에 대피산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확인되고 있는가.
교역국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면 교역장소는 어디인가.(고환경 복원 등)
내부에서 삼한시대의 주거지가 조사된 경우가 있어 성 내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적의 지정 범위도 현재의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범위로 할 것이 아니라 동쪽의 도로변까지 포함하는 확대안(혹은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차후 정비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합천 성산 토성의 사적 지정 가치를 설명하면서 독특한 토석양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하다면 현재의 문화재 명칭인 합천 성산 토성 역시 정확한 유적 명칭으로 보이지 않는다(현재 석성이 토성보다 약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함, 성산 토성은 석성이 전체 약 58% 비율 차지). 이에 대한 정확한 명칭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합천 성산 토성의 사적 지정은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보다는 합천 성산 토성의 온전한 성격 규명과 이에 따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학술조사에 더하여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야시기 왕성(도성), 산성 등 전체 성곽유적의 전형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의 여러 성곽 유적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적 내 문지, 주거생활공간, 수공품 제작생산지, 도로, 식수원 등 다양한 지배층의 핵심공간을 구성하는 유구들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찾기 위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합천 성산 토성 전체 구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 이후 사적 지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유적정비를 통한 자원화로 합천 옥전고분군과 더불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위원 ○○○)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성곽의 전체 면적과 평면형태(방형)가 명확하게 확인된 가야 성곽
○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토축, 석축을 적절하게 적용한 기술과 황강의 단애면을 활용한 모습이 특징적임.
○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가야 유물만 확인되어 5~6세기 전반에만 사용된 가야의 관방유적으로서 가야 성곽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
○ 성산 토성의 체성과 옥전고분군의 봉분 조성에 점토와 돌을 섞어 쌓아 올린 토목기술의 공유
○ 원삼국시대부터 가야 멸망에 이르기까지 황강 유역의 거점 세력의 성장과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적.

*** 종합의견**

○ 합천 성산 토성은 확실한 가야기에 축성, 사용된 성곽으로서 전체 규모와 평면형태, 축성기술 등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인접한 합천 옥전고분군과 함께 중국 양나라 『梁職貢圖』에 나온 다라국 지배세력의 성장, 발전, 퇴보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사적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석성구간과 토성구간의 결절점에 대한 조사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2명 / 제척 1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2.9.16 (금)	대상 문화재	합천 성산토성(陜川 城山土城)	
조 사 자		**성 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고고학	○○대학교	교수
		○○○	고고학	○○○○문화재연구소	전 소장
		○○○	건축사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주요지정사항검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합천 성산토성(陜川 城山土城)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 보호구역 >			
보호관리사항검토	⑦문화재 보존영향 행위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제출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청장 귀하

합천 성산토성(陜川 城山土城)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2.09.16(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사적

합천 성산토성 (도 기념물 293호/2018.10.4.지정)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신청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합천 성산토성(陜川 城山土城)**으로 신청되었으며, 현 합천 성산 토성은 발굴조사 결과, 토성과 석성의 혼합으로 토성이란 명칭은 문화재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별도의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성산토성은 황강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활용할 수 있는 내륙 수운의 관문으로서, 수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나루터 일원의 평탄지에서 축성이 시작되어 주변의 구릉을 둘러싸는 평산성의 입지를 지닌다. 성곽의 방어력 강화보다 공간 운영에 중점을 두어 낮은 독립 구릉에 평산성으로 축조된 성곽의 입지는 가야 지배층 중심지 배공간이 지닌 특징이다.

○ 합천 옥전 고분군 최초의 왕묘인 M23호의 출토유물 및 묘제 등을 통해, 옥전 고분군은 5세기 초 광개토대왕 남정 이후 와해 된 김해세력 중 일부가 낙동강 및 황강수계를 거슬러 올라와 금관가야의 선진문물을 바탕으로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조영제 2013), 더불어 합천 옥전 고분군 99호에서 출토된 배 모양 토기를 통해서도 수계를 활용한 옥전 고분군 축조세력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성산토성은 수계를 활용한 교역 및 물자수송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남서쪽 평탄지의 나루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남서쪽 일원의 평탄지를 포함하는 평산성의 형태로 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 성산토성의 서쪽은 황강 변과 접한 높이 20m 내외의 수직 절벽을 천연성벽으로 그대로 활용하였는데, 수직 절벽의 체고가 낮아지는 지점에서부터 동쪽 구릉으로 선형이 이어지는 남쪽 체성부의 축성이 시작된다. 남서쪽 체성부가 조성된 지점은 1988년 합천댐 준공 이전에도 홍수범람의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안정적인 지형에 해당한다. 성산토성 서쪽의 수직 절벽은 체고가 낮아지지만, 남쪽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사행하는 황강의 공격사면에 해당하여 깊은 수심이 확보되는 낮은 수직 절벽에 맞닿아 성산나루터가 조성되어 있다. 성산나루터는 성산토성의 남서쪽 체성부로부터 약 25m 떨어져 위치하며 일제강점기에는 낙동강 수계를 활용하여 합천지역에서 공출된 물자를 김해 및 부산방면으로 이송하기 위한 집하지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에서 합천 방면으로 소금을 싣고 왕래한 나룻배의 기착지로 이용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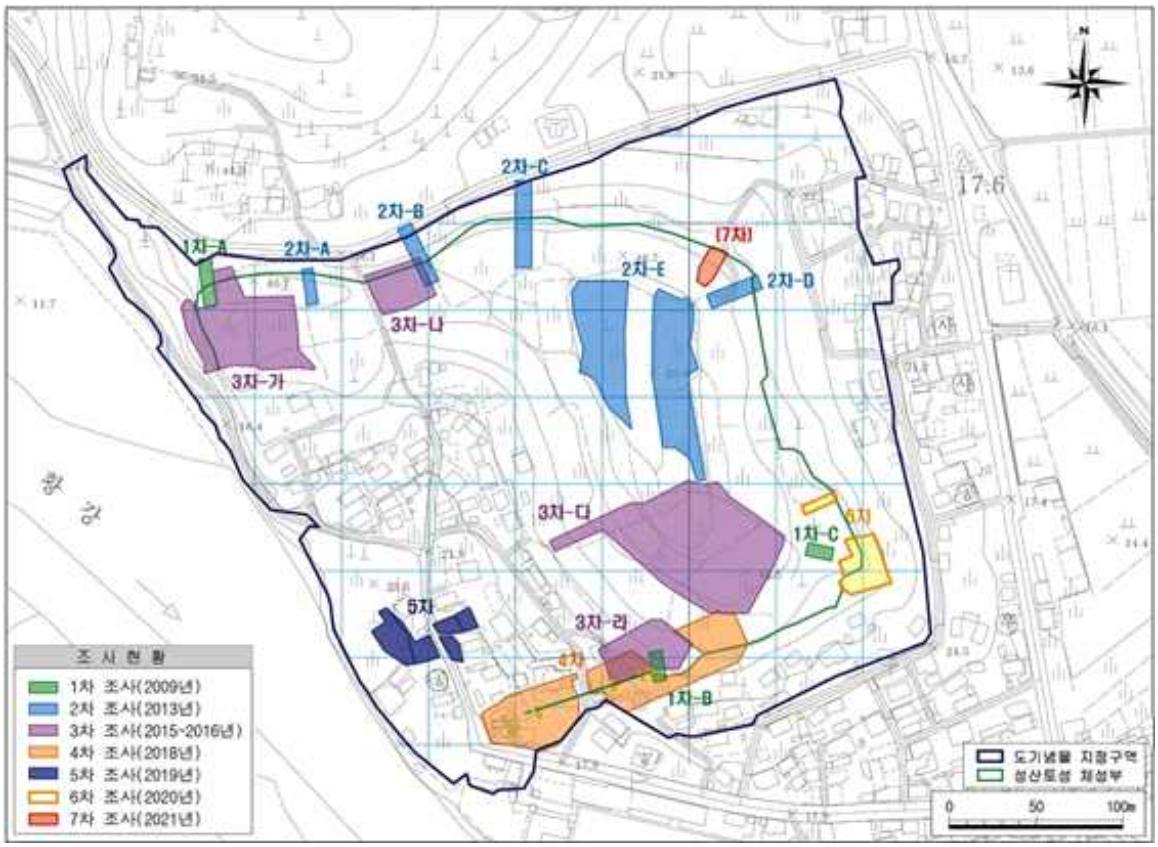
ㅇ **발굴조사**
- 2009년 : 합천 성산토성지 발굴조사(1차)
- 2013년 : 합천 성산토성 발굴조사(2차)
- 2015~2016년 : 합천 성산토성 발굴조사(3차)
- 2018년 11~12월: 시굴조사(4차)
- 2019년 02~03월: 추가시굴조사(5차)
- 2020년 05~10월: 발굴조사(6차)
- 2021년 02~05월: 발굴조사(7차)

4. 연혁 유래 및 특징

ㅇ 합천 성산토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총 7차례의 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2009년 1월~3월 시굴조사, 2차는 2013년 1월~4월 발굴조사, 3차는 2015년 6월~2016년 3월 발굴조사, 4차는 2018년 11월~12월, 5차는 2019년 2월~3월에 추가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6차는 2020년 5월~10월, 7차는 2021년 2월~5월까지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간 시·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수혈주거지, 구상유구, 수혈유구, 가야시대 토성과 석성의 체성부, 대벽건물지, 제사유구, 석열, 수혈주거지, 구상유구, 수혈유구, 주혈군, 조선시대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합천 성산토성에 대한 그간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

▶ 합천 성산토성의 조사현황

연번	조사기간	면적	조사내용	보고서명	조사기관
1차	2009.1.5 ~2009.3.19	13,327㎡	북서쪽 토성과 남쪽 석성조사 - 북서쪽 토성, 남쪽 석성, 생활유적-원삼국시대 주거지	「陜川 城山里 城址」, 2011	동서문물연구원·경상대학교박물관
2차	2013.1.14 ~2013.4.11	8,431㎡	북쪽 성벽과 토성 내부조사 - 북쪽 성벽 4개 지점, 대벽건물지, 구상유구, 수혈유구 등	「陜川 城山里 城址」 -합천 성산토성 발굴조사, 2015	동서문물연구원
3차	2015.6.15. ~2016.3.23	10,445㎡	가~라구역 토성 축조양상 및 주변부 시설, 성의 범위 - 가~라구역. 토성벽과 목책, 제사유구, 대벽건물지, 추정보도시설	「합천 성산토성 발굴조사(3차) 약보고서」, 2016	동서문물연구원
4차	2018.11.5. ~2018.12.24	4,090㎡	성산토성 남쪽 체성부 미확인구간에서 석성 70m 확인 - 체성부(석축성벽)	「합천 성산토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201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5차	2019.2.18. ~2019.3.9	934㎡	성산토성 남쪽 가야시기 주거지군 확인 - 주거지, 구상유구 등	「합천 성산토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문화재 추가 시굴조사 약보고서」, 201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6차	2020.5.29.~ 2020.10.15	시굴 658㎡ 발굴 130㎡	성산토성 동남쪽 회절지 일원 체성부 조사 - 동남쪽 체성부의 범위 및 석성 축조기법 확인	「합천 성산토성 추정 동문지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0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7차	2021.2.3.~ 2021.5.17	시굴 60㎡ 발굴 150㎡	성산토성 북동쪽 회절지 일원 체성부 조사 - 체성부의 성격 및 석성 축조기법 확인	「합천 성산토성 571번지 일원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1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의 실체

○ 성산토성은 내륙지역 가야의 중심고분군인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의 남쪽에 연접하여 조성된 가야시기 성곽유적이다. 성산토성은 그간의 학술조사를 통해 가야시기 축성기법이 적용된 토석양축의 독특한 체성부, 내부에 조성된 특수 용도의 대벽건물지 6동 및 구상시설, 기마인물형 토우가 출토되는 제사유구, 성벽 축조시 행해진 곡물공헌, 체성부 및 성내 시설에서 옥전 고분군 축조 시기인 가야시기 유물만이 출토되는 양상 등, 합천 옥전 고분군 축조세력과 성산토성의 축조 및 운영이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성곽임이 확인되었다.

○ 특히 성산토성 축조세력의 묘역인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 유리잔(M1호), 출자형 금동관(M6호), 은제관(M6호), 4점의 용봉문환두대도와 금동장식 투구(M3호), 갑주 및 말투구, 금제이식(M48·68호)등은 내륙 가야의 유력 정치체로서 합천 옥전 고분군이 지닌 위계 및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합천 옥전 고분군 축조세력은 황강과 낙동강 수계를 활용한 교류를 통해 성장 및 발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처럼 황강수계를 활용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는 성산토성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연접하여 지배층의 묘역인 합천 옥전 고분군이 위치하며, 동쪽~북쪽으로 인접하여 하위계층의 중소형 고분군인 다라리고분군, 모리고분군, 오서리고분군, 상포리고분군, 죽고리고분군이 성산토성을 집중적으로 둘러싸며 분포하고 있어 성산토성이 지닌 공간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문헌에서 확인되는 다라국의 실체

- 성산토성은 양직공도 및 일본서기 고문헌에 기록된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을 보여주는 실체적 유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성산토성은 그간의 학술 발굴조사에 확인된 성벽·대벽건물지·제사유구·출토유물 등을 통해, 유적 북쪽에 인접하여 조성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옥전 고분군은 출토유물과 고분군의 규모 및 구조 등을 통해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묘역으로 파악되는 유적으로, 이와 함께 다수의 하위고분군이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을 둘러싸며 집중적으로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 성산토성은 황강 및 낙동강 수계를 활용할 수 있는 수륙교통의 요충지로서 일제강점기에는 낙동강 수계를 활용하여 합천지역에서 공출된 물자를 김해 및 부산방면으로 이송하기 위한 집하지로 사용되었으며,[1] 근래에 이르기 까지 낙동강에서 합천 방면으로 소금을 싣고 왕래한 나룻배의 기착지로 이용된 곳이다. 특히 옥전 고분군의 출토유물 분석을 통해, 다라국의 정치체가 5세기 초 광개토대왕의 남정 이후 와해된 김해세력 중 일부가 낙동강 및 황강수계를 따라 올라와 금관가야의 선진문물을 배경으로 다라국을 세운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조영제 2013).
- 성산토성 일대에서 다라리(多羅里)라는 지명이 확인되는 점,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성곽의 규모, 가야토기만이 확인되는 유물 출토양상, 주변 고분군의 분포양상, 다라국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륙교통의 요충지라는 입지적 특징은 성산토성 일대가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핵심지역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고문헌에서 확인되는 다라국의 실체

내 용 출 처	국 명	관직명	이 름	시 기
『梁職貢圖』	多羅	-	-	526~536년

- 다라국은 526~536년경에 제작된 『양직공도(梁職貢圖)』 백제국사조에,
  「旁小國 有叛波, 卓, 多羅, 前羅, 斯羅, 止迷, 麻連, 上己文, 下枕羅等 附之」
  "주위에 소국은 반파, 탁, 다라(多羅),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기문, 하침라 등이 있는데, 백제를 따른다."
  라고 기록되어 역사적 실체가 명확하게 확인되며, 다라국이 백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성산토성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6동의 대벽건물지는 주로 백제지역에서 확인되는 특수시설물로, 고문헌에서 확인되는 다라국과 백제와의 관련성 및 역사기록의 실체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 특히 옥전 고분군 주변으로 성산토성 외, 가야시대 성곽유적이 존재하지 않고 성곽의 규모 및 구조, 특수시설물에 해당하는 대벽건물지의 존재, 성곽의 입지적 특

1) 합천 성산리 느티나무-문화재청 인트라넷 시스템 참조(http://intranet.gis-heritage.go.kr)

징이 가야시대 최고지배층의 핵심공간으로 비정되는 함안 가야리유적·김해 봉황토성·고령 전대가야궁성지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산토성은 옥전 고분군과 하나의 세트를 이루며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으로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성산토성은 다라국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다라국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유적으로서 그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입지

- 성산토성은 황강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활용할 수 있는 내륙 수운의 관문으로서, 수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나루터 일원의 평탄지에서 축성이 시작되어 주변의 구릉을 둘러싸는 평산성의 입지를 지닌다. 성곽의 방어력 강화보다 공간 운영에 중점을 두어 낮은 독립 구릉에 평산성으로 축조된 성곽의 입지는 가야 지배층 중심지배공간이 지닌 특징이다.
- 합천 옥전 고분군 최초의 왕묘인 M23호의 출토유물 및 묘제 등을 통해, 옥전 고분군은 5세기 초 광개토대왕 남정 이후 와해 된 김해세력 중 일부가 낙동강 및 황강수계를 거슬러 올라와 금관가야의 선진문물을 바탕으로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조영제 2013), 더불어 합천 옥전 고분군 99호에서 출토된 배 모양 토기를 통해서도 수계를 활용한 옥전 고분군 축조세력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성산토성은 수계를 활용한 교역 및 물자수송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남서쪽 평탄지의 나루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남서쪽 일원의 평탄지를 포함하는 평산성의 형태로 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 성산토성의 서쪽은 황강 변과 접한 높이 20m 내외의 수직 절벽을 천연성벽으로 그대로 활용하였는데, 수직 절벽의 체고가 낮아지는 지점에서부터 동쪽 구릉으로 선형이 이어지는 남쪽 체성부의 축성이 시작된다. 남서쪽 체성부가 조성된 지점은 1988년 합천댐 준공 이전에도 홍수범람의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안정적인 지형에 해당한다. 성산토성 서쪽의 수직 절벽은 체고가 낮아지지만, 남쪽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사행하는 황강의 공격사면에 해당하여 깊은 수심이 확보되는 낮은 수직절벽에 맞닿아 성산나루터가 조성되어 있다. 성산나루터는 성산토성의 남서쪽 체성부로부터 약 25m 떨어져 위치하며 일제강점기에는 낙동강 수계를 활용하여 합천지역에서 공출된 물자를 김해 및 부산방면으로 이송하기 위한 집하지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에서 합천 방면으로 소금을 싣고 왕래한 나룻배의 기착지로 이용된 곳이다.
- 또한, 성산토성과 인접한 낙동강 적포 나루는 전근대 낙동강의 서안과 동안을 연결하는 주요 나루터에 해당하여, 황강수계 관문에 위치하여 낙동강에서 합천 및 거창 방면으로 물자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성산토성의 입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성산나루터 주변으로는 방수림에 해당하는 수령 500년 이상의 합천 성산리 느티나무(경상남도기념물)가 있으며, 성산나루터 일원은 낙동강 홍수 시 강물이

역류하여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 따라서 성산토성 남서쪽 체성부는 수계를 활용하여 교역 및 물자수송이 이루어지는 나루터 일원을 포함하면서도 침수 피해를 받지 않는 지점을 선정하여 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릉 내지 높은 산의 정상부만을 둘러싸는 산성과 달리 평산성은 낮은 평탄지를 포함하므로 방어에 취약한 형태이며, 따라서 방어보다 공간 운영에 방점을 둔 성곽의 형태이다.

▌타 가야성곽과의 비교

- 가야 성곽유적 중 평산성의 입지를 지니는 성곽은 합천 성산토성을 포함하여, 아라가야의 중심지배공간인 함안 가야리유적(사적), 금관가야 지배층의 중심지배공간인 김해 봉황토성(사적)이 유일하며, 모두 가야 지배층의 중심지배공간 즉 왕성에 해당한다. 이외 백제 및 고구려의 경우, 사비기 백제의 중심 성곽인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고구려의 도성인 평양성 등이 평산성의 입지를 지니고 있다.
- 이같이 성산나루 일원을 포함하는 형태로 축성된 성산토성의 평산성 입지는 황강 및 낙동강 수계를 통한 교역 및 교류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이룬 옥전 고분군 축조 정치체의 성격과 부합하며, 특히 제 가야 지배층의 중심공간들이 지닌 공간 운영, 입지 및 둘레, 주변 중심고분군 분포현황, 출토유물 상황 등과 공통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합천 성산토성은 유력한 가야 정치체 중 하나인 합천 옥전 고분군 축조세력의 중심지배공간이자 제 가야 지배층의 중심지배공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뛰어난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분포 수가 매우 적은 가야 시기 지배층의 중심공간으로서 높은 희소성을 가진다.
- 성산토성은 낮은 독립구릉에 위치하고 1.1㎞의 대규모 둘레, 배후에 가야 유력 정치체의 고분군이 분포하는 양상, 수계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점에서 가야 지배층의 중심공간이 지닌 특징을 보여준다. 성산토성의 남서쪽은 평탄지에 해당하고 주변 구릉은 해발고도가 약 53m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북~남향은 폐쇄적으로 막혀 있고 황강과 접하는 서향은 성안이 외부에 노출된 입지를 가져 유적의 기능은 군사적인 것보다는 평상시 주거, 교역, 교류의 장으로서 치소의 성격이 강하다.
- 반면 합천의 삼국시대 성곽으로 알려진 전 초팔성, 고소산성, 백마산성, 미숭산성, 두곡리성지 등은 모두 해발 100m 전후에서 750m 정도의 비교적 높은 곳에 축조되어 있다. 이 성들은 가야시기 산성인 전 초팔성을 제외하면, 합천지역으로 진출한 신라에 의해 모두 축성된 성으로 당시 삼국시대 신라. 백제의 교통로로 군사상 요충지인 황강이 조망되는 곳의 고지에 위치하고 평상시 거주보다는 필요할 때 일정 기간 주둔하는 방어와 같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여[1] 성산토성의 입지 및 운영목적과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慶南의 城郭』pp.180~188.

▶ 가야 최고지배층 중심공간의 입지적 특징

연번	유적명	입지	둘레	주변하천	주변 중심고분군
1	김해 봉황토성, 김해(금관가야)	독립 저구릉 (해발 47m)	1.5㎞	해반천	김해 대성동 고분군
2	함안 가야리유적, 함안(아라가야)	삼봉산자락 독립 저구릉 (해발 45~54m)	2㎞	신음천	함안 말이산 고분군
3	대가야 왕궁지, 고령(대가야)	주산자락 저구릉 (해발 47m)	(550m)	대가천	고령 지산동 고분군
4	합천 성선토성, 합천(다라국)	황강변 독립 저구릉 (해발 53m)	1.1㎞	황 강	합천 옥전 고분군

- 또한, 가야성곽 중 1.1~2㎞ 정도의 성곽 둘레는 넓은 내부 공간의 운영목적과 함께 축성을 위한 대규모의 인력 동원 및 물자 동원이 필요하여, 제 가야 성곽유적 중에는 합천 성산토성을 포함하여 김해 봉황토성, 함안 가야리유적 3개소만이 해당된다. 이들 성곽은 평산성이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대형의 규모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옥전 고분군 주변으로 성산토성 외, 가야시기 성곽유적이 존재하지 않고 성곽의 규모 및 구조, 특수시설물에 해당하는 대벽건물지의 존재, 성곽의 입지적 특징이 가야시대 최고지배층의 핵심공간으로 비정되는 김해 봉황토성· 함안 가야리유적· 고령 연조리유적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산토성은 옥전 고분군과 하나의 세트를 이루며 다라국 최고 지배층의 중심공간으로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토성+석성+천연단애로 구성된 특별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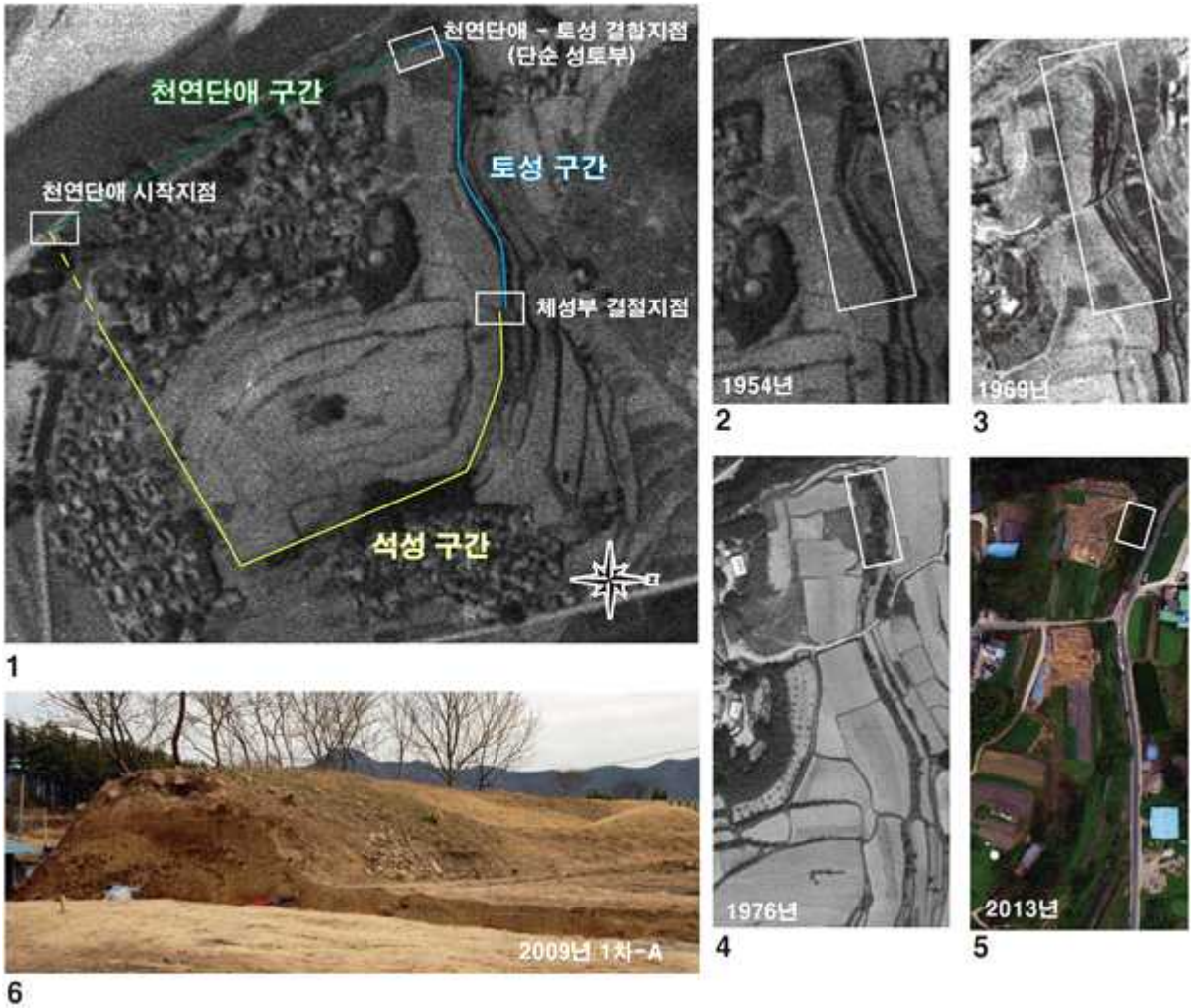
○ 성산토성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7차에 걸친 학술조사 결과, 북서쪽 일부 구간은 토축(土築), 남쪽~북쪽 중앙부까지는 석축(石築), 서쪽은 체성부를 축조하지 않고 황강변의 수직 절벽을 천연성벽으로 삼고 상부에 일부 단순 성토한 토석양축성(土石兩築城)의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 하나의 성곽유적에서 성벽을 쌓지 않은 구간과 축성재료를 달리하며 토성과 석성을 함께 쌓는 사례는 삼국시대 다른 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구조이다. 토성의 토축부에서 확인되는 석축보강구조물이나 석축 성벽의 쌓기 방식도 가야의 특징적인 공법으로 보인다. 축성법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특징은 가야인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축성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심광주 2022) 특히 토석양축된 성산토성은 가야의 토성과 석성이 지닌 축성기법을 함께 비교 검토할 수 있어, 가야 축성공법 규명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성산토성은 전체둘레 약 1.1㎞ 중, 서쪽은 황강과 수직 절벽이 천연성벽을 구성하므로 실제적인 축성이 이루어진 구간은 남쪽과 동쪽~북쪽 중앙부까지의 석성구간이 약 490m 정도, 북쪽 중앙부와 북서쪽의 토성구간이 약 350m 정도로 전체둘레는 약 840m 정도이다. 성산토성은 지표조사 및 2차 학술조사 시까지 구릉 정상부

를 따라 'ㄱ'자의 전체 평면형태를 지니는 가야시기 토성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남쪽 구간에서 계단식 밭의 축대로 활용되고 있던 석축 성벽은 가야시기 성산토성과는 관련없이, 이 지역에 진출한 신라가 기존의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였거나, 또는 토성에 연이어 증축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1~7차 학술조사 결과, 석성의 아래와 내·외측에 있는 성토층이 토성이 아닌 석성 축조와 관련되어 있음과 토성으로만 구성된 북서쪽 구간의 성토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북서쪽 구간의 토성은 높이 3~4m, 너비 20~30m 정도의 규모이며 석성이 조성되지 않고 북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져 북쪽 중앙부에서 석성과 맞닿는다. 반면 석성이 조성된 북쪽 중앙부~남쪽구간은 토성이 조성되지 않고 토성과 대응하는 3m 이상의 높이, 6m 정도의 너비로 석성이 축조되어 있다. 석성 아래와 석성의 내·외측에서도 석성 축조와 관련한 기저부 및 보강 성토층이 일부 확인되나, 성토층의 높이는 약 35~100㎝ 정도로 북서쪽 토성구간과는 규모 및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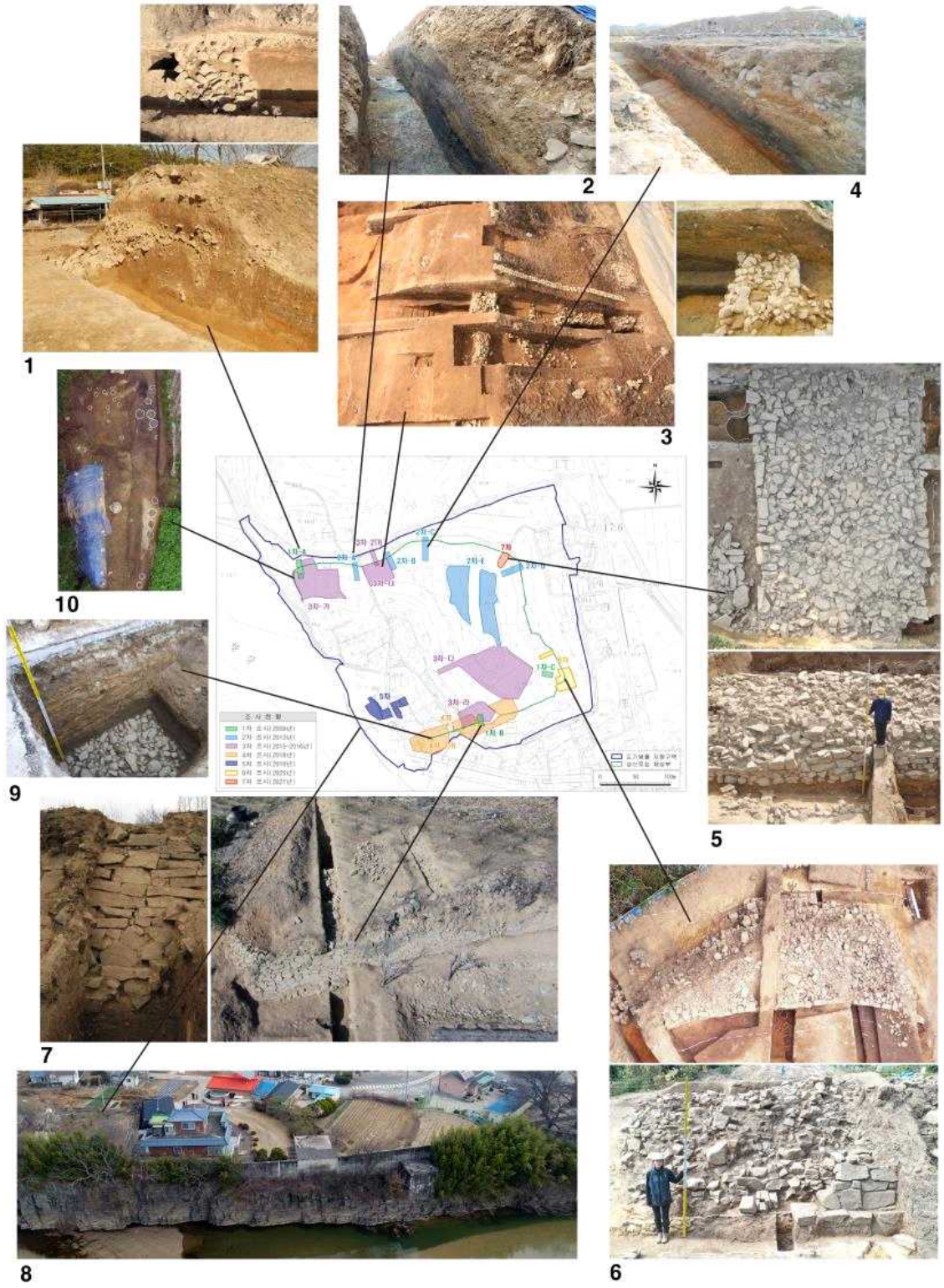


성산토성 토석양축 체성부의 범위 및 현황(1954년 항공사진)

○ 따라서 성벽으로 일정한 공간을 전체적으로 연결되게 쌓아 성 내부를 폐합(閉合)하는 성곽유적의 특성상, 성산토성의 토성과 석성은 하나로 연결되어 성곽의 기능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토성과 석성에서 확인되는 유물 또한 모두 5세기 중후엽~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가야시기 유물로 옥전 고분군을 조영한 다라국 정치체의 전성기와 일치한다.

○ 이 같은 토성과 석성의 입지에는 지형과 경사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토성으로만 조성된 북서쪽 및 북쪽 중앙부는 성산토성 체성부의 입지조건 중 가장 급경사에 해당하지만, 북동쪽 석성이 조성된 지점부터는 완만한 능선이 체성부 아래로 이어지는 지형으로 변화한다. 더불어 토성이 급경사면에 조성되어 호상(弧狀)의 원지형을 따라가며 조성된 데 비해, 남쪽과 동쪽의 석성은 비교적 완만한 지형에 직선에 가까운 선형을 보여, 입지가 선형의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 따라서 성산토성은 가야의 성곽축조기술에 반영된 지형 활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핵심유적이라 할 수 있다.



합천 성산토성 체성부 조사현황

(1: 북서쪽 토성 및 심석(1차-A 동서문물연구원 2009), 2~4: 북쪽 중앙부 토성 목책열 및 심석(3·4차 동서문물연구원 2013·2015), 5: 북동쪽 석성(7차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21), 6: 동남쪽 석성(6차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20), 7: 남쪽 중앙부 석성(1차-B 동서문물연구원 2009, 4차-6TR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8), 8: 서쪽 천연 단애-자연성벽, 9: 남서쪽 석성 적심(4차-2TR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8), 10: 북서쪽 단순성토부 추정 목책(3차 동서문물연구원 2013))

3) 가야의 유일하고 독특한 '토석양축성'

① 토성

○ 성산토성의 토성은 성토기법을 사용하여 축성하였으며, 목책의 운영과 목책 폐기 후 추가 성토양상을 통해 2차례 이상 수개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체성부의 구조적 안정성과 견고함, 외벽의 가파른 경사도(안식각)를 조성하기 위한 다량의 할석(석심)과 목주를 사용하는 여러 보강공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토성 외벽이 45°정도의 안식각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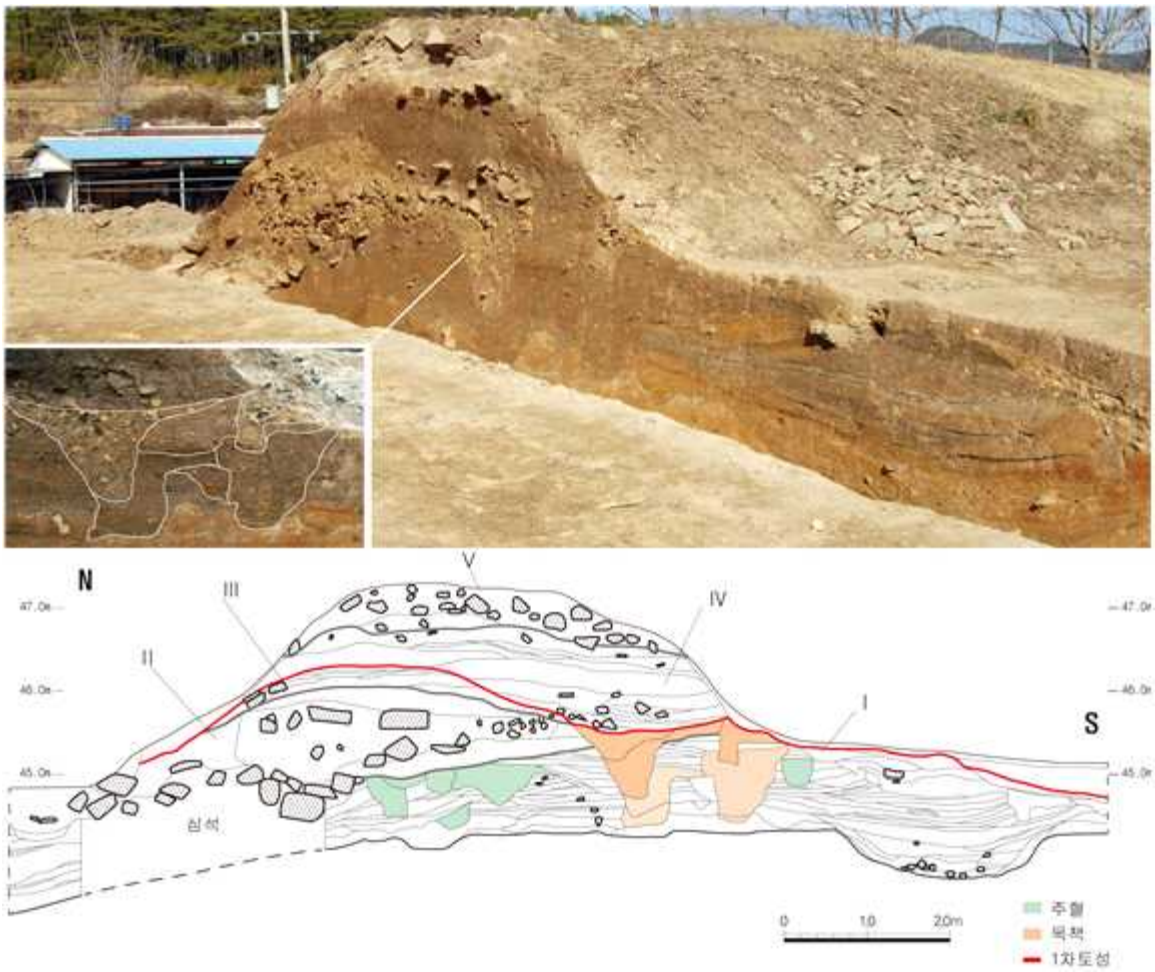
○ 토성의 너비는 약 17~28m, 높이는 안쪽에서는 약 2.5~3m 바깥쪽에서는 약 7.5~9m 내외이다. 토성의 축조는 Ⅰ단계 성토 → 석심 설치 + 석심 상부 토루 조성 + 배후의 2열 목책 설치를 하나의 세트로 하는 1차 토성, 이후 목책을 폐기하고 토루의 체면적 및 높이의 증가를 통해 목책의 기능을 대체한 2차 토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토성에서 사용된 2열 목책 중 일부는 수리흔을 관찰할 수 있으며, 2차 토성의 경우, 목책 폐기 후 상부 성토와 함께 다량의 할석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이러한 축조공정을 토성 체성부가 가장 양호하게 남아있는 1차 A지점(2009년) 발굴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A지점 토성은 정지층으로부터 성토층의 높이가 직경 약 308㎝, 상부 잔존 폭은 약 5m 정도이다. Ⅰ~Ⅴ단계로 층위가 크게 구분되며, 1차 토성과 2차 토성으로 수개축이 이루어졌다.

▌목책성 단계의 1차 토성 : Ⅰ층~Ⅲ층

- Ⅰ단계는 기저부 정지 후, 최초의 성토가 이루어진 단계로 성토 방법 및 재질에 있어 Ⅱ~Ⅴ단계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며, 공정 면의 중심위치가 북쪽에 있는 Ⅱ~Ⅴ단계와 달리 경사면 위인 남쪽에 위치하는 성토단계이다. 성토단위가 치밀하고 수평 상의 성토가 이루어져 있다. 층 내부에서 목주보강기법으로 사용된 목주가 확인된다.
- 유물의 출토비율이 낮은 특징을 지니는데, 1단계 내부에 조성된 목주의 설치 면을 고려할 경우, Ⅰ단계부터 목책이 조성되어 하나의 기능면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Ⅱ단계는 Ⅰ단계 북쪽 상부면에 석심(보강석축)을 약 2m 너비로 덧대어 보강하였고 그 위에는 다량의 잡석을 성토한 층이다. 이후 상부를 Ⅲ단계의 점질토로 피복하였다. 이때 토루의 중심이 경사면 가장자리로 이동하였고 목주의 재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어, 목책이 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주는 너비 약 80~90㎝, 깊이 약 60~90㎝ 정도의 유사한 제원과 목주 중심 간의 거리가 약 170㎝로 등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 Ⅰ단계 성토층을 굴착하여 목주를 설치하였고 층위에서 목심이 확인되는 양상을 통해, 목책을 절단하여 폐기(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이 대부분의 목주에서 일괄적으로 확인되어, 북서쪽 구간에서 확인된 2열 목주가 하나의 동일

구조물임을 알 수 있다. Ⅰ단계와 달리 Ⅱ단계부터 5~6세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유물 양상을 통해 각 단계의 시기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성산토성 북서쪽 토성의 축조공정 및 1차 및 2차 수개축 현황(2009 1차-A 동서문물연구원)

1

2

3

북쪽 토성의 석심 및 1차 토성 2열 목책 현황

(1. 북쪽 중앙부 토성 : 2015 3차 가구역 동서문물연구원, 2. 북쪽 중앙부 토성 2열 목책 : 2013 2차-B 동서문물연구원, 3. 북서쪽 모서리 지점의 토성-맞은편 층위의 2열 목책 : 2009 1차-A 동서문물연구원)

▌목책폐기 후 상부 다량의 할석 성토 수개축, 2차 토성 : Ⅳ층~Ⅴ층

- Ⅳ단계는 Ⅲ단계 축조공정면 상부와 남쪽의 2열 목책 상부를 함께 성토하여 목책을 폐기하였다. Ⅳ단계의 성토는 목책의 폐기라는 운영 방식의 변화와 함께, 목책을 대체하는 방법이 토루 체면적의 확대와 높이 증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Ⅳ단계의 상부인 Ⅴ단계 축조공정면에는 다량의 할석이 놓여 있으므로 Ⅳ단계는 단독적으로 성토되지 않고 Ⅴ단계 축조를 위한 재조정 과정 또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Ⅴ단계에서 확인되는 할석의 축조형태는 점토와 함께 할석을 정연하게 채워놓은 석성의 적심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 1차-A지점에서 확인되는 목책의 폐기와 그 기능을 대체하는 양상, 즉 체면적과 높이를 증가시킨 후 최상단에 할석을 배치하는 것은 석성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흔적은 토석양축으로 이루어진 성산토성 석성의 축조 시점 및 토성과 석성의 수개축 관계, 운영 방식의 변화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3차 발굴조사는 성산토성 북서쪽 중앙부 일원에 대하여 실시되었는데, 평탄면 아래에서 최대 직경 약 260~380㎝ 높이의 성토층이 확인되었다. 3차 발굴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토루의 평면 제토면에서 1차 토성의 2열 목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다. 이는 목책을 폐기하고 상부에 추가적인 성토가 이루어져 2차 토성을 제토하지 않으면 1차 토성의 목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으로 1차 토성과 2차 토성의 수개축 양상을 잘 보여준다.
- 3차 발굴조사에서 1차 토성은 트렌치 절개면 및 피트 하강면에서만 관찰할 수 있으며 1차 조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석심(보강석축)이 확인되고 있다. 3차 발굴조사 시, 토성의 잔존 규모는 최대 폭 약 28m, 최대높이 약 8.5m이다.
- 성산토성 토성의 특징은 먼저 목주를 이용하여 경사면의 성토다짐을 보다 견고하게 실시한 점이다. 이처럼 성토과정에서 목주를 사용한 예는 김해 봉황토성과 함안 가야리왕궁지 등에서도 확인되며, 토성의 안식각을 확보하기 위한 가야토성의 핵심기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심광주 2019: 68-70).
- 다음으로 성곽축조에 다량의 할석을 사용하여 토축 구조물의 견고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같이 토성의 축조공정에서 외벽부의 중간층에 몇 겹의 석축보강을 실시하는 기법은 가야토성의 특징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 석축보강 석재는 편암류를 사용해 정교하지 않지만 면을 맞추어 쌓았으며, 돌틈 사이는 점토를 채워 쌓는 습식공법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토성 내에 석재가 사용되는 경우는 판축공정을 위하여 중심토루 조성 시 양측 단에 기단석열을 배치하거나 토성 축성 이후 내벽이나 외벽의 말단부를 석축으로 보강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나, 이처럼 토성벽을 조성하면서 중간공정으로 석축을 보강하는 공법은 고구려나 백제, 신라 토성에서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야의 독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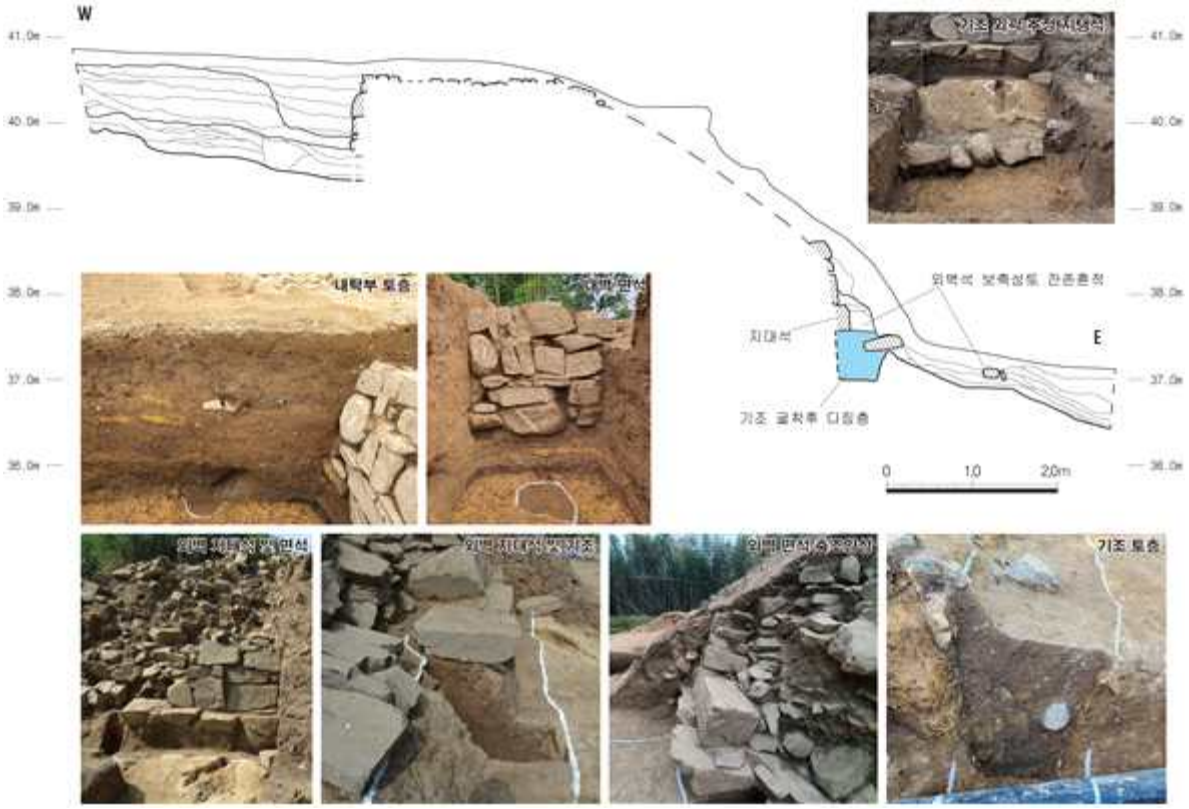
한 축성공법임을 알 수 있다. 김해 봉황토성 역시 성산토성에서 확인된 토축부 목주의 흔적과 내외벽부에서 확인되는 여러 겹으로 보강된 석축구조물이 확인된다. 이처럼 가야시대 토성에서 목주를 활용한 토축부의 성토 방법, 석축구조물의 조성위치나 석재의 가공방법 및 쌓기 방식 등이 매우 유사한 점은 가야의 독특한 축성기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심광주 2016).

② 석성

- 석성은 내벽과 외벽을 함께 쌓아 올리는 협축식(夾築式)의 구조이다. 규모는 기저부 너비가 약 6m, 상단부 너비가 약 5m이다. 잔존 높이는 2009년과 2018년에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남쪽 중앙부의 경우 17단 규모로 약 2.2m의 외벽석이 남아있다. 2020년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남동쪽의 경우, 3단의 외벽석과 적심이 약 3m 높이로 남아있다. 북동쪽의 경우 외벽석 4단이 적심과 함께 약 1.8m의 높이로 남아있다.
- 이 중 2009년 학술조사·2018년 학술조사에 해당하는 남쪽 중앙의 외벽석이 가장 양호하게 남아있으며, 석성 아래의 성토부는 북동쪽 2021년 7차 학술조사구간의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3구간이 모두 유사한 축성기법을 보이므로 전체 매뉴얼에 따라 일시적인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나, 후대 교란 여부에 따라 석성 외벽에 조성된 보축(補築) 성토층의 잔존 유무에 차이가 있다.
- 또한, 내탁부 지형에 따른 내탁부의'L'자상 컷팅도 일부 차이가 확인된다. 합천 성산토성 석성은 면석의 가공형태, 통줄눈의 조성, 지대석의 사용, 비스듬한 외벽 기울기·특히 층단식이 아닌 외벽석 면기울기를 통한 외벽석의 내경(內傾) 축조, 기단 보축 미확인 등에서 신라 석축성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축성공법의 특징은 석성 축조에 앞서, 그 아래를 성토하여 기반대를 조성하고 기조 및 지탱목, 역 경사상의 토석제 등을 석성의 축조와 연계하여 설치한 점이다. 이것은 석성 축조를 위한 기저부의 조성과 함께, 마치 신라 석축성벽의 외벽 보축(補築)과 같이, 외벽 보축 성토부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축성공법은 토성과 석성의 혼합 축조기법에 가까우며, 기 조사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가야의 축성공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성산토성 석성의 축성기법을 2020년 남동쪽 학술조사 구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성의 내벽은 목탄과 소토 알갱이, 가야시기 생활 토기가 다수 포함된 사질점토를 내탁하여 전체적으로 외벽만이 지표에 노출되는 형태이다. 내벽 최하단석의 해발고도는 약 39.8m, 외벽 최하단석의 해발고도는 약 38m로, 약 1.8m의 높낮이 차이가 확인된다.
- 내벽은 석성 축조에 앞서 조성된 성토층의 가장자리를'L'자 상으로 절개한 후, 절개된 성토층과 약 80~100㎝ 정도의 공간을 두어 내벽의 최하단석을 놓았다. 절개면과 내벽 사이에는 약 70~80㎝ 높이로 성토하였다. 적심은 할석을 점질토와 함께 정연하게 채워 토석혼축하였는데, 내벽과 적심과의 맞물림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 외벽은 면석 3단 정도가 남아있으며, 외벽 최하단부에 석성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너 비 60~70㎝, 깊이 약 70㎝ 규모의 기조가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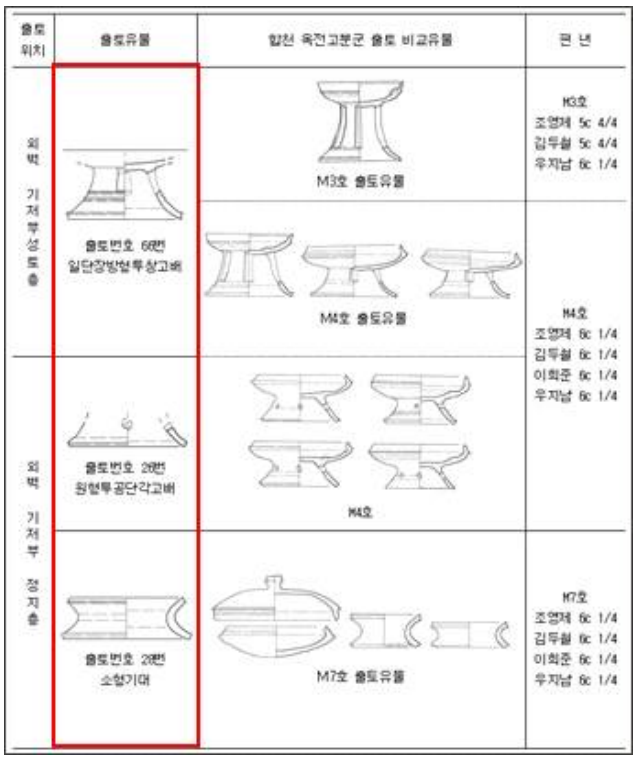
남동쪽 석성의 축성기법 현황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20)

- 기조 상부에 30~40㎝ 높이로 암갈색점질토를 성토다짐한 후, 지대석 1단을 설치하였다. 이후 면석을 다시 지대석의 내측으로 약 20㎝ 들여서 본격적으로 쌓아 조성하였는데, 면석을 내측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지게 면 맞춤하여, 면석이 내경한다.
- 최하단부 기조 및 지대석을 덮고 있는 성토층, 지대석 외곽에 남아있는 열상의 할석은 북동쪽 7차 학술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조 외곽의 보축 성토층의 흔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외벽 면석은 방형 또는 장방형에 가까운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 가공의 정연성이 낮고 부분적으로 통줄눈이 확인되며, 면석 사이의 빈 공간에는 작은 돌을 끼워 보강하였는데, 신라 및 백제 석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가야 축성기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③ 토성과 석성은 동시기 운영

- 토성은 옥전 고분군 구릉에 맞대어 소협곡을 이루는 북서쪽 및 북쪽 중앙부 급경사면에만 축성되어 있고, 석성은 북동쪽~남쪽 구간의 체성부 외곽 완사면이 형성된 구간에 축성되어 있다. 이는 불리한 지형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토석양축성으로 축성한 가야의 축성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석성과 토성 접합구간은 선형이 이어지지 않는 체성부 결절지점이 존재하고, 토성의 개축으로 폐기된 2열 목책이 토성 내측으로 약 4~5m 정도 들여 조성되어 석성의 선형과 일치하고 있다. 성곽 폐합(閉合). 토성 2열 목책은 지속적인 수리흔이 확인되며 이후 개축으로 폐기, 목책 폐기 후 토성 상부 성토를 통한 체면적 및 체성고 확대의 형태로 토성을 개축하고, 석성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토성(목책 폐기 후)성토층과 석성 기저부조성층 및 내탁부 성토층에서 6세기 전엽에 해당되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토성(2019년 A지점 토성)의 개축시기와 석축 성벽의 축성과 직접 관련된 층위인 내탁부 및 외벽기저부에서 출토된 일단장방형투창고배와 기저부 정비층에서 출토된 원형투공단각고배, 소형기대 등의 출토유물이 옥전 고분군 M3호, M4호, M7호분 단계와 같은 시기에 해당되어, 옥전 고분군 최전성기인 6세기 전엽에는 축성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석성 기저부 및 내탁부 조성층 출토유물과 옥전 고분군 출토유물 비교

4) 가야성곽의 실체 및 전형

○ 가야의 성곽은 토성 내부를 석축으로 보강하는 '석심토축공법'을 특징으로 한다. 목주를 활용하여 대규모 성토공사를 하여 성벽을 조성했다. 가야의 산성들은 세장한 평면형태, 연결되지 않는 단절형 성벽, 석심토축성벽, 가공되지 않은 할석, 허튼층쌓기, 습식공법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입지나 분포양상을 보면 가야 산성은 대부분 치소성이 아니라 방어용 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심광주 2020).

○ 합천 성산토성은 이러한 가야 축성법의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가야 성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공법이 확인된다. 그것은 구간별로 축성방법을 달리하여 쌓는 공법이다. 성산토성의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황강에 접하는 서쪽 성벽은 성벽을 쌓지 않고 단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남쪽과 동쪽성벽은 석축으로 쌓았으며, 북서쪽 구간은 토축으로 쌓았다. 석축성벽은 원지반을 굴착하여 내벽과 외벽을 갖춘 협축식으로 구축하였다. 내벽구간은 되메우기 하여 외관상 편축식 성벽으로 보인다. 외벽 기저부에는 성벽 진행방향으로 기조를 파고 점토다짐 후 체성벽 보다 큰 지대석으로 놓고 조금 들여서 체성벽을 쌓아 올렸다. 성벽의 너비는 5~6m 정도이다. 내벽과 외벽 사이의 적심부에는 작은 할석이 사용되

었다. 면석은 일대의 기반암인 퇴적암을 사용하였으며 암질의 특성상 부정형에 가깝고 크기가 다양하다.

○ 지금까지 성산토성의 석성구간은 가야가 쌓은 성벽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었다. 가야의 석축성이 확인된 사례가 없고 성산토성의 석축성벽도 외견상 신라 석축성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합천 성산토성 내부 보강석축(좌)과 석축성벽 구간의 지대석과 체성벽(우)

○ 특히 외벽 하단부의 지대석을 근거로 성산토성 석축성벽을 통일신라 이후에 쌓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신라 석성에서 지대석은 6세기 말경에야 등장하는 새로운 공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산토성의 석성 구간은 토성 구간과 함께 조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통일신라 성곽보다 100여년 앞선 시점에 가야 성곽에 지대석이 먼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심광주 2022).

○ 신라 성곽에서는 구간별로 축성재료를 달리하며 쌓은 성곽은 확인되지 않는다. 초축이든 수축이든 신라는 동일한 축성법으로 완결된 성벽을 쌓았다. 반면 가야는 대체로 험준한 지형에는 성벽을 쌓지 않았다. 이것을 단절형 성벽이라고 한다. 이러한 축성법의 바탕 위에서 성산토성처럼 단애구간은 성벽을 쌓지 않고, 급경사구간은 석성으로 완경사구간은 토성으로 쌓은 혼합쌓기 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 성벽 전체를 석성으로 쌓은 가야 성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전면 석축성은 그만큼 고도의 기술과 많은 축성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산토성에서 확인된 석성벽은 가야도 석축성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석심토축공법

- ‘석심토축공법’은 토성의 물리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가야 축성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토성은 흙을 쌓아서 성벽을 만들기 때문에 안식각의 영향을 받는다. 안식각은 토상의 중력과 마찰력이 균형을 이루는 각도를 말하며, 아무리 단단하게 다짐을 하더라도 흙만으로는 외벽 경사각 40°이상의 토성을 쌓을 수 없다. 그런데 가야는 토성 내부에 석축을 보강하여 일반 토성보다 외벽경사각이 10°이상 급경

사를 이루는 성벽을 쌓았다.

- 이러한 축성법은 고구려, 백제, 신라 토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석심토축공법'은 기술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야 토목기술의 수준을 알게 해주는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토성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목주를 깊게 박아 구조체로 활용하는 것도 가야 토목기술의 특징이다.

합천 성산토성과 가야성곽 분포현황

- 성산토성의 남쪽구간에서 확인되는 석축성벽은 3차에 걸친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남서쪽 체성부 미확인구간에 대하여 실시된 시굴조사에서 석성의 기저부가 확인되어, 남쪽 전구간이 석성으로 조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경남발전연구원 2019). 석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된 협축성이며, 내벽은 11-13단, 외벽은 10-15단 정도가 남아있고 내외벽 사이에 흙과 돌을 채워 넣었다. 석성의 너비는 약 5m, 잔존 높이는 약 2.2m 정도이다. 석성은 경사진 면을 정지한 후, 할석과 풍화암반편이 포함된 점질토로 정지한 후 할석을 사용해 성벽을 축조하였다.

▌내벽

- 내벽은 상부로 갈수록 외벽측으로 경사지게 축조하였으며 벽면에 접하여 보축을 하면서 쌓았으며 축조공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가능하다. 1단계는 경사면을 정리한 후 점질토를 이용해 할석과 함께 30㎝ 정도 쌓아 정지하였다. 2단계는 1~3단이 해당되며 세장방형, 방형의 할석으로 횡평적하면서 풍화암반편과 목탄, 소토편이 혼합된 점질토를 성벽면에 접해 함께 쌓았다. 3단계는 4~10단이 해당되며 3단보다 들여쌓기 하여 방형계의 할석을 이용해 횡평적하였다. 이 단계에서 보축토는 성벽 축조와 별개로 이루어졌다. 할석과 풍화암반편, 소토, 목탄 등이 많이 포

함된 점질토를 성벽면과 약 30㎝ 정도 간격을 두고 4m 정도 편평하게 쌓았다. 4단계는 11단부터 잔존하는 상부까지 이며 세장방형, 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종횡으로 무질서하게 쌓으면서 할석이 포함된 점질토를 함께 쌓았다.

▌외벽

- 외벽은 상부로 갈수록 내벽면으로 기울어지게 축조되어 있다. 성벽의 축조는 축조 구분점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성벽이 구분된다.
- 동쪽 성벽의 축조는 3단계를 거쳐 축조되었다. 축조진행은 좌측(서쪽)에서 우측(동쪽)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경사면을 정리하여 풍화암반편과 목탄이 포함된 점질토로 정지를 하고 할석과 흙을 무질서하게 1~2단 정도 쌓아서 한번 더 정지작업을 하였다. 2단계는 1~3단이 해당되며 최하단석으로 할석을 종방향으로 1단 쌓고 그위 2단부터는 들여쌓기 하였다. 3단계는 4단부터 잔존하는 성벽까지로 4공정으로 세분된다. 3-1·2단계는 경사가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할석을 이용해 종평적하였으며, 3-3·4단계는 편평하게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할석을 종평적으로 정연하게 우측(동쪽)으로 쌓았다.
- 서쪽 성벽의 축조공정도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좌측(서쪽)에서 우측(동쪽)으로 축조가 진행되었다. 1단계는 풍화암반편과 목탄이 함유된 점질토로 정지한 후 경사면을 따라 할석을 2단 정도 쌓았다. 2단계는 1~3단이 해당되며 방형 계통의 할석을 쌓으면서 동쪽 성벽의 2~3단과 높이를 맞추려는 의도를 보인다. 3단계는 4단부터 잔존하는 성벽까지이며 세분하여 보면, 3-1단계에서는 경사가 낮은 좌측은 4단, 우측은 2단으로 성벽을 축조해 경사를 맞추었다. 3-2·3단계는 다양한 크기의 할석을 이용해 거칠게 쌓아 수평을 맞추었다. 축조 구분점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성벽은 공정상의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차이가 확인된다. 최하단석을 쌓을 때 동쪽성벽은 할석을 종평적하여 한단 내어쌓기 하였지만 서쪽성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경사면을 극복하기 위해 동쪽 성벽은 세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해 다소 정교하게 쌓았으나 서쪽성벽은 다양한 할석을 사용해 거칠게 쌓았다.
- 6세기대 신라성벽이 성벽돌을 쌓을 때 대부분 막힌줄눈쌓기수법을 사용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성산토성의 석성은 사용된 석재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많은 곳에서 통줄눈이 쉽게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성벽의 기울기에서도 신라성과 차이를 보이는데, 6세기 대 축조된 신라성벽은 일반적으로 성벽의 높이는 대체로 10~20m 정도로 높으며, 성벽의 기울기가 80도 이상이다. 하지만 성산토성의 경우 조사된 구역의 성벽 외벽의 경사각은 68도 내외로 완경사를 보이며 통일신라시대의 성벽기울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성벽의 높이도 많이 훼손되어 전체 높이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잔존상태로 볼 때 석축성벽의 높이는 약 2m 정도로 매우 낮게 축조되어 있다. 석축성벽이 통상 암반면이나 생토면 위에 석축을 하는 신라나 통일신라와 달리 먼저 조성된 초축 부위에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신라와의 축성방법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뒤채움 방법과

석재의 가공방식에서도 신라성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일반적으로 6세기대 신라 성벽은 협축식의 전면석축성으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성산토성과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하지만 신라 석축성이 면석과 뒤채움돌을 정교하게 맞물리도록 쌓아 올리는데 비하여, 성산토성의 경우 둥글고 작은 할석들이 많이 사용하여 뒤채움을 하였고, 또한 면석과 거의 결합되지 않게 쌓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신라의 석축성은 돌과 돌 사이에 점토를 충진하지 않고 건식으로 쌓아 물이 자연스럽게 배수되도록 하는데 비하여, 성산토성은 작은 돌틈 사이에 점토가 충진되어 있어 토성벽의 보강석축처럼 습식공법으로 쌓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성산토성의 석성부분의 축성방법에서 보이는 특징은 기존에 알려진 신라석성의 축조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야성의 축성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심광주 2019).

가야석성과 신라·통일신라 석축산성과 비교

- 이처럼 성산토성은 가야의 축성기법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유일한 성곽유적으로 가야시대 토성 그리고 석성의 축조공정과 형태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유적에 해당하므로 고대 가야 토목기술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5) 고분 축조공법이 함께 적용된 가야 토목기술의 발전

○ 성산토성 토성 구간에서 확인된 석심(보강석축) 및 여러 겹으로 배치된 열상의 할석은 내호석을 여러 겹으로 배치한 고령 지산동 75호분, 합천 옥전 M1호분, M3호분 봉분축조에서 확인되는 것과 동일한 가야의 토목기술이다. 이는 구조물 축조가 불리한 급경사 지형을 극복하고 토성의 안식각을 확보하여 방어력를 증대할 수 있는 고대 토목기술에 해당한다. 즉 축조공정 3단계에서 보이는 할석을 보

강하여 성벽의 견고성을 높이는 축성공법은 옥전 M1, M3호분 등 대형 봉토분을 쌓는 방법과 거의 같으며, 특히 낮은 쪽에 많은 할석을 이용하여 보강한 M4호분의 축조공정과 매우 유사하다(조영제 2016).

○ 고령 지산동 75호분은 5세기 2/4분기에서 5세기 3/4분기에 해당하는 대가야 왕묘급 고총고분으로 봉분의 규모는 호석 기준 최장 27.5m, 최단 23.5m의 너비를 지니며, 잔존 높이는 2.8m이다. 봉분의 원래 높이는 경사면의 위쪽에서는 3.2m, 아래쪽에서는 6.8m, 주석실(主石室) 중심부의 구지면에서는 5m 내외의 높은 규모로 추정된다.[1)]

○ 합천 옥전 M3호분은 용봉문환두대도 4점이 출토된 5세기 4/4분기의 다라국 최고 수장의 무덤이다. 유물 출토양상을 통해 대가야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고총고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봉분의 지름은 동-서 19.4m, 남-북 21.6m이며, 높이는 동쪽에서 보면 약 2.5m 정도인데 정상부와 북서쪽은 다소 평평하게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봉분 조영 1단계 축조 공정면에서 배치의 정형성이 없는 무수히 많은 주혈과 봉토 내부에서 다량의 할석이 확인되었다.[2)]

○ 이같이 성산토성 축조에 사용된 석심, 열상의 할석, 가장자리에 쌓아놓은 내호석은 구조 및 평면 형태에서, 가야 고총고분의 봉분축조에서 사용한 내호석과 매우 흡사하여, 가야의 고대토목기술의 실체 규명과 함께 성산토성 1차 토성 축조기술에 적용된 토목기술의 연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1) 고령군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2012,『고령지산동 제73~75호분』, 학술조사보고 제36집.

2) 경상대학교박물관, 1990,『합천 옥전 고분군Ⅱ M3호분』, 조사보고 제6집.

합천 성산토성 석심 및 가야 고총고분 내호석 비교

(1: 합천 성산토성 3차 가구역-2TR지점의 내호석 및 심석(동서문물연구원 2013), 2: 고령 지산동 75호분 내호석 전경(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3: 합천 옥전 고분군Ⅱ-M3호분 내호석 전경(경상대학교박물관 1990), 4: 합천 옥전 고분군Ⅳ-M4호분 내호석 전경(경상대학교박물관 1990)

6) 다라국 정치체가 구축한 성산토성과 옥전 고분군

○ 합천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은 황강유역을 기반으로 발전한 다라국(多羅國)의 중심 유적으로서, 두 유적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옥전 고분군은 4~6세기의 다양한 가야 묘제와 풍부한 부장유물을 통한 고고학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라국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박승규 2019). 1985년부터 시작된 옥전 고분군의 발굴조사에서 확보된 여러 고고자료의 분석에 의해 다라국의 성립과 발전, 계층분화, 경제적 기반, 대외관계 등 다라국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조영제 2007).

○ 성산토성은 현재까지 총 5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성산토성의 구조와 축성시기 및 성격 등 여러 문제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여겨진다.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이 공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며, 시간적으로 동시대 유적으로서 두 유적은 동일 집단에 의해 형성되었음이 확실하다.

○ 옥전 고분군은 일반의 목곽묘와 석곽묘 및 고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구조에서 특징적인 양상을 찾아볼 수 있으나 대체적인 전개과정은 동시기 영남지방의 분묘 양상과 대동소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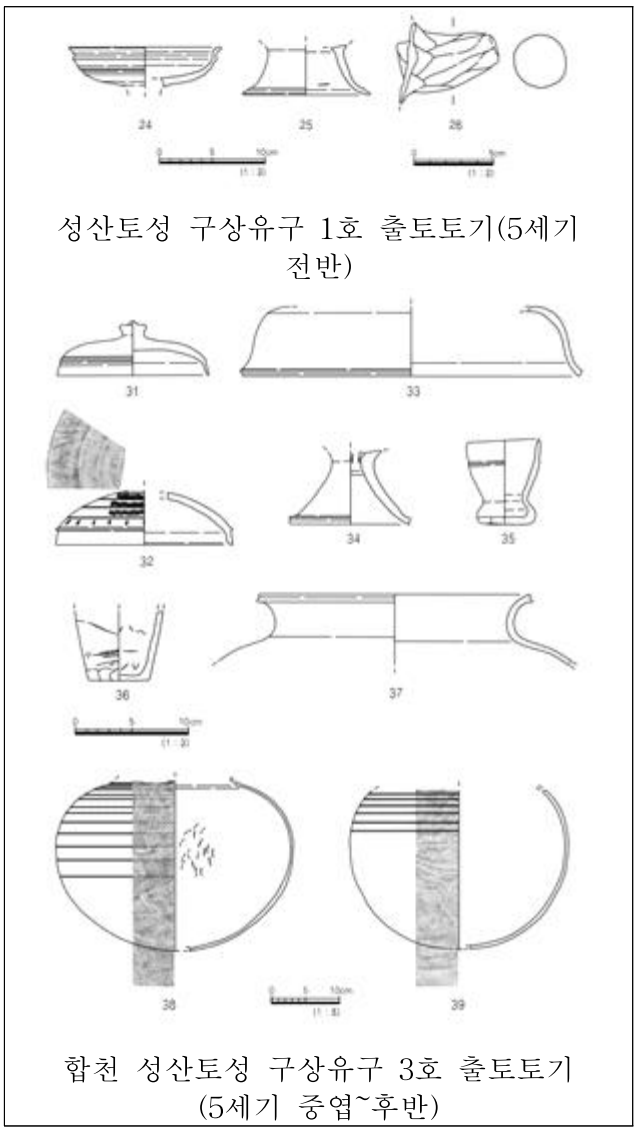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

○ 특히 고총의 축조는 고분군 내에서 서쪽의 구릉에 한정되며, 고총이 처음 만들어지는 M1, M2호분은 동쪽 구릉에 위치하는 분묘의 축조공간을 벗어나 주능선의 고개마루로부터 서쪽으로 이어지는 새 구릉에 축조된다는 사실은 옥전 고분군 축

조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고분의 축조는 4세기부터 시작되어 가야가 멸망하는 6세기 중엽까지 이어지고 있다(박승규 2019).

○ 다라국의 정치체는 5세기 전반경 고구려 남정으로 와해된 김해 세력 중 일부가 낙동강을 따라 황강수계로 들어와 금관가야의 선진문물을 배경으로 다라국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옥전 고분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다라국의 성립은 23호 목곽묘로 대표되는 5세기 전엽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발전기와 전성기를 거쳐 대가야의 멸망(562년경)과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4세기 말경까지는 재지세력의 영역이었다가 A.D.400년 이후인 5세기 전반대에 23호 목곽묘로 대표되는 시기에 다라국의 성립을 보여준다. 유구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유물 역시 앞 시기와 비교할 수 없는 갑주나 마구, 금공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돌발적인 양상으로서 새로운 소국의 성립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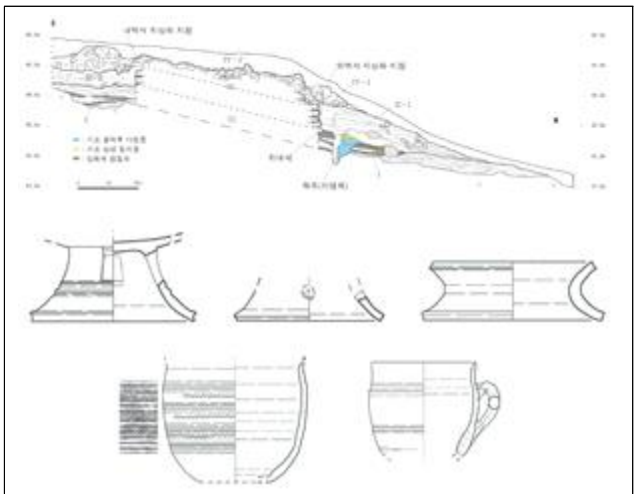
성산토성 구상유구 1호 출토토기(5세기 전반)

합천 성산토성 구상유구 3호 출토토기 (5세기 중엽~후반)

○ 성의 축조와 존속시기는 옥전 고분군을 통해 도출된 다라국의 성립 및 발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라국의 성립은 옥전 고분군 23호분 시기임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다. 토목기술을 보유 집단, 인력 동원체제, 성곽의 운영 등을 통해 국(國)의 성립과 그 발전과정에서 성(城)의 출현이 연동된다. 다만 성산토성에서 출토된 유물, 석성의 축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석성 기저부 및 내탁부 뒤채움 층에서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유물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옥전 고분군에서 보이는 다라국 최전성기에 성(城)이 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이는 토성벽 내부에서 수습되는 유물 대부분이 5~6세기 유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옥전 고분군에서 보이는 다라국 정치체의 존속시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준다. 다만 성산토성 남쪽부분에서 확인되는 석축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석벽부 내측으로 확인되는 정지층에서 대부분 5~6세기

유물(대가야계 파상문토기나 꼭지형 개배 등)이 확인되고, 석벽 기저부 성토층에서 일단장방형투창고배가 출토됨으로써, 옥전 고분군 M3호분 이후 단계인 6세기 전엽에는 성이 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합천 성산토성 석성 기저부 및 보강 성토층 출토유물(6세기 전엽)

○ 성산토성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학술발굴조사 결과 옥전 고분군이 다라국 중심묘역으로 조영되던 시점부터 다라국 지배층의 중심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해발 53m 전후의 황강변 구릉부를 거점으로 축조되어 있는 성 내부의 중심지에서 대벽건물지와 제사유구 등이 확인되어 지배층의 중심공간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성산토성의 입지 및 내부시설로 볼 때 방어적 성격의 산성이 아닌 다라국 지배층의 중심공간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준다. 성산토성은 당시 대외교류 루트인 낙동강에서 황강으로 출입하는 길목을 근거지로 치소를 쌓았고, 역사상에 등장하는 다라국을 유지하였다.

○ 따라서 성산토성은 동시대에 유지되었던 옥전 고분군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시공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라국의 수장층 고분인 옥전 고분군에 연동된 다라국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의 축조집단은 동일체로서 다라국 정치체에 의해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승규 2019).

7) 특수건물로 구성된 다라국의 핵심공간

○ 성산토성 내 정상부에는 6동의 대벽건물이 일개 군을 이루며 조성되어 있다. 대벽건물의 서쪽은 급경사면에 해당하며 동쪽 외곽은 구를 둘러 주변과 공간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였다. 대벽건물지가 특수건물로 파악되고 특히 6동의 규모가 가야지역 최대규모를 차지하므로 성산토성이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의 역할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중요자료로 파악된다. 대벽건물은 기둥이 토벽 속에 있어 바깥에서는 기둥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주벽건물지로도 지칭된다.

○ 지금까지 이러한 구조의 건물터가 확인된 예는 고령 연조리의 전 대가야왕궁터를 비롯하여, 무령왕비의 빈전(殯殿)으로 추정되는 공주의 정지산유적, 공산성, 안영리유적, 부여의 군수리, 화기산, 부소산성, 익산의 신동리유적 등 백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공주 정지산유적은 백제 무령왕의 부인인 왕비가 526년에 죽자 백제의 장제인 3년상을 치르기 위해 왕비의 시신을 모셔놓았던 빈전이 만들어졌던 유적으로 이 유적에서 발견된 대벽건물은 백제의 국가건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

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에 조사된 부소산성내의 대벽건물터군은 대규모 군집을 이룬 대단히 중요한 건물터로 알려졌다. 정지산유적의 대벽건물 입지는 성산토성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데, 즉 대벽건물군의 한 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평탄면 외곽에는 목책을 둘러 대벽건물과 주변을 구분하여 특수한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 가야와 백제지역의 대벽건물지 조사 사례

지역	유적명	유구수	규모(m)
가야	합천 성산토성	5기	길이(3.4~4.9), 너비(2.3~4.1)
	고령 전대가야궁성지	1기	-
백제	공주 정지산유적	7기	길이(6.1~8.4), 너비(5.2~7)
	공주 공산성	2기	길이(6.8), 너비(6.6)
	공주 안영리유적	3기	-
	부여 군수리유적	2기	길이(4.3~5.3), 너비(4.2~5.2)
	부여 화기산유적	2기	길이(4.3~9.5), 너비(4.3~7.4)
	익산 산동리유적	2기	길이(5.9), 너비(5.1~5.7)

○ 대벽건물은 백제의 왕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당시 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국가건물이었음이 분명하며 이를 통해 보면 성산토성에서 발견된 대벽건물터 역시 왕이나 귀족들의 거처 또는 관용건물 등의 기능을 담당했던 건물터였을 가능성이 높다(조영제 2013). 특히 중국의 「양직공도」와 일본의 「일본서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다라국과 백제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감안하면, 대벽건물 또한 6세기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및 다라국 정치체의 지배체제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대벽건물지와 함께 성산토성 북서쪽에서 확인된 제사유구는 왕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중요한 유구이다. 제사유구의 형태는 작은 부정형의 수혈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구로, 이러한 유구의 성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수혈유구의 바닥 가까이에서 확인되는 소토와 인물형 토우의 존재는 이러한 유구가 제사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 이와 유사한 제사유구는 경남 고성의 동외동 패총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유적에서는 유적의 가장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크고 작은 수혈들과 함께 섬세한 문양이 시문된 조형문 청동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이러한 유구의 성격이 제사공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 특히 인물형 토우는 경주 덕천리 1호분 출토 기마인물형 토우와 기승복 및 형태가 유사하여 기마인물형 토우의 가능성이 있다. 토우가 발견된 제사유구는 지배층의 무덤인 옥전 고분군을 남쪽에서 바라보는 근거리 위치로 옥전 고분군과의 제의 측면의 관계성 또는 토성벽과 인접하여 조성된 점을 통해 성벽 축조 시 제사 의례 등을 가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구로 다라국 사람들 또는 가야인들의 정신 및 종교 의식세계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증 자료로서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나구역 제사유구 전경(좌) 및 13호 수혈(우)

나구역 제사유구(13호 수혈) 출토 토우(土偶)

8) 다라국의 고대 도시경관 복원 가능

○ 합천 성산토성은 군청소재지인 합천읍에서 24번 국도를 따라 초계면 방면으로 약 14㎞ 정도 가면 초계분지에 이르며, 이 초계분지의 북쪽에 위치하는 단봉산과 옥두봉 사이의 협곡을 지나면 황강변에 접한 해발 80m 정도의 낮은 야산이 자리한다. 현재 황강주변으로는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합천 성산리 토성은 이 야산 끝자락의 독립된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 성산토성이 소재한 합천군 쌍책면은 황강이 낙동강 본류와 합쳐지기 직전의 하류지역으로 낙동강 본류까지는 약 6㎞정도 떨어져 있다. 주위의 지세를 간단히 살펴보면 남쪽으로는 완만하게 흐르는 황강과 해발 200m의 단봉산을 사이에 두고 초계분지와 접해 있다. 이곳과 초계지역은 단봉산과 옥두봉 사이에 나 있는 협곡을 통해 왕래 교통할 수 있다. 또한 북쪽으로는 해발 200m 정도의 고개를 넘으면 긴 협곡을 통해 경북 고령군으로 연결되어 고대로부터 두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 널리 이용되었다. 또한 동·서쪽으로는 황강을 통해 합천과 창녕지역과 쉽게 연결된다. 따라서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고령과 창녕으로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 요지로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위치상의 유리한 점은 과거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정치체의 출연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은 다라국의 중심 유적으로서 구릉성 산지로 연결되어 있고, 토성이 독립된 구릉에 형성되었지만, 거리상 인접하여 있는 공간성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 유적이 다라국의 고분군과 중심공간으로서 일체적 관계로서 입지하고 있는 점은 가야의 다른 지역인 김해의 금관가야,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으로서 상호관계의 논의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 김해, 고령 등 대상유적지 주변으로 개발로 인해 잔존상태가 좋지 않은데 비해 성산토성의 경우는 경작으로 인한 상부 교란이 있을 뿐 원지형을 비교적 양호하게 간직하고 있으므로 더더욱 중요하다. 또한 주변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가야의 지배층의 중심공간에 비해 큰 하천인 황강과 접해 있고, 옥전 고분군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측면들에서 가장 빼어난 경관적 의미도 갖고 있다.

○ 김해, 고령, 함안지역 등에서도 계속해서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김해 봉황토성과 함안 가야리유적은 성곽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고, 대가야 궁성지에서도 대벽건물지와 토기, 기와 등이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구조를 명확히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이에 비해 성산토성은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져서, 성곽의 범위와 축성방법, 내부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확보되어 가야 최고지배층의 핵심공간으로서 다라국의 도시경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한 나라의 중심공간, 즉 최고 지배층의 핵심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여러 시설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조영제 2016).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성산토성에서 확인되거나 주변에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정무공간 政務空間(대벽건물터 등) ✓ 의례공간 儀禮空間(제사유구) ✓ 방어체계 防禦體系(羅城이나 垓子施設 등) ✓ 생활공간 生活空間(옥전 M11호분 봉분의 貝殼-貝塚의 존재 상정, 최근 시굴조사에서 가야시기의 주거군 확인) ✓ 주변 생산시설 生産施設(玉田과 玉생산. 多羅와 鐵생산. 수많은 토기생산 등) ✓ 선착장 船着場(절벽의 끝부분인 남서쪽 부분과 석성이 진행하는 면사무소 서쪽 부분에 있을 가능성)

○ 가야지역의 대표적인 성산토성(=多羅國城)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중소고분군의 분포, 대하천인 황강변의 입지, 주변 가야소국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가야소국들의 도시경관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다라국의 고대 도시경관 복원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성산토성의 보편적 가치

○ 합천 성산토성은 금년 9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합천 옥전 고분군과 인접하여 위치하는 황강변의 독립구릉에 위치하는 둘레 1.1㎞의 가야시기 성곽유적으로서, 남쪽과 동쪽, 북쪽 중앙부까지는 가야시기 석성, 급경사면에 해당하는 북쪽 중앙부~북서쪽은 토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은 자연절벽과 황강을 천연의 성벽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곽을 축조하였다.

○ 합천 성산토성은 황강변의 자연경관, 다라국 지배계층의 묘역인 옥전 고분군과 조합을 이루는 탁월한 역사문화적 원형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성산토성은 황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활용할 수 있는 고대 내륙 수운의 요충지로서 옥전 고분군을 위시하여 하위계층의 여러 고분군이 유적 주변을 둘러싸고 조성되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대 가야 정치체의 성장, 교류, 발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유적으로 입지와 분포양상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 가야의 각국 중심지에는 우월한 입지에 의한 거점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양상으로서 대규모 고분군과 성(城)이 일정 공간내에 함께 분포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가야와 신라권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 중에서도 고분군과 성이 동시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역국가로서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된다.

○ 고총고분군과 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금관가야의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봉황토성, 아라가야의 말이산고분군과 가야리유적,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연조리유적이 대표적이다. 신라권에서도 대구 달성고분군과 달성

토성, 구암동고분군과 팔거산성, 성산리고분군과 성산리토성 등 여러 곳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야의 각국에서 보이는 고분군과 성곽(지배층의 핵심공간)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다라국의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도 동일 성격의 네트워크 자료이다. 이러한 양상은 가야의 한 왕국으로서 다라국의 실존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점왕국으로서 위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를 보여준다.

○ 고분군과 성의 네트워크 구축은 다라국의 성립과 발전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가야 주요 국들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므로 가야 주요국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인식할 수 있다. 또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의 축조집단은 동시기성의 동일집단이기에 고분군과 성은 상호 일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산토성은 옥전 고분군 축조집단의 중요 거점공간으로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성산토성은 입지, 토성 및 석성의 축성기법, 대벽건물지, 주변 대형고분군의 분포현황과 황강수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임을 감안해 볼 때,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의 일반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또한 다른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성산토성만의 독특성을 갖추고 있어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성산토성의 입지는 황강변을 끼고 있는 독립구릉으로, 구릉의 남쪽은 곡류하는 황강에 의해 깊은 수심이 유지되어 근래까지 나루터로 이용되어 왔다. 이처럼 수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할 수 있는 지정학적 특징을 지닌 성산토성은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 후기에 황강수계지역의 정치적 관계의 전개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유적이기도 하다. 성산토성은 황강수계를 통한 교역을 통해 정치적 성장·발전을 이루면서 고령지역과 창녕지역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성장·발전·쇠퇴를 이룬 것으로 이해된다. 합천 성산토성과 옥전 고분군은 이러한 당시 이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그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2) 성산토성의 독특성

○ 합천 성산토성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엽에 축성된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핵심공간으로서 토성과 석성의 축성기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확연한 차이를 지닌 축성기법을 지녀, 가야 토성과 석성 축성기법의 실체를 규명하고 가야 토목기술이 가진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축성사례가 없는 토석양축성의 특징을 지니는 등 가야성곽의 축조 및 운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다.

○ 합천 성산토성은 대규모 인원 동원 및 고도의 축성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대형의 둘레, 배후의 가야 중심고분군, 평지와 낮은 구릉을 끼는 평산성의 형태, 연접한 수계 및 하천, 특수건물지의 조영 등, 제 가야의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이 지니는 공통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합천 성산토성 토성 축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다량의 할석과 석심을 사용한 석심토축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토성 체성벽은 45도 이상의 고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고구려, 백제, 신라 토성에 비해 보다 구조물의 안정성을 보강하고 외벽 안식각을 보다 급경사로 축조할 수 있게 하여, 토성의 방어력이 강화되는 가야의 우수한 축성기술이 반영되어 있다.

○ 합천 성산토성은 유적의 입지 및 출토유물 등을 통해 합천 옥전고분 고총고분 축조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며, 축성기법이 가야 고총고분군과의 기술적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토성 축조에 사용되는 다량의 할석과 내호석 형태의 석심은 합천 옥전 고분군 최전성기에 해당하는 M3호분 봉분 축조기술과 흡사하여 가야 축성기술의 기원과 고대토목기술을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합천 성산토성 토성은 목책성에서 목책 폐기 후 상부 다량의 할석 성토를 통한 수개축 단계로 운영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토성과 석성의 운영 형태 변화를 검토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성곽유적 사례에 해당한다. 석성의 경우 신라 축성기법에서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가야 축성기법이 다수 확인되어, 가야 석축 성곽의 전형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가야와 신라 석축 성곽의 차이와 우리나라 축성기술의 변천 및 기원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합천 성산토성에서는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대벽건물지 6동과 기마 인물형 토우가 확인되어 성산토성이 다라국 최고지배층의 핵심공간임을 알 수 있다. 대벽건물지는 백제 정지산유적이나 고령 연조리유적 등에서 발견되고 있어 일반적인 주거건물시설 보다는 특수 주거시설이나 관용건물시설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대벽건물지의 존재는 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대벽건물지는 백제권과 고령 연조리유적 등에서 30건 정도 발견되었으며 일본에서도 100건 정도 확인되고 있다. 이 대벽건물지는 공주, 부여, 익산 등 당시의 정치적 중심지에서 발견되는 빈도가 높으며 대부분 백제권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공주 정지산 유적의 경우 빈전 등의 특수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거주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일 가능성도 제기된다(權五榮·李亨源 2006). 일본에서도 유사한 건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일본의 벽주건물은 한반도, 특히 백제계 이주민집단과 관련된 취락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벽건물은 공주 정지산 유적 등 웅진·사비기 백제지역이나 일본 등 백제 영향권에서 주로 발견되는 백제식 건물 양식으로 주장되기도 하며(權五榮 2008: 5-49; 權五榮·李亨源 2006: 158-211), 이 대벽건물지는 존재는 다라국과 백제와의 직·간접적인 교류관계를 유추케 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 한편, 중소형의 부정원형 구덩이가 여러 개 합쳐진 형태로 다량의 유기물질을 태

운 흔적이 확인되고 인물형 토우가 발견된 제사유구는 성산토성의 북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지배층의 무덤인 옥전 고분군을 남쪽에서 바라보는 근거리 위치로 옥전 고분군과의 제의 측면의 관계성 또는 성벽 축조시 제사 의례 등을 가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구로 다라국 사람들 또는 가야인들의 정신 및 종교 의식 세계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증 자료로서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내부 유구를 가지고 있는 합천 성산토성은 성 자체의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내부 유구 또한 중요한 연구사례로 그 학술적 연구 가치가 풍부하다.

○ 성산토성은 인근한 다라국의 지배층 무덤인 옥전 고분군과 하위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다라리고분군 등과 함께 가야인, 특히, 다라국인의 일상을 총체적으로 연구 가능한 중요한 유적이다. 다라국인의 일상 영위와 삶의 공간인 합천 성산토성, 그리고 죽음의 공간인 옥전 고분군과 다라리고분군은 가야인의 일상과 정치, 교류 그리고 죽음·내세관 등 가야인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지금까지 알려진 많은 가야유적들은 개별적인 차원의 성격 규명이 이루어졌으나 합천 성산토성의 경우 주변 유적과 연관하여 가야 제국(諸國) 중의 하나인 다라국의 이해를 위한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하여 다른 가야 유적들과의 큰 차별성을 가진다. 다라국 정치체에 의해 구축된 합천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은 내륙 가야 정치체의 발전과 성장, 운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유적으로서 가야의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면적: 235필지 / 118,28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175-1	대	922	922		
2	〃	175-2	도로	198	34		
3	〃	175-3	대	138	138		
4	〃	175-4	도로	5	5		
5	〃	177-1	대	198	198		
6	〃	176-2	도로	53	7		
7	〃	178	대	233	233		
8	〃	178-1	묘	283	283		
9	〃	179-1	대	764	764		
10	〃	179-2	도로	10	10		
11	〃	180-1	전	1,481	1,481		
12	〃	180-2	묘	258	258		
13	〃	181-1	대	307	307		
14	〃	181-2	도로	17	17		
15	〃	182-1	대	753	753		
16	〃	182-3	도로	26	26		
17	〃	183-1	대	340	340		
18	〃	184	전	351	351		
19	〃	185	전	688	688		
20	〃	186	전	2,182	2,182		
21	〃	187	전	109	109		
22	〃	188	전	327	327		
23	〃	189	전	235	235		
24	〃	190	대	134	134		
25	〃	190-1	전	589	589		
26	〃	190-5	전	900	900		
27	〃	190-6	전	898	898		
28	〃	193	전	450	450		
29	〃	194	묘	1,312	1,312		
30	〃	195	임	965	965		
31	〃	196	대	611	611		
32	〃	196-1	도로	65	65		
33	〃	197	대	507	507		
34	〃	198	대	394	394		
35	〃	200	대	298	298		
36	〃	200-1	도로	2,034	1,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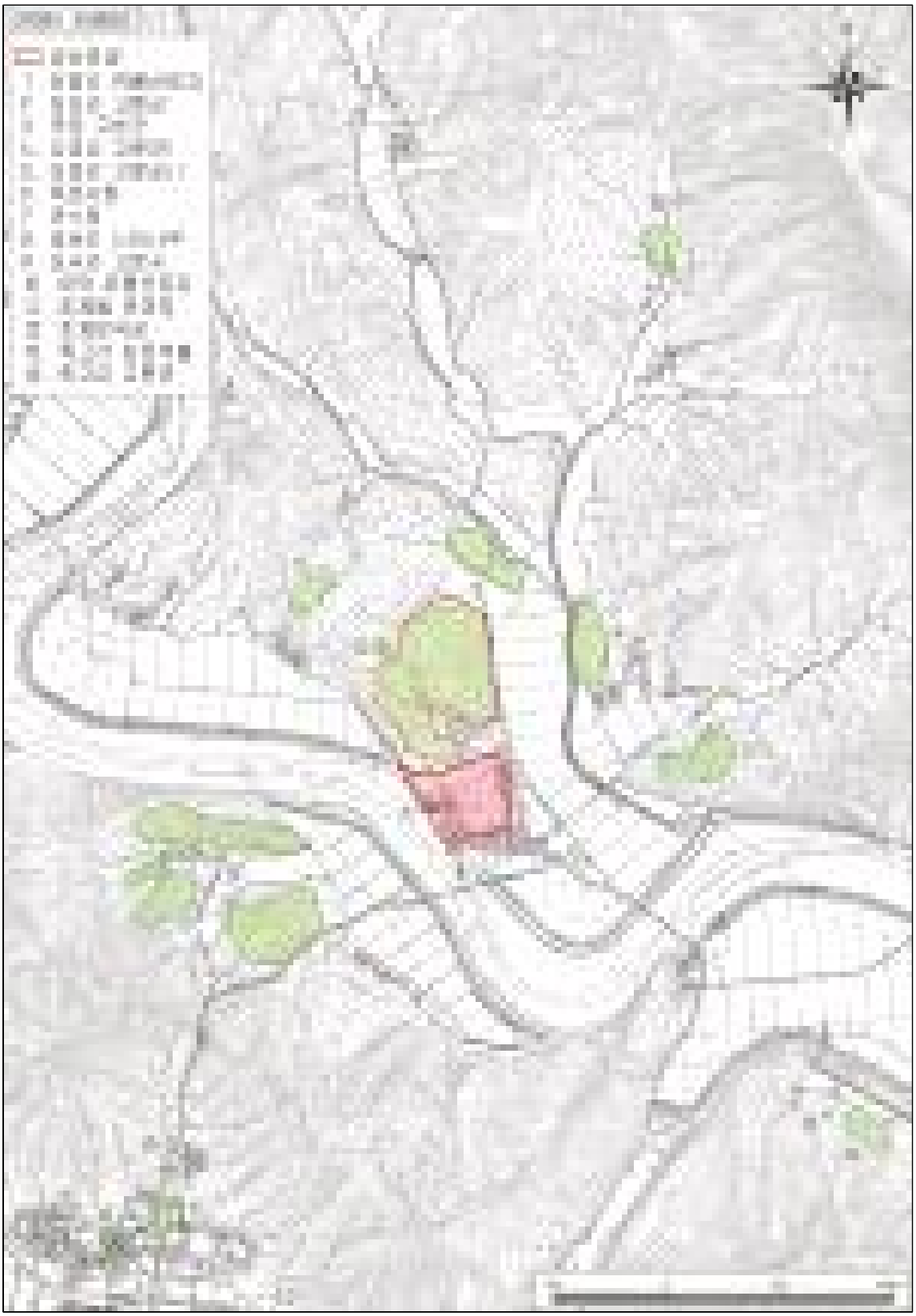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37	〃	200-2	대	8	8		
38	〃	201	대	189	189		
39	〃	202	대	90	90		
40	〃	203	임	304	304		
41	〃	204	임	744	744		
42	〃	205	임	339	339		
43	〃	206	대	76	76		
44	〃	206-2	대	5	5		
45	〃	206-3	대	12	12		
46	〃	207	대	192	192		
47	〃	208	대	32	32		
48	〃	208-1	대	34	34		
49	〃	209	대	49	49		
50	〃	209-2	대	16	16		
51	〃	210	대	77	77		
52	〃	210-2	대	20	20		
53	〃	211	대	41	41		
54	〃	211-1	대	42	42		
55	〃	212	대	167	167		
56	〃	212-1	대	3	3		
57	〃	212-2	대	2	2		
58	〃	213	대	494	494		
59	〃	213-1	도로	4	4		
60	〃	213-2	대	18	18		
61	〃	220	대	279	279		
62	〃	220-3	대	44	44		
63	〃	221	대	277	277		
64	〃	221-2	대	34	34		
65	〃	222	전	1,155	1,155		
66	〃	222-3	전	139	139		
67	〃	223-1	전	431	431		
68	〃	223-2	대	350	350		
69	〃	224-1	전	363	363		
70	〃	224-2	대	303	303		
71	〃	225	묘	1,213	1,213		
72	〃	226	대	532	532		
73	〃	226-2	전	193	193		
74	〃	512	전	1,615	1,615		
75	〃	512-2	전	65	65		
76	〃	513	전	2,082	2,082		
77	〃	514	전	149	149		
78	〃	515	전	2,261	2,26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79	〃	532	임야	411	411		
80	〃	535	대	248	248		
81	〃	536	대	830	830		
82	〃	537	대	494	494		
83	〃	537-1	도로	106	106		
84	〃	537-2	대	70	70		
85	〃	538	임	100	100		
86	〃	538-1	도로	39	39		
87	〃	539	대	265	265		
88	〃	539-1	대	26	26		
89	〃	540	대	413	413		
90	〃	541	대	1,082	1,082		
91	〃	541-1	대	52	52		
92	〃	542-1	전	582	582		
93	〃	542-2	임	195	195		
94	〃	542-3	전	1,236	1,236		
95	〃	542-4	임	499	499		
96	〃	543	묘	1,997	1,997		
97	〃	546	전	555	555		
98	〃	547	전	367	367		
99	〃	548-1	전	181	181		
100	〃	548-2	도로	129	64		
101	〃	548-3	전	281	281		
102	〃	548-5	전	250	250		
103	〃	549-1	도로	73	73		
104	〃	549-2	전	1,152	1,152		
105	〃	549-3	전	127	127		
106	〃	550	임	1,240	1,240		
107	〃	550-1	도로	287	287		
108	〃	551	임	880	880		
109	〃	551-2	도로	171	171		
110	〃	552	대	179	179		
111	〃	553	대	572	572		
112	〃	554	대	256	256		
113	〃	554-2	도로	91	91		
114	〃	555	대	221	221		
115	〃	555-2	도로	153	153		
116	〃	556	대	264	264		
117	〃	557	대	555	555		
118	〃	558	대	233	233		
119	〃	558-1	도로	14	14		
120	〃	559	대	179	17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21	〃	560	대	245	245		
122	〃	561	대	340	340		
123	〃	562	대	241	241		
124	〃	563-1	대	111	111		
125	〃	563-2	대	136	136		
126	〃	565	대	808	808		
127	〃	566	대	307	307		
128	〃	567	대	1,990	1,990		
129	〃	568	전	886	886		
130	〃	569	전	1,732	1,732		
131	〃	570	전	2,182	2,182		
132	〃	571	과	4,065	4,065		
133	〃	572	전	1,312	1,312		
134	〃	573	묘	701	701		
135	〃	574	전	195	195		
136	〃	575	전	385	385		
137	〃	575-1	전	567	567		
138	〃	576	대	230	230		
139	〃	576-1	대	58	58		
140	〃	577-1	전	345	345		
141	〃	577-2	대	200	200		
142	〃	577-3	전	169	169		
143	〃	577-4	전	298	298		
144	〃	577-5	도로	125	125		
145	〃	578	대	322	322		
146	〃	578-1	도로	139	139		
147	〃	579-1	대	420	420		
148	〃	580	대	268	268		
149	〃	581	대	280	280		
150	〃	582	대	148	148		
151	〃	583	대	327	327		
152	〃	584	대	103	103		
153	〃	584-1	대	165	165		
154	〃	585	대	112	112		
155	〃	586	대	298	298		
156	〃	587	대	532	532		
157	〃	588	대	501	501		
158	〃	588-1	대	85	85		
159	〃	588-2	대	39	39		
160	〃	589-1	묘	2,431	2,431		
161	〃	589-2	묘	102	102		
162	〃	589-4	도로	85	8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63	〃	589-5	묘	392	392		
164	〃	589-6	묘	600	600		
165	〃	590	대	366	366		
166	〃	590-1	대	218	218		
167	〃	590-4	도로	51	51		
168	〃	591	답	109	109		
169	〃	592	대	359	359		
170	〃	592-1	대	220	220		
171	〃	592-2	대	115	115		
172	〃	593	답	175	175		
173	〃	594	도로	301	301		
174	〃	595	대	219	219		
175	〃	595-1	대	366	366		
176	〃	595-2	대	115	115		
177	〃	595-3	도로	27	27		
178	〃	596	대	446	446		
179	〃	596-2	대	204	204		
180	〃	597-1	구거	173	173		
181	〃	597-2	전	876	876		
182	〃	597-5	대	119	119		
183	〃	599-1	도로	69	69		
184	〃	599-2	대	374	374		
185	〃	600-1	도로	126	126		
186	〃	600-2	전	149	149		
187	〃	600-3	전	132	132		
188	〃	601-2	도로	7	7		
189	〃	601-4	대	344	344		
190	〃	602	대	1,878	1,878		
191	〃	602-1	도로	1	1		
192	〃	602-2	도로	21	21		
193	〃	603-3	도로	23	23		
194	〃	604-1	대지	21	21		
195	〃	604-3	도로	46	46		
196	〃	604-4	대	25	25		
197	〃	607-1	대	81	81		
198	〃	607-3	도로	38	38		
199	〃	608	대	408	408		
200	〃	608-1	대	680	680		
201	〃	608-2	도로	107	107		
202	〃	608-4	대	84	84		
203	〃	609	전	1,342	1,342		
204	〃	610	전	777	77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205	〃	611	전	225	225		
206	〃	612	대	633	633		
207	〃	612-1	대	587	587		
208	〃	613	전	1,379	1,379		
209	〃	614	전	1,527	1,527		
210	〃	615	전	2,069	2,069		
211	〃	616-1	목	134	134		
212	〃	617	전	817	817		
213	〃	619	전	972	972		
214	〃	620	전	2,288	2,288		
215	〃	621	임	175	175		
216	〃	622	전	1,263	1,263		
217	〃	622-1	전	46	46		
218	〃	623	전	863	863		
219	〃	624	전	1,081	1,081		
220	〃	625	전	1,810	1,810		
221	〃	625-1	전	127	127		
222	〃	625-2	전	430	430		
223	〃	626	임	466	466		
224	〃	627	전	1,544	1,544		
225	〃	628	전	1,448	1,448		
226	〃	629	전	592	592		
227	〃	630	전	1,279	1,279		
228	〃	631	전	1,412	1,412		
229	〃	632-1	전	1,613	1,613		
230	〃	633	대	1,120	1,120		
231	〃	633-1	도로	40	40		
232	〃	648-2	도로	2,097	1,566		
233	〃	648-12	도로	665	20		
234	〃	648-14	도로	2,042	213		
235	〃	산 36	임	4,486	4,486		
합 계		235필지 118,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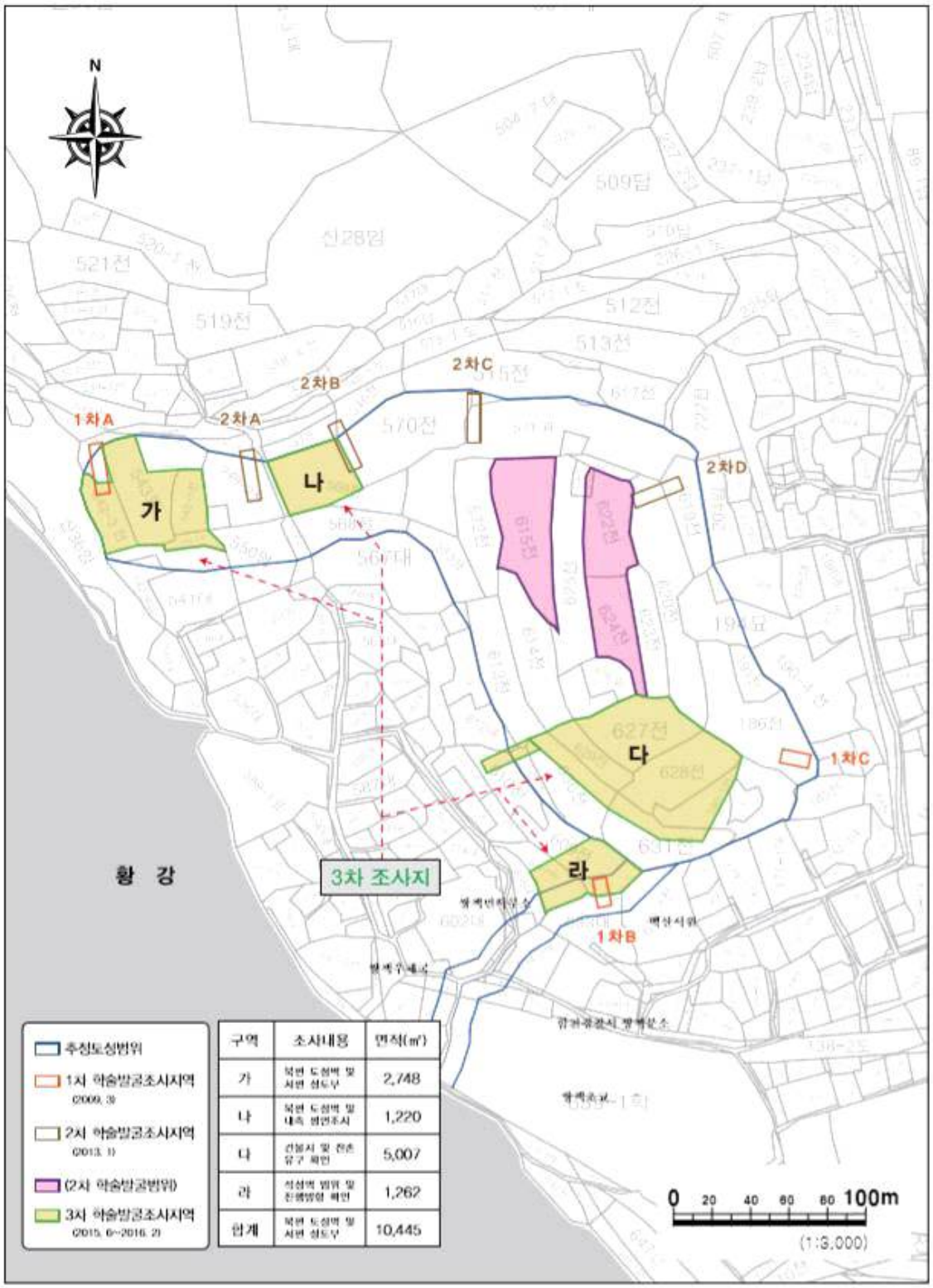
합천 성산토성과 주변유적분포도(1/25,000)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정 신청범위(안) - 지적도(1/5000)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정 신청범위(안) - 위성지도(1/5000)

성산토성 전경

옥전 고분군
성산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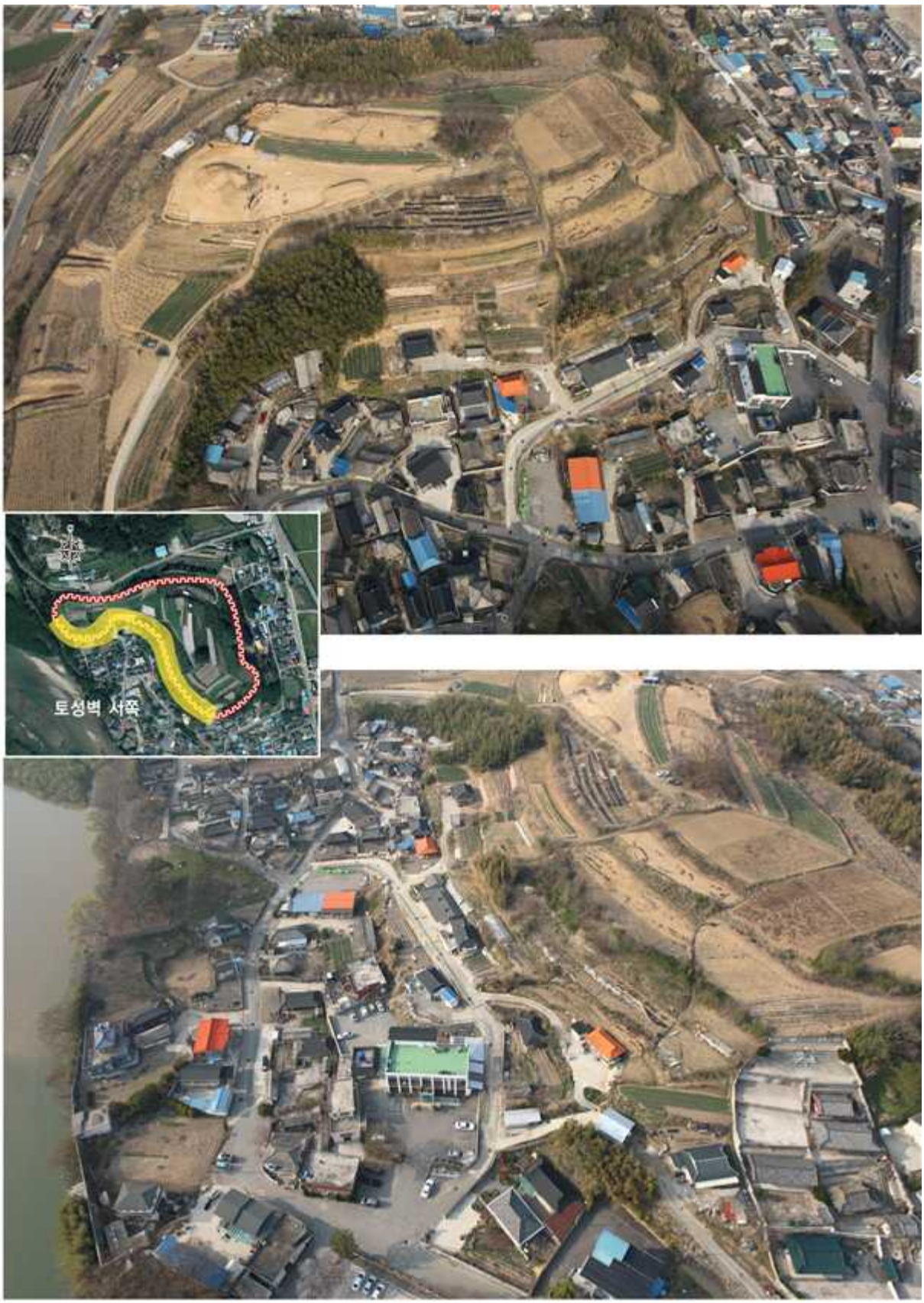


추정도성범위
1차 학술발굴조사지역 (2009. 3)
2차 학술발굴조사지역 (2013. 1)
(2차 학술발굴범위)
3차 학술발굴조사지역 (2015. 6~2016. 2)

구역	조사내용	면적(㎡)
가	북편 도성벽 및 서편 성도부	2,748
나	북편 도성벽 및 내측 범위조사	1,220
다	건물지 및 전초 유구 확인	5,007
라	성성벽 범위 및 진행방향 확인	1,262
합계	북편 도성벽 및 서편 성도부	10,445

성산토성 항공사진

토성의 서북쪽 성벽부 전경 및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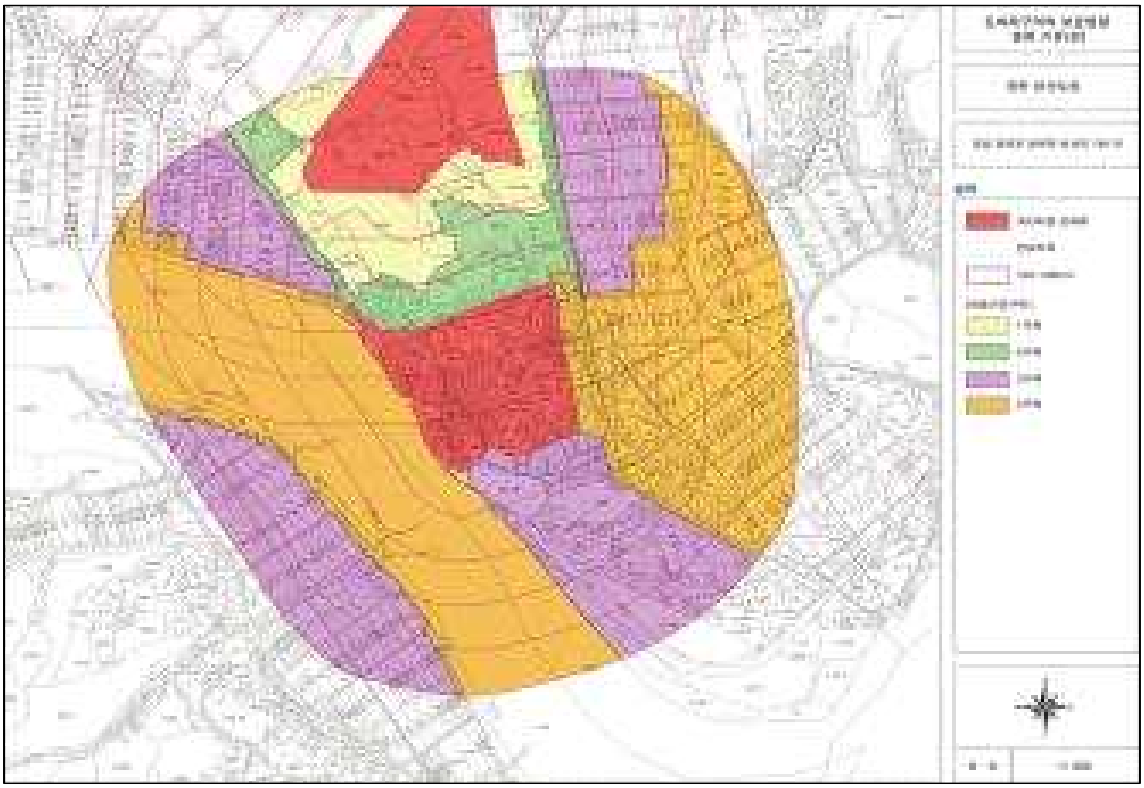
토성의 서쪽 성벽부 전경

토성의 남쪽 성벽부 전경

토성의 동쪽 성벽부 전경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옥전고분군과의연계성을 고려할 때, 성산토성과의 시각적인 연결이 필요하며, 황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검토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합천 성산토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가) 유적 보존 및 정비 계획

1) 합천 성산토성 정비·보존 계획 수립

○ 합천 성산토성은 2009년에「가야 도성 복원 및 다라국 역사지구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옥전 고분군 축조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온 성산토성의 복원·정비를 계획하였고,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 학술 발굴조사는 2009년, 2013년, 2015~2016년 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결과 토성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다. 조사에서는 토성 외에 대벽건물지, 제사유구 등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어 이 지역이 다라국의 최고지배층의 핵심 공간임을 입증해주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 이에 합천군에서는 합천 성산토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자료 수집 정리 및 성산토성 보존, 정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5년 11월 4일~2016년 7월 3일 까지 '합천 성산토성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였다.

○ 학술용역의 세부 절차는 기초조사-자료정리 및 분석-보존 정비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기본방향은 성산토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역사적 가치 및 중요성을 검토하고 인접한 합천 옥전 고분군과 함께 주변 경관을 아우르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학술용역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자문회의와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여 연구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을 보완, 정리하였다. 2016년 2월 23일에 1차 자문회의, 2016년 3월 28일에 중간보고 및 2차 자문회의, 2016년 4월 29일에 3차 자문회의, 2016년 6월 17일에 합천 다라국성 및 옥전 고분군 전문가포럼을 개회하였다. 2016년 5월 27일에는 '합천 다라국성'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성산토성의 역사적 가치 및 중요성을 학계 및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정 학술연구용역(2015~2016년) 자문회의 추진 현황**

날 짜	행사명	주요 참석인원	장 소
2016년 2월 23일	관련 전문가 1차 자문회의	* 자문위원 : 조영제(경상대학교 교수) 이영식(인제대학교 교수) 박승규(영남문화재연구원 원장) 남재우(창원대학교 교수)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 관장) * 합천군 관계공무원,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합천 성산토성 유적 현장 합천박물관 대강당
2016년 3월 28일	관련 전문가 2차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	* 자문위원 : 조영제(경상대학교 교수) 남재우(창원대학교 교수) 김형곤(동서문물연구원 원장) 전정석(합천문화원 원장) * 합천군 관계공무원,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합천군청 회의실
2016년 4월 29일	관련전문가 3차 자문회의	* 자문위원 : 조영제(경상대학교 교수) 류창환(극동문화재연구원 원장) 정징원(부산대 명예교수) 심정보(한밭대 명예교수) * 합천군 관계공무원,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합천박물관 대강당
2016년 6월 17일	전문가포럼	* 자문위원 : 이영식(인제대학교 교수) 남재우(창원대학교 교수) 김무중(중원문화재연구원 원장) 신종환(대가야박물관 관장)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 관장) * 합천군 관계공무원,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합천박물관 회의실

○ 이후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체성부가 확인되지 않는 성산토성의 남쪽구간에 대해 추가적인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합천지역의 가야문화 연구·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성산토성에 대한 문화재 학술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토성의 범위와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국가 사적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나아가 유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 2018년도 12월과 2019년도 1월에 각각 학술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체성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성산토성의 남쪽구간에서 석성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성 내부에서 가야시기의 주거지가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최신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2019년 4월 성산토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두 번째 학술대회 '다라국의 도성 城山'을 개최하여 성산토성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도출해내고 사적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 이후 2020년 5월~10월, 2021년 2월~5월에 각각 남동쪽과 북동쪽 회절구간의 체

성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를 통해 남동쪽과 북동쪽 회절구간에서도 모두 석성으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신라석축 성곽 및 통일신라석축 성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가야성곽 만의 독특한 축조공법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2022년 1월에 합천 성산토성 국가사정 지정 학술대회'城山'를 개최하여, 합천 성산토성과 제가야성곽, 신라성곽, 백제성곽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성산토성의 사적지정의 가치와 당위성에 대해 재정립하게 되었다.

1차 자문회의(2016.2.23.)

2차 자문회의(2016.3.28.)

3차 자문회의(2016.4.29.)

전문가 포럼(2016.6.17.)

2) 학술대회 개최

○ 합천군에서는 성산토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현재까지 총 2차례의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1차 학술대회는 2016년 5월 27일에 합천 다라국성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합천 다라국성』를 개최하였다. 학술세미나에는 관련연구자, 합천군민, 합천박물관 회원, 합천군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3명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주제발표 내용은 다라국성 발굴조사 성과와 의미, 백제왕도유적 풍납토성의 특징과 조사, 보존현황, 다라국성 사적지정과 향후 관리, 활용방안이다.

○ 학술세미나 개최 결과, 다라국성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을 볼 때 조속한 사적지정이 필요함에 대한 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의 의견 일치가

있었다. 다라국성은 그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는 유일한 가야시대의 성곽유적으로 그 역사적·학술적 중요성과 가치가 매우 크며 조속한 사적지정과 함께 철저히 보존·관리 되어야 함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기존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다라국성의 구체적인 축성 시기와 성격이 명확히 밝혀졌고, 토층에서 출토된 토기의 편년 연구와 옥전 고분군의 연구에 따른 다라국의 발전과 성장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축조시기는 5세기 후반경으로 볼 수 있다. 다라국성은 다라국의 치소 즉 왕성으로 그 성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이는 가야시대 왕성 유적으로 확인되는 유일한 예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차 학술대회는 2019년 4월 24일 합천박물관 대강당에서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다라국의 도성 城山』을 개최하였다. 합천군민을 비롯한 관련연구자, 경상남도 각 지자체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비롯하여 기조강연과 5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내용은 합천 성산토성의 구조와 특징,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의 관계, 가야 제국의 공간 구조와 성, 가야성곽과 신라성곽의 축성수법 비교연구, 성산토성의 보존·활용 방안이다. 토론은 성곽연구 전문가, 고대사연구자, 합천군 담당자를 비롯하여 합천군민들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산토성의 국가사적 지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합천 성산토성이 다라국성의 역사적 실체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유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성산토성은 가야 성곽의 축성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대벽건물지와 제사공간의 확인 등 다라국의 중심공간으로서 그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된 가야시대의 성곽유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에 모두 의견을 같이하였다.

○ 3차 학술대회는 2022년 1월 21일 합천박물관 대강당에서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정 학술대회 『城山』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발표자와 토론자, 학술대회 진행자만 현장 참여를 하였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지역민들과 학계연구자들이 학술대회에 참여하였다. 2차 학술대회 이후 2차례의 학술 발굴조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어 이에 따른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포함하여 모두 4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내용은 합천 성산토성 최신 발굴조사 성과, 성산토성과 가야성곽과의 비교, 성산토성과 신라성곽과의 비교, 성산토성과 백제성곽과의 비교, 성산토성의 사적 지정 가치와 특징에 대한 내용이다. 토론은 가야・신라・백제의 고대 성곽연구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토론을 펼침으로써 합천 성산토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적 지정 가치와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1차 학술대회 모습(2016.5.27.)

2차 학술대회 모습(2019.4.24.)

3차 학술대회 모습(2022.1.21.)

▶ 학술대회 개최 세부 내용

날 짜	행사명	주요 참석인원	장 소
2016년 5월 27일	합천 다라국성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합천 다라국성』	기조강연> 조영제(경상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김형곤(동서문물연구원 원장)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 전시기획과장) 한상우(경남발전연구원 조사연구위원) 종합토론> 조영제(좌장) 남재우(창원대학교 교수) 조원영(합천박물관 관장) 박승규(영남문화재연구원 원장)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 관장) 발표자 전원 합천군민 및 관련연구자 등 150명 정도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2019년 4월 24일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다라국의 도성 城山』	기조강연> 조영제(경상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이재명(경남발전연구원 전문조사원) 박승규(가야문물연구원 상임이사) 박성현(계명대학교 교수) 노재헌(국방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한상우(경남발전연구원 조사연구위원) 종합토론> 정의도(좌장-한국성곽학회 회장) 구형모(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류창환(극동문화재연구원 원장) 이동희(인제대학교 교수)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 관장) 박준현(합천군 문화예술과 학예사) 발표자 전원 합천군민 및 관련연구자 등 200명 정도	합천박물관 대강당
2021년 1월 21일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정 학술대회 『城山』	주제발표> 이재명(경남연구원 조사연구위원) 최관호(한국선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혁희(한성백제박물관 학예사) 심광주(한국토지주택박물관 관장) 종합토론> 박종익(좌장-前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김세종(목포대학교박물관 연구원) 심종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안성현(중부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나동욱(복천박물관 관장) 발표자 전원 코로나19에 따른 유튜브 생중계	합천박물관 대강당

3) 발굴조사와 학술자문회의・현장공개회 개최

○ 합천 성산토성에 대해 2009년에 실시한 시굴조사 결과 기존 지표조사 등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가야시기 토성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남쪽 구간에서는 석성도 일부 확인되었으며, 성지 내부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점토대토기단계의 수혈주거지 1동도 조사되었다.

○ 이후 2013년도 조사는 2009년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토성의 단면 구조 및 토성 내부의 중심 건물지 확인을 위해 토성 북쪽의 성벽 5개 지점에 대한 트렌치조사와 토성 내부 중심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릉 정상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성산토성은 기저부 정지에서부터 토루의 성토까지 크게 4단계의 축조공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구릉 정상부에서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지만 5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되는 대벽건물지와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 조사를 진행하면서 총 3차례의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1차 학술 자문회의는 2013년 2월 22일 실시하였고, 자문위원은 조영제(경상대학교 박물관장), 이범홍(전,경상남도 문화재위원), 박종익(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장) 선생님이다. 2차 학술 자문회의는 2013년 4월 4일 실시하였고, 자문위원은 권오영(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이한상(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박천수(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선생님이다. 3차 학술 자문회의는 2016년 4월 15일 개최하였으며, 자문위원은 조영제(경상대학교 박물관장), 이범홍(전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박종익(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장), 류창환(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장) 선생님 등 가야고고학과 성곽분야에 정통한 분들이 조사된 유구의 성격 및 향후 조사계획에 대한 학술적 지도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 2015~2016년도 조사는 기존 1, 2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성산토성의 북벽 토성벽과 남쪽 후축 석성의 구조 및 토성 내부 시설 등을 밝히기 위하여 발굴조사는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토성 북쪽에 해당하는 가·나구역에서는 트렌치 조사를 통해 성벽에 대한 평, 단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 수혈 및 제사유구가 확인되는 부분은 확장 및 제토를 진행한 후 내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구역 역시 트렌치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유구가 확인되는 부분을 제토·확장하여 조사하였고, 라구역은 기조사에서 석성벽이 확인된 부근으로 석성벽의 진행방향과 내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성산리 토성의 범위는 구릉 정상부의 모양을 따라 'ㄱ'자상의 형태에서 황강변을 포함하는 공간까지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토성의 구조에서 내부에 석축열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중요 성과가 있었고, 토성은 2차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양상과 같이 4단계에 걸친 축조 공정이 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또한 토성 내부에는 대벽건물지와 제사유구가 확

인되었다.

학술자문위원회 광경

○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총 2차례에 걸친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유적의 보존대책 및 향후 처리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1차 학술 자문회의는 2015년 8월 25일 실시되었으며, 자문위원은 조영제(경상대학교 박물관장), 신경철(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심정보(한밭대학교 교수), 나동욱(부산박물관) 선생님으로 구성하였고, 2차 학술 자문회의는 2016년 2월 23일 실시되었으며, 자문위원은 조영제(경상대학교 박물관장), 이영식(인제대학교 교수), 박승규(영남문화재연구원 원장), 박종익(중원문화재연구소 소장), 심정보(한밭대학교 명예교수), 남재우(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나동욱(부산박물관), 안성현(고려문화재연구원) 선생님으로 구성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동쪽 토성벽과 남쪽의 방어라인, 성안의 건물지나 시설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기에 사적 지정과 보호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후,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의견에 따라 체성부의 성격 및 유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성산토성 남쪽구간에 대해 2018년 11~12월에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2018년 11월 29일 학술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자문위원은 이영식(인제대학교 교수), 조영제(경상대학교 교수),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 관장) 선생님으로 구성되었다. 자문회의를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가야시기의 석축으로 추정되는 체성부의 기초와 몇단 정도의 석축을 확인하였고, 발굴조사 성과를 성산토성 종합정비방안 설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또한 성벽의 진행방향과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남서쪽의 원지형 잔존구간에 대한 추가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19년 2~3월에 추가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추가 시굴조사 결과 성산토성 남쪽의 석축성벽과 연결되는 성벽을 찾기 위해 5개의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가야시기의 주거지와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 학술 자문회의는 2019년 3월 7일에 실시하였고, 자문위원은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 관장), 류창환(극동문화재연구원 원장) 선생님이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와 향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산토성은 옥전 고분군과 관련된 관방, 취락유적으로서 옥전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후 2019년 11월 28일 합천 성산토성 사적지정을 위한 문화재청 현지심사 결과, 토성과 석성의 기조사내용의 분석과 더불어 토축과 석축의 동시 축조 가능성과 토축을 후대에 석성으로 부분 수·개축 가능성이 있어 토성구간과 석성구간의 경계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5년 학술 자문회의 및 마을주민 설명회 모습

○ 이에 합천군에서는 추가 학술 발굴조사를 계획하였고, 2020년 5~10월과 2021년 2~5월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발굴조사는 남동쪽 성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 석성부분이 추가로 연장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2020년 10월 13일에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된 석성이 가야시기의 석성으로 추정되고, 토성과 석성이 모두 확인되므로 차후 문화재명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2021년 발굴조사는 성산토성 북동쪽 회절구간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성산토성의 북동쪽 구간 또한 석성임을 확인하였고, 2021년 4월 1일에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신라석축 성곽 및 통일신라 석축성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가야성곽 만의 독특한 축조공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 이외에도 발굴조사에 따른 농작물 보상, 복토 및 제반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신 쌍책면 성산리 주민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또한 주민 현장 설명회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 및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성산토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학술 자문회의 모습1

2020년 학술 자문회의 모습2

4) 토지매입 계획

○ 합천 성산토성은 사적의 조속한 지정과 함께, 현재까지 드러난 유적의 전체 현황을 바탕으로 유적의 토지 매입을 통해 각종 관리행위를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 합천군에서는 성산토성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 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토지 매입은 유적의 보존·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이를 통해 구체적인 보존·관리 행위와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 현재 문화재 사적지정 신청 구역에 대한 토지현황은 235필지 118,281㎡ 이다.

○ 합천 성산토성의 사적지정 신청구역의 토지는 군·국유지가 8.1%이고, 사유지는 91.9%로 대부분 사유지에 해당된다. 군에서는 사유지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정 면적을 구획하여 매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 토지 매입은 우선적으로 구릉을 중심으로 한 발굴조사된 지역을 포함하여 민가

가 없는 비거주지역의 우선 매입을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대상범위 전체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유구가 확인된 곳은 유적(구) 보존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

▶ 합천 성산토성 국가사적 지정 신청구역의 토지 현황

구 분	지번(필지)	면적	비율(%)
총면적	235	118,281㎡(35,780평)	100
군, 국유지	43	9,605㎡(2,906평)	8.1
사유지	192	108,676㎡(32,874평)	91.9

▶ 합천 성산토성 군·국유지 토지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175-4	도로	5	5		23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594	도로	301	301	
2	〃	196-1	도로	65	65		24	〃	595-3	도로	27	27	
3	〃	200-1	도로	2,034	1,663		25	〃	600-2	전	149	149	
4	〃	206-2	대	5	5		26	〃	600-3	전	132	132	
5	〃	209-2	대	16	16		27	〃	601-2	도로	7	7	
6	〃	213-1	도로	4	4		28	〃	601-4	대	344	344	
7	〃	221-2	대	34	34		29	〃	602	대	1,878	1,878	
8	〃	512-2	전	65	65		30	〃	602-1	도로	1	1	
9	〃	537-1	도로	106	106		31	〃	602-2	도로	21	21	
10	〃	538-1	도로	39	39		32	〃	603-3	도로	23	23	
11	〃	548-1	전	181	181		33	〃	604-3	도로	46	46	
12	〃	548-5	전	250	250		34	〃	607-3	도로	38	38	
13	〃	550-1	도로	287	287		35	〃	608-2	도로	107	107	
14	〃	551-2	도로	171	171		36	〃	608-4	대	84	84	
15	〃	554-2	도로	91	91		37	〃	622-1	전	46	46	
16	〃	555-2	도로	153	153		38	〃	625-1	전	127	127	
17	〃	558-1	도로	14	14		39	〃	626	임	466	466	
18	〃	577-5	도로	125	125		40	〃	633-1	도로	40	40	
19	〃	578-1	도로	139	139		41	〃	648-2	도로	2,097	1,566	
20	〃	579-1	대	420	420		42	〃	648-12	도로	665	20	
21	〃	589-4	도로	85	85		43	〃	648-14	도로	2,042	213	
22		590-4	도로	51	51		계	43필지 9,605㎡					

합천 성산토성 범위 내 토지매입 단계도(안)

나) 문화재 보존 및 활용계획(안)

1) 유적 보존 및 정비 계획

(1) 유적 기본현황

○ 현재 합천 성산토성은 2018년 이전까지 3차례 정도의 시·발굴조사가 진행된 이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2018년 10월에 성산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상남도 기념물 제293호로 지정되었고, 합천군에서는 성산토성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해 발굴조사 및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2021년까지 4~7차 학술 발굴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유적의 범위와, 구조, 축조공법이 좀더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다. 현재 발굴조사 후 대상지역은 복토가 행해져 발굴지에 대한 흔적이나 정보를 알기는 어렵지만, 유적에 대한 안내판과 이정표 등은 설치되어 있다. 탐방로와 화장실 등의 유적 체험을 위한 방문객 편의시설은 없으나,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는 옥전 고분군과 합천박물관에 방문객 편의시설이 있다.

○ 유적은 발굴조사 후 대부분 경작지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곽 유적지와 주변 민가와의 명확한 경계가 없고 유적지의 정확한 전체 범위 및 주변경계 표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적 보존·관리상의 어려움과 함께 주변으로부터의 다양한 유적 잠식 위험이 상존한다.

○ 현재 합천 성산토성 범위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공식적인 유적 관리 행위가 쉽지 않아 지속적인 멸실과 파괴의 위험에 처해져 있다. 토지 매입 등을 포함하여 조속한 보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유적 보존 및 정비계획

○ 사적 지정과 함께 현재까지의 몇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연구성과를 토대로 합천 성산토성 보존·정비 계획 및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적 기본정비 및 복원 계획안, 추가 학술조사계획안 등을 수립하여 합천 성산토성의 원형 보존과 역사적 그리고 학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목적으로의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2) 관련 유적 검토

(1) 함안 가야리유적(사적)

○ 함안 가야리유적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리 289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함안 가야리유적은 1587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읍지 『함주지(咸州誌)』에 따르면, '고국유지(古國遺址) 백사리 부존정의 북쪽에 옛 나라의 터가 있는데, 둘레가 일천육백육척으로 그 축조된 빈터가 지금도 완연하나 전해오는 말에 가야국의 옛터라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이후 『東國與地誌』, 『嶠南誌』등에도 각각 ‘古國墟’, ‘古國遺基’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와 1995년·2000년·2013년 지표조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아라가야 왕궁지로 지목되어 온 곳이다. 2008년과 2011년에 연꽃생태공원 조성부지 발굴조사에서 가야리 제방유적을 확인한 이래, 2018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가야리유적 중심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문헌기록과 지표조사를 통해 추정되어 왔던 아라가야 왕궁지의 실체를 비로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토성벽과 그 상부에 2열의 목주열이 확인되었고, 내부에서 가야시기 고상건물지 2동, 수혈건물지 12동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수혈건물지 내부에서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토기편과 철제 무기류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토성의 규모는 조사구역 내로 한정하면, 전체 높이는 약 10m이며, 상부 폭 20~40m 내외이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 가야리유적은 김해의 봉황토성과 합천의 성산토성, 고령 대가야왕궁지의 입지가 해안과 하천을 끼고 독립된 구릉상에 위치하고 주변에 중심고분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함안 아라가야 왕궁지 역시 비슷한 지형·지세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독립된 저구릉의 정상부는 편평하게 조성되어 있고, 도성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관망에 유리한 것도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가야리유적 전경

가야리유적 발굴조사 전경(左) 및 1호 건물지(右)

○ 2018년도에 수립된 가야사 복원을 위한 ‘경상남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함안군에서는 가야복합유적 복원정비와 관련하여 가야리유적, 봉산산성, 말이산고분군(남문외고분군) 등을 대상으로 함안 아라가야 역사연구 및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가야리유적은 정밀지표조사, 학술 발굴조사, 학술대회 등을 통해 유적의 성격 규명과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김해 봉황토성, 합천 성산토성, 고령 대가야왕궁지 등과 함께 가야의 대표적인 최고지배층의 핵심공간 유적으로,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2) 김해 봉황동유적(사적)

○ 김해 봉황동유적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12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금관가야의 왕궁 및 도성 내부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현재 사적 제2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봉황동유적과 회현리패총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봉황대 구릉은 남-북으로 뻗은 독립성 저구릉으로 서쪽은 해반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북쪽에는 대성동고분군이 위치한다. 구릉은 전체적으로 서쪽과 남쪽의 경사가 급하고 동쪽과 북쪽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 김해 봉황동유적은 일제강점기 이마니시(今西龍), 우메하라(梅原末治), 하마다(濱田耕作) 등에 의해 수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로 널리 알려졌다. 1991년 사적 지정 구역을 제외한 구릉 전체를 대상으로 시굴조사와 1992년 진입로 개설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구릉 정상부에는 환호와 주거지, 경사면에는 패총, 구릉 아래쪽 평지에는 환호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2~2004년 경남발전연구원, 2003년 경남고고학연구소, 2004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하여 봉황동유적 주변에서는 2022년 현재까지 70여 차례의 시·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청동기시대~삼국시대의 주거지, 환호, 토성 등 생활유적과 야철지, 토기가마터 등 생산시설, 고상건물지, 항구의 접안시설 등 교역과 관련된 시설, 매장시설 등 다양한 유적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봉황토성의 조사는 연차적으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금관가야 고도(古都)의 중심지로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이동식 부뚜막, 소형토기 등 삼국시대 전후 시기의 다양한 토기와 세형동검, 동사(銅鉈) 등 청동제품, 중국 한나라 화폐인 화천(貨泉), 고선박 부재, 노(櫓), 토우, 붓, ‘論語’ 문구가 쓰여 있는 목간 등이 있다(민경선·김다빈 2018: 106-141).

○ 김해시는 봉황동 316번지 일원에 대해 2007~2030년에 걸쳐 가야왕궁 복원(봉황동유적 확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규모는 기존면적 113,849㎡에서 118,151㎡를 추가하여 면적 232,000㎡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 봉황동유적 전경 안내도(上: 김해시청), 봉황토성 전경(下: 경남고고학연구소)

○ 연도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 4월에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 및 2020년도 국비 신청, 2020년 부지매입·발굴조사·복원정비 설계, 2021년 부지매입·탐방로 조성, 2022년에는 왕궁터 복원과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김해시는 가야왕궁 복원으로 가야문화의 역사적 가치 향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유적의 실체 복원으로 관광자원화 및 상징적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김해시청 홈페이지 참조).

(3) 고령 傳대가야궁성지

○ 고령 傳대가야궁성지는 고령읍 주산에 위치한 산성과 지산동고분군을 뒤로하고 고령읍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해발 50m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상의 대지상에 입지한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북에서 남으로 대가천이 흐르고, 남쪽은 서에서 동으로 안림천이 흐르며, 이들이 합류하여 낙동강에 이른다. 주산에서 동쪽의 대가야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읍내까지 이어져 있는 연조리 설상대지 일대에 관련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김세기 2013: 57-95).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9권 고령현 고적조에 의하면 '현의 남쪽 일리에 대가야 궁궐지가 있고 그 옆에 우물이 있는데 세상에서 어정이라고 전한다' 라는 기록이 있으며, 설상대지(舌狀臺地)의 동쪽 모서리 쪽에는 구신정지(九臣亭址)가 있고 그 동쪽 끝의 밖으로 통하는 곳에는 연조문(延詔門)과 가야성문루(伽倻城門樓)가 있었다고 전한다.

○ 대가야궁성지는 2000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시·발굴조사를 통해 대형 대벽건물지와 6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되는 와즙건물지(瓦葺建物地)가 조사되면서 그 실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대형뚜껑, 대야형 완, 시루, 통형

기대 등이다. 다만 대벽건물지가 위치한 설상대지의 능선부는 후대에 대부분 지형이 암반층까지 평탄하게 삭평된 상태였으므로 궁성으로서의 전반적인 면모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 2016년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궁성지 북사면에 접해 있는 연조리 594-4번지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는 궁성의 방어시설인 해자로 추정되는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이후 2017년 표본조사 범위를 비롯한 궁성지 주변부 시·발굴조사를 통해 북쪽 경사면 아래에서 성을 방어하는 해자(垓字)시설과 토축(土築)성벽이 구축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가온문화재연구원 2017a).
- 2017년에 실시한 연조리 563-2번지 일원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2지점 1·2트렌치에서 궁성지 관련 유구로 추정되는 석축열과 토축이 동쪽 약 50m 거리에서 기 조사된 연조리 594-4번지 유적과 연결되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가온문화재연구원 2017b). 2018년 연조리 563-3번지 일원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1지점 3트렌치에서 앞서 조사된 양상과 동일한 성벽으로 추정되는 석렬과 구신정지(九臣亭址)로 추정되는 연조리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대가야시대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일부 확인(가온문화재연구원 2018)되는 등 고령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가야궁성지 범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13년 12월에 문화유적 보존과 도시숲 조성으로 인한 경관 창출 등을 위하여 민선5기 공약사업인 경상북도 문화재 제229호로 등록된 고령향교 일대(대가야궁성지)의 면적 24,500㎡에 ‘연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는데, 공원 내 주요 시설로는 생활체육시설, 데크로드 조성, 수목식재 107,000본, 산책로 조성, 주차장정비, 향교진출입로 확·포장, 경관조명, 원형의자 설치 등이 있다(고령군청 홈페이지 참조).
- 고령군에서는 2005년부터 제1회 신비의 왕궁 대가야라는 주제로 대가야체험축제를 시작한 이래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와 대가야생활촌 등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대가야박물관, 지산동고분군, 왕릉전시관 등지에서 기획전, 왕릉제, 야간트래킹 등 다양한 행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가야생활촌에서는 기마문화체험장과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다.

대가야궁성지 전경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

대가야궁성지 전경(傳대가야궁성지)

연조공원 내 향교와 대가야궁성지

대가야궁성지 표지석

대가야궁성지 전경(上) 및 연조공원 내 모습(下)

(4) 서울 풍납토성(사적)

○ 풍납토성은 백제 한성기 평지 토성으로,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 11호로 지정되었다. 행정구역상 서울시 송파구 풍납 1·2동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평면형태는 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남-북 방향의 장타원형이다. 북벽과 남벽은 짧은 벽으로 직선에 가까우나 각기 동벽과 서벽으로 둔각을 이루며 꺽이고, 그 중 동벽은 중앙부가 튀어나온 형태를 띠고 있다. 풍납토성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64년 서울대학교의 김원룡선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 풍납토성은 현재 전체 토성 중 북벽과 동벽, 남벽 등이 남아 있고, 서벽은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이다. 북벽 446m 구간은 1976년~1978년에 걸쳐 현 상태로 복원·정비가 완료되었고, 동벽은 북쪽에 일부 구간이 유실된 것을 제외하고 약 2,080m 정도가 축조 당시의 모습대로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풍납토성은 현재 약 2.1㎞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고, 서벽이 붕괴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하면 전체 길이는 약 3.5㎞에 이르는 대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풍납토성은 을축년(1925) 대홍수 시 청동제 초두, 과대금구 등의 중요유물이 출토되면서 일제강점기부터 하남 위례성으로 비정되는 등 주목을 받아왔다. 1936년 조선고적 제27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1964년 서울대학교가 최초로 성 내부 유물포함층을 시굴조사하여 백제시대 생활면과 풍납리식무문토기 등 다량의 토

기를 발굴하였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97년 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현 현대리버빌아파트)에서 백제토기 등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1999년 6월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동측 성벽 2개(A,B)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풍납동 197번지 풍납토성 내 미래마을에 대한 발굴조사가 연차적으로 실시되었고, 여기에서 수혈주거지·대형건물지·도로유구·우물터 등 한성백제 왕도의 위용을 나타내는 유적과 유물이 드러났다. 1999~2008년에는 한신대학교박물관에서 경당 연립주택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동측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해(2011)에 동남쪽 성벽 밖에서 해자를 확인하는 발굴을 시작하였다.

- 1997년 1월의 발굴이후, 최근까지 풍납토성과 풍납토성 내부에서 20여차례의 대형발굴과 200여 차례의 소형발굴이 시행되었다. 이 토성은 고고학적 발굴조사와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1세기경에 만들어져 475(문주왕1)년에 웅진(熊津)으로 도읍이 옮겨질 때까지 500여 년간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풍납토성의 백제 왕궁유적이 발견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한성백제사』가 복원되어 오늘날 서울의 역사가 『서울600년사』에서 『서울2000년사』로 정립되고, 『한성백제사』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 현재 풍납토성은 발굴조사 후 복토를 하고 잔존하는 토성 전체를 잔디로 식재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그 외 토성 내부의 발굴지는 복토하고 공원으로 정비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토성 내 전체를 매입하기 위하여 매도의사를 밝힌 곳을 우선적으로 점단위로 매입한 곳이 있으며, 이곳은 지역민의 주차장이나 펜스를 설치하고 노지로 유지되는 곳도 있다.
- 2017년 11월에 서울특별시가 풍납토성 발굴조사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백제왕성 풍납토성의 현재와 미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조사·연구 성과와 국내외 고대왕성의 발굴·보존·활용 사례, 풍납토성의 미래라는 주제를 다뤘다. 2019년 2월에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부위원장은 “풍납동은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어느 곳 보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고 강조하며 풍납동의 도시재생사업지역 선정을 촉구했다.
- 현재의 풍납토성 권역은 성벽을 포함한 문화재 보호구역을 합하면 약 880,000㎡에 달하는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적지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2019년 현재는 약 400,000㎡ 가량의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다.

1967년 복원한 풍납토성
(자료: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풍납토성 복원 모형도
(자료: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2015년 9월 풍납토성 항공사진(자료: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3) 합천 성산토성의 보존 및 활용 계획

(1) 유적 기본정비 및 시설도입

▌유적 경계 펜스 설치

○ 먼저, 합천 성산토성의 전체 영역에 대한 경계설정과 함께 환경·경관 친화적인 경계 펜스를 설치하여 유적영역을 주변과 명확히 구분한다. 현재는 주변 민가와 유적범위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도성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 현재 유적 경계의 불명확함에 의해 주변 민가의 침범이나 농경행위에 의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적 안내판 추가 설치

○ 합천 성산토성을 역사교육이나 관광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적내 주요 유구에 대한 설명 및 안내판을 적절히 설치한다. 안내판은 유적 전체 및 발굴유구 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방문객에게 유적의 일반적인 현황과 특성, 중요성 등을 전달하고 합천 성산토성의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내용으로 전체를 구성한다.

○ 유적 안내판은 문화재청 안내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유구를 설명하는 개별 안내판 그리고 유적 전체를 설명하는 종합 안내판, 권역 안내판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하고 시인성과 전달성이 좋은 디자인과 서체로 다양한 정보와 내용을 방문객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안내판 문안은 간결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는다.

○ 또한, 무분별한 안내판의 설치는 오히려 유적의 경관 보존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도한 안내판의 설치는 지양하고자 한다. 또한, 안내판에는 설명문과 함께 유적의 원래 형태 등을 복원하여 보여주는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시각적 설명문도 같이 담아 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

▌유적 체험 탐방로 설치

○ 안내판의 설치와 함께 주요 유구와 성벽 등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유적 체험 탐방로를 조성한다. 유적의 성벽 내·외곽을 둘러보는 주 탐방로와 이와 연결하여 각 유구를 연결하는 보조 탐방로를 조성한다. 탐방로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벤치 등 간단한 휴게 편의시설을 유적의 보존이나 경관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이 탐방로는 먼저 유적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유적과 합천박물관 연결로 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 현재 인근의 합천박물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단기적으로는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이곳에서 유적을 직접 연결하는 연결로를 조성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합천박물관과 다라국도성 유적 사이에는 마을 통행로가 나 있어 단절되어 있다. 이에 두 곳을 바로 연결하면서 길 상부를 통과하는 원형브리지를 설치하여 두 곳을 직접 연결하여 방문객의 이동 동선을 유도함도 유적의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주차장과 화장실·휴게시설 등의 방문객 편의시설은 현재의 합천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나 장기적으로는 방문객의 방문현황과 수용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합천박물관의 시설 확장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합천 성산토성과 인접하여 별도의 위치에 설치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해야 한다.

연결로 조성방안 1

연결로 조성방안 2

▌유적 조경 정비 및 관리

○ 탐방로 조성과 함께 유적에 대한 정비작업을 전개하여 유적내·외 주변의 잡목이나 잡초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유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잔디 등의 식재를 통해 유적의 조경과 경관 유지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다만 잔디 식재 등을 통한 조경 관리시 식물 성장에 따른 발굴 유구의 훼손이나 원형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

(2) 추가 학술조사 실시

○ 합천 성산토성의 온전한 성격규명과 이에 따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학술조사에 더하여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합천 성산토성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성격규명과 성내 각종 시설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성벽에 대한 조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 정도 연차적으로 학술 발굴을 실시하여 토성과 석성으로 이루어진 가야시기 성곽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타 가야성곽과 신라성곽, 백제성곽과는 다른 성산토성 만의 독특한 축조공법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유적의 범위와 구조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졌다. 다만 토성과 석성 연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토성과 석성 연결 추정 구간에 대한 향후 평면조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성곽의 구조를 밝혀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성산토성 내 주거지 추정영역이나 내촌마을 영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성의 내부구성과 관련된 유구의 존재를 밝혀내고 관련 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다른 지역의 여러 성곽유적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적내 문지나, 주거지, 수공품 제작생산지, 도로, 망루, 저장시설 등 다양한 지배층의 핵심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유구들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찾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합천 성산토성 전체 구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적 복원을 통한 자원화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3) 성곽 복원계획

○ 합천 성산토성의 그간의 조사 성과를 토대로 역사교육적·관광산업적 차원에서 유적 일부 영역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만 지금까지 조사에서 밝혀진 성과와 더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조사가 행해진 후 도출된 구체적인 성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 최근 문화재청의 움직임 역시 성곽복원의 경우 가능한 한 원상을 유지하고 복원은 가급적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근거가 부족한 복원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성곽 복원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합천 성산토성의 경우에도 그 복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① 복원계획 수립의 전제요건

○ 성 유적의 복원은 원형보존을 기본으로 하며 복원은 역사교육 그리고 문화관광 차원의 활용을 염두에 두되 그 범위는 최소화하여 실시하여 과도한 복원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합천 성산토성 의 복원은 추측에 의한 복원은 지양하며 정확한 역사적·학술적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복원을 신중히 실시하고자 한다.

② 복원계획

○ 합천 성산토성의 경우 7차례 정도 발굴조사가 행해졌으며 발굴 이후 모두 복토가 이루어져 현재 발굴유구의 형태나 기타 현황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역사교육적 차원이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유적 일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복원을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합천 성산토성의 성벽 복원

○ 합천 성산토성의 성벽 중 조사 발굴된 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구간에 성벽 복원을 실시한다. 나머지 부분은 현 상태에서 최소한도로 정비·유지하여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 일부 구간의 성벽 복원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 구간과 석성 구간의 축성구조를 그대로 재현하여 성벽을 복원하고자 한다.

몽촌토성 목책 복원사례
(문화재청 문화재정보 홈페이지 자료)

풍납토성 성벽 복원사례
(문화재청 문화재정보 홈페이지 자료)

▌내부 대벽건물지 현장 복원

○ 기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대벽선물지 등 내부 건물지 관련 유구들이 조사 발굴되었으나 복원을 위한 충분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주거지, 수혈유구나 구상유구 등을 통해 대벽건물지 등 건물지 기본 형태만은 알 수 있으나 그 상부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온전한 대벽건물지 복원은 현 단계에서 불가능하며, 이에 발굴유구의 노출 상태로의 현장 복원을 통하여 그 대략적인 형태만이라도 방문객에게 전

달하도록 한다. 현장복원과 함께 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

▌제사유구 현장 복원

○ 3차 발굴조사에서 토우가 발견된 제사유구의 경우, 그 온전한 형태나 구조에 대한 실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대략적인 설명을 담은 안내문의 설치와 함께 현장 복원하여 그 존재를 방문객에게 알리도록 한다.

4) 활용계획- 역사교육자원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

○ 합천 성산토성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금년 9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옥전 고분군, 합천박물관과 연계한 역사교육자원화가 이루어져야 합천 성산토성의 경관을 완성하고 전반적인 현황을 제대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왕성지인 합천 성산토성과 왕이나 귀족 등의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진 세계유산 옥전 고분군과의 연계를 통해 다라국과 합천 성산토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과 함께 관련 정보의 완전한 전달이 가능해지며 연계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

○ 또한, 옥전 고분군 이외에 다라리고분군 등 인접한 다라국 관련 고분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성과를 반영하여 더욱 총체적인 활용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이에 합천 성산토성의 활용계획은 점적인 접근이 아니라 면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며 성 관련 주변 유적과의 연계활용 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1)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화 방안

○ 합천 성산토성의 역사교육자원화를 위해서는 먼저 합천 성산토성의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역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현재의 조사현황과 그 성과를 가지고는 적극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추가적인 학술조사 활동의 전개와 그 구체적 성과를 토대로 역사교육적 차원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다.

○ 현재 상황에서의 지역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자원화 프로그램안은 다음과 같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 합천 성산토성의 각종 정보를 방문객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역사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성격과 의미, 가치와 중요성 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활용이 필요하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은 수시 및 상시 운영 등 방문객 상황과 교육 수요를 검토하여 적절히 운영하고자 한다.

○ 문화관광해설사는 합천 성산토성과 관련 주변 유적, 그리고 다라국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역사적·학술적 지식을 겸비하고 방문객에게 다양한 눈높이에서 해설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며, 전문적이고 정확한 역사정보의 제공과 함께 합천 성산토성의 보존·유적 관리의 필

요성 역시 동시에 전달하고자 한다.

▌가야 바로알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합천 성산토성과 세계유산인 옥전 고분군, 그리고 주변의 다라리고분군 등 주변에 산재한 다라국 관련 유적을 모두 연계하여 다라국의 실체와 그 역사적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 또한, 주요 생활 현장인 성 유적과 죽음과 사후의 공간인 고분군유적을 상호 연계하여 다라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스토리텔링하여 방문객에게 전달하고 다라국에 대한 역사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된 각 유적을 연결하는 탐방루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합천박물관을 중심 기관으로 활용하여 강의와 현장체험을 같이 제공하고자 한다.

○ 탐방로는 성산토성, 옥전서원, 황강 등 주변 문화유산 연계한 테마코스를 개발하고, 옥번 고분군과 주변 고분군을 연계한 다라국 고분 탐방코스, 쌍책면 농촌다움복원사업의 농촌경관과 연계한 탐방동선 구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합천박물관 내 성산토성 관련 상설전시실 운영

○ 합천 성산토성 관련 구체적인 역사적 실체를 정확히 조명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합천박물관의 전시공간을 확장하여 합천 성산토성 관련 상설전시실을 추가 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합천박물관은 옥전 고분군에 대한 발굴성과 소개와 관련 발굴유물 전시 위주로 되어 있어 합천 성산토성 등 다라국 전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 합천 성산토성과 관련된 그 동안의 조사연구 내용과 그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여 합천 성산토성에 대한 실체 규명과 역사교육적 차원의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기존의 합천박물관 상설전시실에 더하여 “합천 성산토성실”을 상설로 마련하여 합천 성산토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발굴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전시한다.

▌합천 성산토성 가상복원 애니메이션 제작 보급

○ 합천 성산토성의 성벽구조와 내부 구성, 다라국인의 삶의 모습 등 다라국과 합천 성산토성 전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상복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합천박물관이나 관내·외 각 급 학교의 역사교육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한다. 이를 통해 합천 성산토성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역사교육적 목적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축적된 학술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가상 복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에는 학술적 근거에 한계가 있으며, 추가적인 학술조사 활동을 충분히 전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2) 콘텐츠산업화 방안

○ 합천 성산토성이 가지는 역사적·학술적 중요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

츠를 개발하여 콘텐츠산업 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합천군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한다.

▌가야이야기 스토리텔링 개발

○ 합천 성산토성과 옥전 고분군 등 다라국 관련 유적이나 유물 등의 역사자원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게임이나 뮤지컬, 드라마 제작 등 콘텐츠산업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현재 박물관이나 시군에서 문화재 관련 다양한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참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다라국이나 관련 유적에 관한 스토리텔링 개발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콘텐츠 산업화를 추진한다.

▌가야 관련 실경 뮤지컬 제작 공연

○ 다라국과 다라국 관련 유적 등 다라국 역사문화자원 관련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이를 토대로 실경뮤지컬을 제작하여 합천박물관 광장이나 유적현장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합천 다라국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지역 활성화 및 하나의 지역 대표 문화브랜드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가야이야기 모바일 게임콘텐츠 개발

○ 발굴조사된 합천 성산토성이나 옥전 고분군의 유적과 유물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모바일 게임 등으로 콘텐츠산업화 함도 고려할 수 있다. 관련된 유구나 유물 등에서 알 수 있는 다라국의 형성·발전·멸망 등의 다라국의 발전사나 백제나 대가야, 신라 등과의 정치·문화교류사 등에서 적절한 모티브를 찾아 이를 콘텐츠로 가공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9. 종합의견

○ 합천 성산토성은 북측에 옥전고분군이 위치하며, 동측으로는 황강변의 북측 나지막한 독립구릉(해발고도 약 17~53m)에 위치하며, 2009년부터 7차례의 발굴조사를 하였다.

○ 합천 성산토성에 대한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합천 성산토성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엽에 축성된 『양직공도』등에서 비정되는 다라국의 최고지배층의 핵심공간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사사례가 없는 토석양축성의 특징을 지니는 등 가야성곽의 축조 및 운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다.

발굴을 통해 확인된 성벽, 대벽건물지, 제사유구, 출토유물 등을 통해, 북쪽에 인접하여 조성된 합천 옥전고분군(사적 제326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그러나 합천 성산토성의 사적 지정에 있어 성곽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할 때, 현 조사된 토성과 석성의 연결지점에 대한 구체적 축조방식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토

성의 축조방식과 석성 축조, 증개축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성곽으로서 출입 시설인 문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몇 개소로 구성되었는지, 그 문지를 확인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야성곽의 문지 구조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합천 성산토성은 위에 지적한 토성, 석성의 축조 변천, 문지, 내부 건물지의 성격 등 지금까지의 학술조사에 더하여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된 후 사적 지정을 재검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안건번호 사적 2024-04-024

2. 부여 정림사지 등 내 부여 유물수장고 확충 사업 부지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부여 정림사지」 및 「부여 부소산성」 내 유물수장고 건립 대상부지 선정을 위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백제왕도핵심유적 발굴 유물 등 유물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유물수장고의 건립을 위해 부여 정림사지 또는 부여 부소산성 문화재구역 내에서 위치를 선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4년 2차 위원회('24.02.21.) 부여 정림사지 내 수장고 설치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정림사지(사적 / 1983.03.26. 지정),
부여 부소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쌍북리 산4 외

(3) 신청내용<**부여 유물수장고 확충 사업 부지 검토**>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쌍북리 78-2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구분	부지 1	부지 2	비고
대상문화재	부여 정림사지	부여 부소산성	
위 치	부여읍 정림로 83	부여읍 쌍북리 산4 외	
대지면적	27,820㎡	11,797㎡	
연 면 적	2,000㎡	2,450㎡	
높 이	6.3m	4.5m(지상노출)	
규 모	지상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용 도	수장고, 사무실, 보존처리실, 유물홍보실 등		

○ 향후계획

- 2024년 : 문화재청 검토, 재정투자심사 등
- 2025년 :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설계자문단 구성·운영)
- 2026~2027년 : 건립공사, 주변정비 등

라. 참고사항

(1) 세계유산정책과 의견

○ 세계유산구역 주변에서 신규 건립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계획 확정 전 세계유산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 지침서(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에 따른 사전검토(Screening)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의견

○ 정림사지 박물관 인근(1안)의 수장고 건립안은 규모 축소, 차폐식재 등으로 경관을 개선하였고, 수장고 기능의 운영과 활용성 측면에서 적절해 보임. 다만, 정림사지의 보호구역 내인 점과 기존 발굴조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부소산성 후문(2안) 수장고 건립안은 관리 운영 및 활용성 측면에서 1안보다 불리하지만, 경관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부소산성 부지로 유물수장고를 확충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25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에서 제출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 :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23년 6차 위원회('23.06.14.) 심의 결과 보류 :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신청내용<「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

○ 개정(안) 신청 내용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0층 이상 건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초과지역(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 외곽경계 200~500미터 이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외곽경계 200~300미터 이내의 지역)의 영향검토 조항 삭제 (조례 제5조 제2항 삭제)

현 행	개정(안)
제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②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200미	제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삭제)

현 행	개정(안)
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개정안 신청 사유

- 변화된 문화재 주변 여건 및 개발상황을 반영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의 합리적 조정 필요
- 지자체별 개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범위 설정으로 광역자치단체간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발생
  · 대부분 광역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한 범위 확장 조항이 없으며, 광역도 중 충북, 전남, 경남지역은 범위확장 조항을 삭제하여 시행중
-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를 축소하여 불편한 민원 해소 및 행정력 제고
  · 최근 3년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00~300m 지역내 현상변경 허가율 96%(경기도 심의 119건 중 115건 가결되었으며,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0% 가결)
  ·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문화재의 경우 규제 범위 확장 조항으로 인해 200m 외곽지역의 역차별 문제 및 민원 발생

(3) 추진경과

○ '16. 1. 7. 경기도 해당 조례 조항 삭제를 건의
-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 곤란”으로 문화재청 회신

○ '23. 2. 22. 경기도 해당 조례 조항 삭제 재건의

○ '23. 6. 14.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 보류(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재심의)

○ '23. 6. 28. ~ 7. 14. : 유사 조항이 있는 관련 지자체의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시행
- 대상/기간 : 대전광역시 등 6개 시·도 / ‘23. 6. 28. ~ 7. 14.
- 결과 : 개정(삭제) 대전 등 4개 시·도, 현행유지 전북 등 2개 도

구 분	해당 지자체(협의요청 시기)
개정(삭제) -4개 시·도-	대전광역시(‘24. 6월 이전, 국가유산법 시행 전 추진) 세종특별자치시(‘23.12~‘24.1월 중 지방문화재위원회 안건 상정) 강원특별자치도(‘24. 6월 이전, 국가유산법 시행 전 추진) 충청남도(‘23.11.9. 지방문화재위원회 안건 상정, 관련용역 추진 중)
현행유지	전라북도(문화재 주변 경관보존 및 왜소화방지를 위해 고도제한 필요)
의견 미제출	경상북도(별도의견 없음)

○ '24. 2. 22. 경기도에서 해당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재협의 요청

라. 참고사항

(1)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경기도문화재위원회(3차 기념물분과) 심의결과 ('23.03.09.) : 원안가결

(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경기도문화재위원회(3차 유형문화재분과) 심의결과 ('23.03.23.) : 원안가결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4-04-026

1.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2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2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4.03.27.(수) 14:00～16:20
○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세미나실
○ 참석위원 : 이승용, 김영심, 김충식, 성정용, 유병권, 유재춘, 홍보식
○ 회의안건 : 사적 주변 등 현상변경 허가 심의 9건
○ 회의결과 : 원안가결 1건, 조건부가결 1건, 부결 6건, 보류 1건

다. 처리내용

<table>
<tr><th>건 명</th><th>내 용</th><th>결 과</th></tr>
<tr><td>1. 공주 공산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td><td>○ 위치 : 충남 공주시 옥룡동 260-7번지 외 30필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75m 이격/5구역, 공통사항)
○ 사업내용
<table>
<tr><th>구 분</th><th>당초(허가, '23.04.26.)</th><th>변 경</th></tr>
<tr><td>대지면적</td><td>10,995㎡</td><td>10,995㎡</td></tr>
<tr><td>용 도</td><td>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td><td>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td></tr>
<tr><td>건축면적</td><td>2,796.33㎡</td><td>2,301.05㎡</td></tr>
<tr><td>연 면 적</td><td>31,218.03㎡</td><td>34,219.73㎡</td></tr>
<tr><td>용 적 률</td><td>191%</td><td>216%</td></tr>
<tr><td>건축규모</td><td>지하 2층, 지상 6층~15층</td><td>지하 2층, 지상 9층~20층</td></tr>
<tr><td>건축구조</td><td>철근콘크리트조</td><td>철근콘크리트조</td></tr>
<tr><td>최고높이</td><td>43.5m</td><td>59.3m</td></tr>
<tr><td>해발고도</td><td>84.5m</td><td>96.8m</td></tr>
<tr><td>건축물 동수</td><td>4동(216세대)</td><td>4동(221세대)</td></tr>
</table></td><td>○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td></tr>
</table>

<table>
<tr><th>건 명</th><th>내 용</th><th>결 과</th></tr>
<tr><td>2.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양묘장 설치</td><td>○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41-13 외 3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
- 설치규모 : 6동 1,631㎡
· 1동 : 7m×31m×H4.2m, 2동 : 7m×34m×H4.2m, 3동 : 7m×37m×H4.2m, 4동 : 7m×40m×H4.2m, 5동 : 7m×43m×H4.2m, 6동 : 7m×48m×H4.2m
- 구조 : 강파이프구조
- 관정 설치(비닐하우스 내) : 0.8m × 0.8m, 굴착깊이 20m</td><td>○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td></tr>
<tr><td>3. 전주 남고산성 주변 건축물(연수원) 건립</td><td>○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2 외 8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30m 이격/1, 4구역)
○ 사업내용 : 기존 배수지 철거 후 연수원 건립
- 대지면적 33,894.00㎡, 건축면적 4,783.05㎡, 연면적 7,882.55㎡
<table>
<tr><th>구분</th><th>기숙사/연수원</th><th>체육관</th><th>경비실</th></tr>
<tr><td>동 수</td><td>1동</td><td>1동</td><td>1동</td></tr>
<tr><td>건축면적</td><td>3,419.14㎡</td><td>1,329.83㎡</td><td>34.08㎡</td></tr>
<tr><td>연면적</td><td>6,505.02㎡</td><td>1,343.45㎡</td><td>34.08㎡</td></tr>
<tr><td>높이</td><td>3층/13.95m</td><td>1층/9.9m</td><td>1층/3.95m</td></tr>
<tr><td>구조</td><td>철근콘크리트 구조</td><td>철근콘크리트 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td><td>철근콘크리트구조</td></tr>
</table>
- 잔디구장, 주차장 조성 등</td><td>○ 조건부가결
- 원지형이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하여 참관조사 실시</td></tr>
<tr><td>4. 광주 조선백자 요지(무갑리) 주변 단독주택 신축</td><td>○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6-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680㎡
- 건축면적/연면적 : 90.30㎡ / 115.00㎡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층수/최고높이 : 지상 2층 / 7.5m
- 부지조성 : 옹벽 H=0.5~3.0m, L=34m / 펜스 H=1.2m, L=46m</td><td>○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td></tr>
</table>

<table>
<tr><th>건 명</th><th>내 용</th><th>결 과</th></tr>
<tr><td>5. 파주 혜음원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td><td>○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광탄면 용미리 278-3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18.9m 이격/2-2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993㎡
- 건축면적/연면적 : 198.0㎡/594.0㎡
- 층수/높이 : 지상3층/11.95m
- 구조 : 일반철골조
- 부지조성 : 식생블록(H=0m~0.5m) 54m, 식생블록(H=0.3m~0.5m) 19m</td><td>○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td></tr>
<tr><td>6. 파주 윤관장군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td><td>○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412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table>
<tr><th>구분</th><th>'24년 1차 - 보류</th><th>금회 신청안</th></tr>
<tr><td>대지면적</td><td>592㎡</td><td>592㎡</td></tr>
<tr><td>건축면적/연면적</td><td>131.22㎡/131.22㎡</td><td>130.59㎡/130.59㎡</td></tr>
<tr><td>층수/높이</td><td>지상 1층/5.5m</td><td>지상 1층/5.0m</td></tr>
<tr><td>구조</td><td>철근콘크리트조(전벽돌, 한식기와)</td><td>철근콘크리트조(전벽돌, 한식기와)</td></tr>
<tr><td>부지조성</td><td>옹벽 H=0.0~2.5m, L=61.5</td><td>한옥담장(H=1.7m) 35m, 조경석(H=0.9m) 22.9m</td></tr>
<tr><td>차폐수목 식재</td><td>-</td><td>잣나무(수고 5m이상) 14주</td></tr>
</table></td><td>○ 원안가결</td></tr>
<tr><td>7. 함안 가야리 유적 주변 제조업소 신축(A)</td><td>○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779(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400㎡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24년 소위1차-부결</th><th colspan="2">금회 신청</th></tr>
<tr><th>주1동</th><th>부1동</th><th>부2동</th><th>주1동</th><th>부1동</th></tr>
<tr><td>건축면적</td><td colspan="3">944㎡</td><td colspan="2">494㎡</td></tr>
<tr><td>층수</td><td>1층</td><td>1층</td><td>1층</td><td>1층</td><td>1층</td></tr>
<tr><td>높이</td><td>12.4m</td><td>12.4m</td><td>4.2m</td><td>3.9m</td><td>4.2m</td></tr>
<tr><td>면적</td><td>450㎡</td><td>450㎡</td><td>44㎡</td><td>450㎡</td><td>44㎡</td></tr>
</table></td><td>○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td></tr>
</table>

<table>
<tr><th>건 명</th><th>내 용</th><th>결 과</th></tr>
<tr><td>8. 함안 가야리 유적 주변 제조업소 신축(B)</td><td>○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779(문화재 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348㎡
<table><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24년 소위1차-부결</td><td colspan="2">금회 신청</td></tr><tr><td>주1동</td><td>부1동</td><td>부2동</td><td>주1동</td><td>부1동</td></tr><tr><td>건축면적</td><td colspan="3">944㎡</td><td colspan="2">494㎡</td></tr><tr><td>층수</td><td>1층</td><td>1층</td><td>1층</td><td>1층</td><td>1층</td></tr><tr><td>높이</td><td>12.4m</td><td>12.4m</td><td>4.2m</td><td>3.9m</td><td>4.2m</td></tr><tr><td>면적</td><td>450㎡</td><td>450㎡</td><td>44㎡</td><td>450㎡</td><td>44㎡</td></tr></table></td><td>○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td></tr>
<tr><td>9. 나주목 관아와 향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td><td>○ 위치 : 전남 나주시 경현동 116-1번지(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9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288.34㎡, 연면적 264.84㎡ / 평지붕, 최고높이 6.6m
- 철근콘크리트 구조</td><td>○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td></tr>
</table>

라.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

안건번호 사적 2024-04-027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김해 구산동 고분군」 내 학술발굴 조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53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김해 구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	**<학술발굴 조사>** ○ 위치 : 경남 김해시 구산동 70번지 일원(문화재구역) ○사업내용 - 학술발굴조사 770㎡	허가	'24.03.12.
사적 김해 구지봉	경남 김해시	○○○	**<보호구역 내 상징조형물 설치>** ○ 위치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65-2(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상징조형물 설치 : 3m×1.2m	허가	'24.03.28.
사적 김해 봉황동 유적	경남 김해시	○○○	**<홍보 조형물 설치>** ○ 위치 : 경남 김해시 봉황대길 39-32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상징조형물 설치 : 2.5m×1m	허가	'24.03.28.
사적 김해 봉황동 유적	경남 김해시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위치 : 경남 김해시 봉황동 465번지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 2기 설치 : 698.8㎜×664.8㎜×높이 1,902㎜ ○ 허가조건 : 굴착 시 참관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4.04.08.
사적 창원 성산 패총	경남 창원시	○○○	**<창원조각비엔날레>** ○ 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번지 7호(문화재구역) ○ 행사명 :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 내용 : 유물전시관, 야철지 및 야외공간에 임시 조각작품 설치	허가	'24.03.1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 ○ ○	**<진입로 정비>**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산 1-2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자하곡 진입로 정비사업 - 토공 : 흙깎기 265㎥, 흙쌓기 5㎥, 벌목 및 표토제거 199㎡, 사토 299㎥ - 배수공 : 파형강관(D400~600) L=17m, 집수정(1.0×1.0) 2EA - 구조물공 : 수로암거(4.0×2.0) L=4m, 옹벽블록(H=0.66~2.64) L=78m, 데크 설치 A=388㎡ - 포장공 : 아스팔트 포장 A=195㎡	허가	'24.04.08.
사적 거제현 관아	경남 거제시	○ ○ ○	**<상수관로 매설>** ○ 위치 : 경남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546번지 5호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상수관로 매설 : L=165.2m, D=50~200㎜ ○ 허가조건 : 굴착 시 참관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4.04.08.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고성군	○ ○ ○	**<보호구역 내 고성박물관 상징조형물 설치>**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5번지 1호 고성박물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상징 조형물 설치 : 5,780㎜×5,100㎜	허가	'24.04.08.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고성군	○ ○ ○	**<문화재 야행 행사>**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문화재구역) ○ 행사명 : 문화재 야행 행사(부처님 오신 날 행사) ○ 내용 : 봉축탑(3층탑) 설치 등 - 설치기간 : 2024. 4. 20. ~ 5. 30. - 규격 : 2,398㎜(W)×4,400㎜(H)	허가	'24.04.09.
사적 청주 정북동 토성	충북 청주시	○ ○ ○	**<비닐하우스 1동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407번지 5호(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변경 전 : 비닐하우스 1동 설치(가로 8m, 길이15m, 높이 3.5m) - 변경 후 : 비닐하우스 1동 설치(가로 8m, 길이15m, 높이 4.5m) ○ 허가조건 : 제출한 변경계획대로 시행하며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 허가함	조건부 허가	'24.04.0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충주 루암리 고분군	충북 충주시	○ ○ ○	**<농업용 관로 매설 및 가압장 설치>** ○ 위치 : 충북 중앙탑면 루암리 산37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5m 이격/1, 3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1,191㎡(가압장 490㎡, 관로 701㎡) - 가압장면적 : 7.6m × 10.0m = 76.0㎡ - 송수관로의 규모 : PE관(D250㎜) ○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시행하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조건부 허가	'24.04.09.
사적 제2로 직봉-음성 망이성 봉수 유적	충북 음성군	○ ○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 위치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산30번지 1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시굴조사 19,800㎡	허가	'24.04.09.
사적 부여 궁남지	충남 부여군	○ ○ ○	**<전기충전시설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52번지 1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기 1기 H1,200㎜×W1,000㎜(기초베이스W1,000×D1,200×H300) - 분전반 1기 H600㎜×W800㎜(기초베이스W700×D500×H300) - 신설 전주 1기 H8m(기초W700㎜×D1,400㎜×H300㎜) - 지중공사 D600㎜×H600㎜×L6m ○ 허가조건 : 충전시설 설치 시 굴착에 따른 관계전문가 입회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4.04.01.
사적 부여 정림사지	충남 부여군	○ ○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364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기 1기 H1,200㎜×W1,000㎜(기초베이스W1,000×D1,200×H300) - 분전반 1기 H600㎜×W800㎜(기초베이스W700×D500×H300) - 신설 전주 1기 H8m(기초W700㎜×D1,400㎜×H300㎜) - 지중공사 D600㎜×H600㎜×L8m ○ 허가조건 : 충전시설 설치 시 굴착에 따른 관계전문가 입회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4.04.0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부여 관북리 유적	충남 부여군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기 1기 H1,200㎜×W1,000㎜ (기초베이스W1,000×D1,200×H300) - 분전반 1기 H600㎜×W800㎜(기초베이스W700×D500×H300) - 신설 전주 1기 H8m(기초W700㎜× D1,400㎜×H300㎜) - 지중공사 D600㎜×H600㎜×L6m ○ 허가조건 : 충전시설 설치 시 굴착에 따른 관계전문가 입회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4.04.01.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	<벌채 및 조림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산9(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기허가 : 굴참나무 벌채 → 밤나무(면적 : 4.2ha / 3,465본) - 변경내용 : 목재 수확을 위한 벌채→변경) 마가목(1.05ha, 2,625본), 목수국(3.15ha, 7,875본) 조림	허가	'24.03.13.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	<시도25호선 확포장>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192-4 외 26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7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면적 : 8,489㎡ / L : 360m, B : 10m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사항임	허가	'24.04.01.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낭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기리 등 7개리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4구역) ○ 사업내용 - 농촌용수개발면적 : 218.5ha - 양수장 1개소, 토출수조 1개소, 송수관로 6.621㎞, 용수간선 9.709㎞, 용수지선 6.845㎞	허가	'24.02.29.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단독주택 신축 및 도로개설> ○ 위치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36-64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9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771㎡(대지면적 491㎡, 도로개설 280㎡) - 콘크리트 포장 : 280㎡(폭 6m, 길이 46.7m) - 단독주택 건축면적 : 124.21㎡(37.57평)	허가	'24.04.0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 ○	**<2024 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93-26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벚꽃 거리예술로 - 벚꽃 라이트쇼 - 벚꽃 쉼터(푸드트럭 8대 입점) - 벚꽃 포토존, 벚꽃 놀이터 등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24.03.08.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 ○	**<신라고취대 '경주의 풍류' 행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31-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고취대 공연 : 4/14, 5/12, 6/9 - 음향 : 메인 스피커 12개[10㎾] - 시스템 : 7m 기둥 부분 트러스 4EA - 무대 : 14.4m × 12.6m 약 181.4㎡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24.03.15.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 ○	**<2024 경주 에코플레이 로드 행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93-26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행사기간 : 2024. 3.29(금)~4.27(금) * 매주 금~일 3일 운영, 11시~22시 - 거리예술공연(버스킹, 비보잉 등) - 휴식공간(파라솔 테이블, 나무 파레트 등) - 마켓존(30개소), 체험존(10개소), 플레이존(5개소), 먹거리존(푸드트럭 10개소) * 별도 대형구조물 설치 없음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24.03.26.
사적 경주 법흥왕릉	경북 경주시	○ ○ ○	**<선도 윗보양수장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효현동 1067-9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농업용지하수 양수시설개발 - 암반관정개발 : 구경 D=300~250㎜, 굴착깊이 H=160m - 수중모터설치 : 길이 70㎝, 구경 80㎜, 전력 11㎾(15HP) ○ 허가조건 : 시설물 경관을 위해 목재 가림막 설치할 것	조건부 허가	'24.03.08.

<table>
<tr><th>문 화 재</th><th>소재지</th><th>신청인</th><th>사 업 내 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사적
경주
보문동
사지</td><td>경북
경주시</td><td>○ ○ ○</td><td><배반 중마을 농로 확장>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99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2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토공 : 터파기 78.0㎥, 되메우기 76.0㎥, 흙쌓기 4.0㎥, 순성토운반 9.0㎥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L=112.5m, A=173.0㎡(기존 B=2.2.~3.5m → 확장 3.5~4.0m)
○ 허가조건 : 건설공사 시 참관조사 실시</td><td>조건부
허가</td><td>'24.03.13.</td></tr>
<tr><td>사적
경주
동방동
와요지</td><td>경북
경주시</td><td>○ ○ ○</td><td><육상골재채취(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방동 756-1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8m 이격/1, 2, 5구역)
○ 사업내용
<table>
<tr><th>구분</th><th>기허가</th><th>변경내용</th></tr>
<tr><td>허가면적</td><td>12,888㎡</td><td>12,950㎡(증62)</td></tr>
<tr><td>반출로</td><td>3,303㎡</td><td>3,365㎡(증62)</td></tr>
<tr><td>골재채취량</td><td>15,324㎡</td><td>7,555㎡(감7,769)</td></tr>
<tr><td>콘크리트포장</td><td>230.0㎡</td><td>396.0㎡(증166)</td></tr>
<tr><td>자갈깔기</td><td>2,945.0㎡</td><td>2,945㎡(변동없음)</td></tr>
<tr><td>소형고압블럭</td><td>-</td><td>32.0㎡</td></tr>
<tr><td>경계석</td><td>-</td><td>26.0㎡</td></tr>
<tr><td>컨테이너</td><td>2ea</td><td>2ea(변동없음)</td></tr>
</table>
○ 허가조건 : 공사 시 참관조사 실시</td><td>조건부
허가</td><td>'24.03.15.</td></tr>
<tr><td>사적
경주
황룡사지</td><td>경북
경주시</td><td>○ ○ ○</td><td><신라 왕경숲 3차 조성>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235-7번지 외 27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흙쌓기 32,000㎥
- 집수정 12개소, 우수관 L=358m, 벤치플륨관 L=293m
- 경계석 설치 L=455m, 황토콘크리트포장 A=4,831㎡
- 점토블록포장 A=240㎡, 잔디블록포장 A=1,052㎡
- 휴게시설 : 평의자 6개소, 등의자 8개소, 앉음벽 L=62m
- 수경시설 : 돌수로 L=382m, 연못 L=488m
- 조경시설 : 한식담장(H1.3m) L=56m, 나무다리 4개소
- 식재 : 소나무 외 14종, 산철쭉 외 5종, 부들 외 6종
○ 허가조건 : 시굴조사 후 시행</td><td>조건부
허가</td><td>'24.04.01.</td></tr>
</table>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경북 경주시	○ ○ ○	**<용강네거리 교차로 확장>** ○ 위치 : 경북 경주시 용강동 878-3번지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 이격/1, 5구역) ○ 사업내용 - 도로확장 L=758.0m, 폭 18.8~33.70m (기존도로 L=756.0m, 폭 18.8~24.0m) - 토공 : 흙깎기 10,584㎥ - 배수공 : L형 측구(B=1.0m) L=1,178m -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 A=12,300㎡, 인도포장 A=2,969㎡ - 부대공 : 1식	허가	'24.03.26.
사적 경주 동부 사적지대	경북 경주시	○ ○ ○	**<한국해비타트 공익캠페인 활동>**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118-10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행사기간 : 5/4~5/6 - 테이블(2개) : 122×60×74(㎝) - 간이 부스(1개) : 60×52×90(㎝) - 이젤(2개) : 60×40×110(㎝) - 예상 사용 면적 : 400×150(㎝) - 음향, 조명, 무대, 가스, 전기 설치 없음 ○ 허가조건 : 행사장 소화장비 비치 및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	조건부 허가	'24.03.26.
사적 경주 부산성	경북 경주시	○ ○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농막용)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688(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9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설치면적 : 18㎡(3m×6m) - 건물높이 : 2.5m ○ 허가조건 : 공사 시 참관조사 실시, 3년(존치기간) 후 재심의	조건부 허가	'24.04.09.
사적 경주 명활성	경북 경주시	○ ○ ○	**<월성 숲머리 왕벚나무 둘레길 조명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보문동 272-3 ~ 26-12(문화재구역으로부터 4m 이격/1, 2구역) ○ 사업내용 - 보행로 야간조명 1식(1.8㎞) 및 에어건 2대 설치 - 수목등(36W) : 360개, 지중매입, 간격(5m), 터파기(400㎜×300㎜) - 볼라드등(15W) : 60개, 높이(0.7m), 간격(7m), 터파기(400㎜×300㎜) - 간접등(15W) : 470개, 높이(0.6m), 길이(1m), 간격(3m) - 에어건 : 2대, 본체 및 함체 크기 (1,367㎜×600㎜×1,200㎜)	허가	'24.04.0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전주 남고산성	전북 전주시	○ ○ ○	**<산불예방 숲가꾸기>** ○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157 외 2필지(문화재구역과 연접 /1구역) ○ 사업내용 - 면적 20.27ha, 숲 밀도조절 /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 (핵심구역) 1.55ha, 945본/1ha → 556본/1ha(389본/ha 제거, 41% 감) - (일반구역) 18.72ha, 880본/1ha → 599본/1ha(281본/ha 제거, 31.93% 감) ○ 허가조건 - 성벽 인근 작업 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후 시행 - 외래수종 우선 제거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굴착 작업 시 관계전문가 입회 - 사업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에 대하여 관람객 및 지역주민에게 안내할 것	조건부 허가	'24.03.15.
사적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전남 화순군	○ ○ ○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개최>** ○ 위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341-4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보호구역) ○ 사업내용 - 일시 : 2024.4.19.(금)~4.28.(일) / 10일간 - 장소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일원 - 시설물 설치 : 비닐하우스 3동(폭 8×길이 40m 2동 / 폭 8×길이 20m 1동), 행사용 천막, 이동식 화장실, 고인돌 조형물 5식 등 ○ 허가조건 - 어린이 관련 시설 규모 축소 및 해당 문화유산과 연관된 프로그램 운영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조건부 허가	'24.03.1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전북 김제시	○ ○ ○	**<역사공원 등 조성>** ○ 위치 : 전북 김제시 교동 40번지 일원 (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성산역사공원(2,959㎡), 농경문화공원(4,096㎡) 조성 - 숲, 산책로 등 공간 조성, 수목 식재 및 이식, 시설물(정자, 데크 등) 설치 등 * 기 허가사항 허가기간 도래에 따른 신규 허가 건임.	허가	'24.03.11.
사적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도 제주시	○ ○ ○	**<가설건축물(농막) 1동 설치>**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고산리 3415-3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9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농막 1동 설치(면적 18㎡, 높이 3m) ○ 허가조건 - 농자재 보관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2027.03.21.까지 임시 허가하며, 설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조건부 허가	'24.03.22.
사적 제주 고산리 유적	제주도 제주시	○ ○ ○	**<가설건축물(농막) 1동 설치>**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고산리 3672-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1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농막 1동 설치(면적 18㎡, 높이 2.8m) ○ 허가조건 - 농자재 보관 및 일시 휴식 장소를 위한 가설건축물은 2027.03.21.까지 임시 허가하며, 설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	조건부 허가	'24.03.22.
사적 파주 윤관장군묘	경기도 파주시	○ ○ ○	**<기존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2동)>**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54번지 3호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4m 이격/1, 3구역) ○ 사업내용 - 설치면적 : 231.27㎡ - 태양광 최대높이 : 1동 12.3m, 2동 11.0m(기존 건축물 높이 각 8.7m) - 설비용량 : 50㎾	허가	'24.03.0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파주 오두산성	경기도 파주시	○ ○ ○	**<검단사 법당 부지조성(허가사항 변경 허가)>**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89(문화재구역으로부터 213m 이격/2-1구역) ○ 사업내용 - 당초 · 2단 석축 조성 ·· 1단 : H=3.9m, L=83m ·· 2단 : H=3.4m, L=85.7m · 계단 석축 ·· 1단 : H=2.2m, L=9m ·· 2단 : H=1.7m, L=7.05m - 변경 · 2단 석축 조성 ·· 1단 : H=3.9m, L=81m ·· 2단 : H=3.5m, L=77.8m · 계단 석축 ·· 1단 : H=1.7m, L=7.5m ·· 2단 : H=2.4m, L=10.66m	허가	'24.03.07.
사적 파주 혜음원지	경기도 파주시	○ ○ ○	**<기존 진출입로(다리) 확장>**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74-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2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5㎡ - 콘크리트 타설 : T 0.2m, A 15㎡ - 콘크리트경계석 철거 : 0.2m×0.1m×3.7m - 콘크리트경계석 타설 : 0.2m×0.1m×3.3m	허가	'24.03.18.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53번지 7(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277㎡ - 건축면적/연면적 : 83.65㎡ / 77.98㎡ - 층수/높이 : 지상 1층 / 5.5m - 수목식재 : 교목(주목, 산수유) 4주, 관목(회양목, 산철쭉) 14주 - 부지조성 · 성토 : H 0.5~3.1m(243.4㎡) · 식생보강토옹벽 : H 0.5~3.1m, L 51m · 역L형옹벽 : H 0.5~1.0m, L 10m · 펜스 : H 1.5m, L 60m	허가	'24.03.0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 ○	**<기존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02번지 5호, 302번지 7호(문화재구역과 연접/1, 4구역) ○ 사업내용 - 모연1태양광발전소 · 설치면적 : 447.31㎡ · 태양광 설치 최고높이 : 10.605m (기존건물높이 5.761m) · 설비용량 : 99.63㎾ - 모연2태양광발전소 · 설치면적 : 446.85㎡ · 태양광 설치 최고높이 : 12.831m(기존건물높이 8.220m) · 설비용량 : 99.63㎾ - 모연3태양광발전소 · 설치면적 : 426.1㎡ · 태양광 설치 최고높이 : 1동 12.831m(기존건물높이 8.220m), 2동 11.388m(기존건물높이 8.426m) · 설비용량 : 94.71㎾	허가	'24.03.08.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 ○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27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설치면적 : 81.53㎡ - 태양광 최대높이 : 9.23m(기존 건축물 높이 : 5.5m) - 설비용량 : 19.635㎾	허가	'24.04.02.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 ○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55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8㎡/18㎡ - 층수/높이 : 지상 1층, 2.6m - 구조 :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허가	'24.04.03.
사적 여주 고달사지	경기도 여주시	○ ○ ○	**<가설건축물(농막) 설치(기간연장)>**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0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9.8㎡/19.8㎡ - 층수/높이 : 지상 1층, 3.3m - 구조: 경량철공구조(컨테이너) ○ 허가조건 - 기간 연장 시 재허가 받을것	조건부 허가	'24.04.0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북한산성	경기도 고양시	○ ○ ○	**<선봉사 요사채 증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08 외(문화구역으로부터 520m 이격/1구역) ○ 변경내용 - 대지면적 : 3,328㎡ → 459㎡ - 건축면적/연면적 : 77.14㎡/77.14㎡ → 50.57㎡/50.57㎡ - 층수/높이 : 지상1층/4.3m → 지상1층/4.84m - 구조 : 콘크리트블럭구조 → 경량철골구조 * 기존 건축물 철거(406.88㎡) 후 증축(변동없음) ○ 허가조건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조건부 허가	'24.03.08.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 ○	**<풍납백제문화공원 행사>**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풍납백제문화공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2024 풍납토성 한마음 축제 - 시설물 설치사항 · 무대설치(가로 12.740m×세로 7.280m×높이 0.98m) · 행사용 천막설치(가로 18.300m×세로 3m), 기타 시설물 설치 - 허가기간 : 2024.05.18. ○ 허가조건 - 무대설치 등 굴착시, 관계공무원 참관 - 풍납백제문화공원 내 무대설치 및 행사장소는 송파구청 문화재과와 협의하여야 함 -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 금지 - 행사질서 및 행사장소 주변 청결 유지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행사 종료 후 임시 설치 시설물 즉시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야 함 - 행사 추진시, 소음 및 진동에 따른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함	조건부 허가	'24.04.12.

<table>
<tr><th>문 화 재</th><th>소재지</th><th>신청인</th><th>사 업 내 용</th><th>처리결과</th><th>처리일자</th></tr>
<tr><td>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td><td>서울시
송파구</td><td>○ ○ ○</td><td><그늘막 설치>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9-2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풍납게이트볼장 내 그늘막(파라솔) 설치(1개소)
- 규모 : 가로 5m, 세로 3.65m
- 지하굴착 : 콘크리트 기초 1개소(폭 0.4m×깊이 0.5m, 보강 팩 4개 삽입)
- 허가기간 : 2024.03.14.~04.30.
○ 허가조건 : 굴착시, 관계공무원 참관</td><td>조건부
허가</td><td>'24.03.14.</td></tr>
<tr><td>사적
서울
초안산
분묘군</td><td>서울시
노원구</td><td>○ ○ ○</td><td><무장애 데크길 조성>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75-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규모 : 데크(길이 110m, 폭 1.8m, 높이 1.5m), 기초콘트리(0.3m×0.3m×0.3m)
- 최대굴착깊이 : 0.55m×0.4m×0.4m
- 허가기간 : 2024.04.11.~2025.12.31.
○ 허가조건 : 굴착시, 관계공무원 참관</td><td>조건부
허가</td><td>'24.04.11.</td></tr>
<tr><td>사적
수원 화성</td><td>경기도
수원시</td><td>○ ○ ○</td><td><그리기대회 개최>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3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가설천막 설치
- 몽골텐트 : 5동(5m×5m×H2.5m)
- 캐노피텐트 : 20동(3m×6m×H1.8m)</td><td>허가</td><td>'24.03.20.</td></tr>
<tr><td>사적
강릉
초당동
유적</td><td>강원도
강릉시</td><td>○ ○ ○</td><td><근린생활시설 증축>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7-23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71m 이격/1, 5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152㎡
- 건축면적/연면적(증축부) : 135㎡/135㎡
<table><tr><th>구분</th><th>기존</th><th>증축</th></tr><tr><td>건축면적/
연면적</td><td>980㎡/980㎡</td><td>135㎡/135㎡</td></tr><tr><td>층수/높이</td><td>지상1층/8.22m</td><td>지상1층/5.75m</td></tr><tr><td>구조/지붕</td><td>철골조
/징크패널</td><td>철골조
/징크패널</td></tr></table></td><td>허가</td><td>'24.03.22.</td></tr>
</table>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 ○	<건축물 위 태양광 시설 설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481(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80m 이격/2-3구역) ○ 사업내용 - 설비규모 : 태양열 구조물 (19.9m× 9.7m×3.8m)/건축물 최고높이(10.8m) - 지붕형태 :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 - 규모 : 태양열 집열기 - 2㎡×88매 = 176㎡ - 태양열 장비 · 열매체순환펌프 : 127.5LPM× 33.8mAq×2.2㎾ · 축열순환펌프 : 121.1LPM× 5.5mAq×0.37㎾ - 수평투영 면적 : 186.24㎡ / 부피 : 136.22㎥ / 중량 : 3.27Ton″	허가	'24.03.29.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 ○	<단독주택 부지조성>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566-10(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2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33㎡(사업부지 433㎡) - 토공 : 절성토 및 보강토 옹벽 최고 높이 3m	허가	'24.04.05.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 ○	<단독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566-11, 566-12, 570-4(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47㎡(사업부지 433㎡, 진입도로 14㎡) - 절성토 1단 : 4m, 2단 : 3m - 보강토옹벽 : H=0.5~4.0m, L=64.0m	허가	'24.04.08.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	부산시 연제구	○ ○ ○	<산림 내 편의시설물 설치>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산5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전기공 : 강관주(Ø100, 6m) 6EA, 터파기(콘크리트 기초, 60㎝) 0.072㎥ - 시설물공 : 흙먼지털이기(3100×1600×2500) 1조(2개 1세트)	허가	'24.04.09.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